금주의 법구-〈법구경〉
불행은 자신의 입에서 시작된다.
입은 몸을 치는 도끼요,
몸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날이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1년 단기 4350년(음력 5월 5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1153호 2017년 6월 28일 수요일

사찰 중심된 聖寶 연구·전시 활성화 '눈길'

화엄사·운문사·송광사·옥천사
소장·환수 성보 연구·전시 개최
일반인과의 소통 방안 찾고
성보 가치 알리는 효과 '기대'

"건축 아닌 사찰 콘텐츠 개발로
스님들 佛事 인식 전환되는 중"
일회성 아닌 장기적 연구 필요

사찰을 중심으로 소장 성보 문화재의 가치와 보존·활용을 연구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사찰 소장 문화재에 대한 연구와 보존·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곳은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주지 덕문)와 청도 운문사(주지 진광)이다. 화엄사와 운문사는 6월 13일과 10일 각각 학술 세미나를 열고 사찰 소장 성보 문화재 연구와 활용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 세미나는 학계가 아닌 사찰이 주도해 자신의 소장 성보 문화재의 가치를 연구·조명하고 있다는 데 눈길을 끌었다.

조계종 제21교구본사 송광사(주지 진화)와 고성 옥천사(주지 원각)는 도난됐다가 환지본처한 성보문화재를 적극 연구·전시하는 행사를 잇달아 마련했다.

송광사는 지난해 12월 도난당한지 40여 년만에 환수한 오불도(五佛圖)를 6월 24일부터 특별전을 통해 일반에 공개했다. 23일에는 오불도를 조명하는 학술대회도 개최했다.

옥천사 역시 환수한 나한상 2점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특별전을 성보박물관 전시실서 개최하며, 7월 4일에는 '옥천사 나한상의 제작시기와 작가 추론'을 주제로 문화 강좌도 열 예정이다.

특히 옥천사는 소장 성보문화재에 대한 연구를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원장 석문, 이하 동불연)와 협약을 맺고 지난해부터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나한상 환수도 동불연과의 학술 세미나를 통해 공개된 사진이 결정적 증거가 돼 이뤄졌다.

논산 관촉사, 예산 향천사, 속초 보광사 등도 소장 성보문화재와 사찰 역사를 동불연과 공동 연구를 통해 조명하고 있다. 동불연은 이들 사찰에 대한 사지·문헌집·연구집을 시리즈로 발간 중이다.

이들 사찰이 보이는 행보는 단순한 문화재 연구를 넘어 사찰 문화 콘텐츠의 외연을 확장하는 초석이다.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화엄사의 경우 건축불사는 어느 정도 완료됐다. 이제는 어떻게 콘텐츠를 채워나가야 하는지가 관건"이라며 "문화재를 어떻게 활용하고 국민에 돌려줄지를 고민하려 한다. 국민에게 다가가는 열린 사찰이 저의 문화재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적지 않은 사찰들도 어떤 콘텐츠를 개발하고 채울지를 고민하고 있다"면서 "그런 고민들이 인식 전환으로 이어지며, 다양한 연구들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운문사 주지 진광 스님은 "그간 운문사는 변변한 박물관이 없어 성보문화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며 "성보문화재를 잘 정리·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이를 통해 일반인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사찰이 중심된 성보문화재 연구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만 1회성 행사가 아닌 장기적 연구 사업으로 발전시킬 것을 주문했다.

오세덕 경주대 교수는 "국보와 보물 등 중요문화재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황이다. 하지만 사찰에 산재한 문화재들은 해당 사찰이 가장 잘 알 수밖에 없다"며 "사찰 소장 문화재를 스스로 연구·보존하기 위한 노력은 문화재 연구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작업이다. 이 같은 연구들은 불교문화재 연구를 발전시키는 과정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최선일 동불연 부소장은 "전국 1000여 곳의 전통사찰 중 소장 성보문화재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30여 곳밖에 안 된다. 최근 사찰들이 중심으로 진행하는 연구 사업들은 긍정적"이라며 "이 같은 연구 사업은 1회성 행사로 그쳐서는 안 된다. 문헌집·사지 등 최소 기초 자료를 만드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성민 기자



순국선열 왕생극락을 기원하며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정우)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18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제17회 호국영령 천도법회를 진행했다. 법회서는 추모행사와 함께 1600여 대중이 함께 한국전쟁 의미를 되새기는 주먹밥 시식 등을 진행했다. 사진은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첫 열 왼쪽 첫 번째)과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두번째 열 오른쪽 첫 번째)을 비롯한 대표자들이 순국선열 위패를 들고 영가 천도를 발원하는 모습. 글=노덕현 기자 · 사진제공=조계종 군종특별교구

신행불교대학 '관리감독' 과제 떠올라

조계종 포교원, 6월 21일 신행불교대학 16곳 선정

신도교육 대중화 방침에 도입
불교대학 비해 인가조건 완화
사찰 개별교육 감독 필요성↑

조계종 신규 신도교육기관인 신행불교대학에 16곳이 선정됐다. 신행불교대학은 포교원의 신도교육 대중화 방침에 따라 도입된 기관으로 기존 불교대학과 달리 인가절차 및 교육과정이 대폭 완화됐다. 이에 향후 신도불교대학 교육 관리가 과제로 떠올랐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6월 21일 포교원 회의에서 신행불교대학을 발표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지역에 천축사, 백련사, 석가사, 회룡사, 구현선원, 지선사, 연등밝은절 등 7곳이, 부산·영남지역에는 광명사, 금강사, 무룡사, 송림사, 장금선원, 정각사 등 6곳, 광주·호남지역에 연국사 1곳, 강원지역에는 성불원과 봉덕사 등 2곳이 선정됐다.

신행불교대학은 벽지 사찰에서도 인터넷 동영상 강의 등을 통해 사찰 신도들을 대상으로 신도교육을 진행할 수 있게 했다. 사찰 환경을 배려해 학생정원이나 교육시설 기준 등 기존 불교대학의 까다로운 인증절차를 생략했다. 졸업까지의 교육이수 시간은 1~2년간 96시간이 진행되는 불교대학에 비해 비교적 짧은 72시간이며 강사진 구성도 불교대학의 4명에서 조계종 스님 1명으로 완화됐다. 수강 자격이 해당 사찰 재적 신도에게만 주어지지만 불교대학 정원기준이 20명인 반면 신행불교대학 정원은 제한이 없다.

반면 혜택은 풍부하다. 신행불교대학은 '신행불교대학 지정 및 관리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대한불교조계종'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졸업자 혜택도 불교대학과 동일하다. 졸업자에게는 '부동' 신도품계가 품서되며 포교사 고시 응시자격도 부여된다.

여기에 사찰 환경에 맞게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포교원에서 동영상과 자료로 배포하는 '신행혁신과 불자상' '부처님의 생애' '불교개론'은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금강경의 이해' '불교문화·역사' '불교신행(수행)' '봉사' 등 과목은 사찰 역량에 따라 선택 가능하다. 여기에 조계종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동영상 강의 방식과 사찰 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방식도 선택 가능하다.

문제는 신행불교대학의 교과목 신청 내역을 보면 인터넷 동영상 강의 방식을 선택한 사찰은 3곳으로 대부분 사찰 개별교육 방식을 선택했다는 점이다. 조계종 디지털 대학에서 제공하는 강의 동영상은 사찰ID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속해 활용하기에 포교원에서 접속 및 활용에 대한 감독이 용이하다. 최소한 동영상 강의 의무시행 등 요건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강원지역 불교대학 학장 스님은 "기존 불교대학에 비해 인가 조건부터 대폭 완화된 상태에서 대학의 개별적인 교육에 대한 관리도 부실하면 자칫 보여주기식 교육, 조계종 인가 명칭만을 위한 교육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계종 포교원 교화팀 관계자는 "신행불교대학은 소규모 사찰이 종단 신도교육을 경험하도록 한 것으로 신도교육 대중화를 위해 사찰 참여를 이끄는 방편으로 도입됐다. 2018년 8월까지 운영되는 동안 개선사항을 받아 수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신행불교대학이 향후 정식인가 불교대학까지 될 수 있도록 유도와 지원을 함께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원로의장 종하 스님 선출

6월 22일 만장일치로
임기 12월 10일까지



조계종 신임 원로의장에 불교방송 이사장 종하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조계종 원로회의는 6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서 제54차 회의를 열고, 원로의장에 종하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이번 원로의장 선출은 전임 원로의장 밀운 스님의 원로의원 임기 만료에 따른 보궐로, 임기는 잔여임기인 오는 12월 10일까지다. 원로회의는 이외에 공석인 부의장에 암도 스님을 선출했다.

회의 직후 원로의장단은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들에게 "사부대중을 위한 종무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원로의장 종하 스님은 기자들과 만나 "의장단이 선출됐으니 우리는 초지일관 종단 화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새 의장단은 전임 의장단과 연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종단 특유의 종지와 관습에 따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천명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회의서는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의 원로의원 선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원로의장 종하 스님은 고봉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59년 수계했다. 총무원 총무부장 및 부원장, 중앙종회의장, 개혁회의 부의장 등을 역임하고, 2009년 원로의원으로 선출됐다. 2011년 해인사서 대종사 법계를 품수했다.

부의장 암도 스님은 천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55년 수계했다. 백양사 주지, 중앙종회의원, 총무원 교무부장 및 총무부장, 중앙승가대 교수 등을 역임하고, 2011년 원로의원으로 선출됐다. 2011년 해인사서 대종사 법계를 품수했다.

윤호섭 기자

사 령

명) 편집국 취재부
부산주재기자 하 성 미
2017년 6월 1일 부
이상 1명

명) 편집국 취재부 수습기자
박 진 형
이 지 선
2017년 6월 12일 부
이상 2명

대원 문재현 선사님 현재 94권째 서적 출간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은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만공·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선문염송 30권, 전등록 30권을 모두 역해하여
세계 최초로 1,463칙 전 공안에 착어한 혜안으로 화엄경 81권의 역해를 마치다!!



불조정맥 제78대인 명안종사의 눈으로, 역해와 더불어서 각권과 각품마다 자문자답의 결문으로 선미(禪味)를 더하여, 대천세계를 손바닥의 겨자씨 들여다보듯이 한 불보살님들의 지혜와 신통으로 누리는 불가사의한 화엄세계를 열어 보였다.

화엄경 81권 중 15권 출간

출간 불사

모연문

전자책 5권 무료 다운로드

전자책 1, 2, 3, 4, 5권을 무료로 공개하였으니 읽어 보시고 만인에게 권할 만한 화엄경이라고 여기신다면 81권의 서적과 전자책 출간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료 전자책은 아래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www.zenparadise.com / 불사문의 : 010-4520-7963〉

바로보인 유가귀감

휴정 서산대사께서 밝혀놓은 유교의 뜻

유가귀감은 서산대사가 간추려놓은 구절로서 간결하지만 심오하기 그지없다. 간략한 구절 속에서 유교 사상을 미루어 볼 수 있게 한 서산대사의 박학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 대원 문재현 선사 서문 중에서...



신간

바로보인 도가귀감



휴정 서산대사께서 밝혀놓은 도교의 뜻

도가귀감은, 일물(一物, 온통인 마음)을 밝혀서 회복함으로써, 나고 죽음을 비롯하여 모든 아픔과 고를 여의어, 뜻과 같이 누려서 살게 하고자 한 도교의 뜻을, 휴정 서산대사께서 밝혀놓은 책이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은 부록으로 도덕경의 중대한 대목을 더하고, 도가귀감과 도덕경의 대목대목마다 결문(決文)하여, 깊은 내용을 쉽게 수용하고 음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031-534-3373 도서출판 문젠 (구, 바로보인)

‘종단화합 최우선’ … 기호 달라도 애종심은 한마음

태고종 총무원장 후보, 4人4色 정견
7월 5일 오후 2시부터 정책 토론회

태고종 제26대 총무원장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들이 6월 19일 진행된 제130회 중앙종회 임시회를 기점으로 각각 정견을 발표했다. 후보들은 태고종이 처한 부채 문제 및 출가자 확보 등 현안 해결과 화합 운영에 공통된 입장을 보이면서도, 세부적인 해결책에서는 차별화된 방안을 제시했다. 태고종 중앙선관위는 총무원장 선거인단 확정 후 7월 5일 오후 2시부터 공식 정견발표 및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태고종 총무원장 후보로 나선 스님들이 함께 손을 맞잡고 종단 발전을 위해 깨끗한 선거운동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왼쪽부터 능해 · 백운 · 지홍 · 대은 스님(기호순)

기호 1번 능해 스님
“종단부채 수익사업으로 해결”

능해 스님은 소통과 화합을 통한 협치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능해 스님은 1995년 태고종 총무원 사회부장을 시작으로 교무부장, 총무부장, 교류협력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2010년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상임이사, 2011년 문체부 전통사찰심의위원을 지냈다.

스님은 “종단에 봉직하면서 쌓아온 행정실무 경험과 사회활동 경험 등을 종단발전에 회향하겠다”며 특히 태고종 부채를 수익사업으로 해결할 것을 밝혔다. 선암사 분규문제에 대해서는 “종단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또한 시도 강원과 불교대학을 재정비하고 정부 인가 대학을 운영하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능해 스님은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단청장을 비롯해 수많은 문화재 전승가들을 양성하고, 스님들이 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기호 2번 백운 스님
“권역별 3심체제 완비할 것”

백운 스님은 태고종 위상 강화에 나설 것을 밝혔다. 스님은 1973년 춘천 석왕사 주지로 취임하며 강원지역 포교에 앞장섰다. 춘천소년원과 교도소서 전법활동을 펼쳤으며 1994년부터 강원불교대학장을 맡아 교육에 나서고 있다. 종정예경실장, 강원종무원장, 교육부원장 등을 역임했다.

스님은 “종단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종도들의 원력이 있어야 한다”며 백의종군할 것을 밝혔다. 스님은 종단 부채 해결을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마중물로 쏟아 붓겠다”고 역설했다. 또 “감사원법을 도입해 종단 부채에 대한 감시체제를 확립하겠다”고 다짐했다.

백운 스님은 출가제도 개편도 제시했다. 스님은 “이판과 사판을 구별해 수계형태를 두 가지로 나누고 교육비를 전액 지원해 출가자 감소에 대비하겠다”며 “종무행정 체계화를 위해 권역별 지방초심제도를 다시 도입해 3심 체제를 완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호 3번 지홍 스님
“종단위상 회복 위해 진력”

지홍 스님은 구체적인 공약 대신 입후보 소회를 밝혔다. 스님은 1981년 청련사 재무를 시작으로 2004년 태고종 보우승가회 회장, 2009년 태고종 총무원 행정부원장, 제12~14대 종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스님은 “태고종은 어디까지나 한국불교 장자 종단으로 종도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추대 형식으로 총무원장 선거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스님은 “큰스님을 추대해서 모시는 것이 맞다. 투표를 하다 보니 분열이 되고 양분되는 일이 생긴다. 추대 형식을 통해 종단 수장을 모셨으면 한다”고 발언했다.

스님은 끝으로 “총무원장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없다. 종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기호 4번 대은 스님
“전통 · 문화 · 복지종단 확립”

대은 스님은 원융살림을 바탕으로 한 전통종단, 문화종단, 복지종단을 기치로 내걸었다. 스님은 1989년 인천불교총연합회 16대 회장을 맡은 이후 2006년부터 24대와 25대 회장을 역임했다. 1991년 해동불교대학 교육원장을 맡은 후 대학장으로 현재까지 후학양성에 힘쓰고 있다. 태고종 종무원장 협의회 1 · 2대 회장과 총무부장, 중앙종회 부의장 등을 역임했다.

스님은 5대 종책 기조를 공개했다. 첫 번째 기조로 “선암사 수호를 중심으로 종지종풍과 전통성을 확립해 나가겠다. 의식 의제의 통일로 전통종단 정체성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 기조로 종무행정에 서비스 개념을 도입하고, 책임 종무원제를 도입할 것, 세 번째 기조로 종단 부채해결, 네 번째 기조로 선도적 종도교육과 후학 육성을 제시했다. 특히 종도교육에서는 종립학교 기반 확립과 기성 스님 재교육 실시방안도 공개했다. 스님은 끝으로 문화복지 기반 조성을 제시했다. 대은 스님은 “영산재 등 종단이 지닌 문화재를 보완해 활동을 장려하고, 연구기관을 만들어 범패, 팔관회 등 종단의 많은 문화자원을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종헌 종법 계승 및 재정립 △종단사 재정립 △종단 전통의제 통일 △총무원 권한의 지방 이양 △삼보정재 관리 위한 행정개선 △사설사암 자주권 보장 △법계 제도 개선 △기본교육 개선 위한 교육원 활성화 △승려노후복지 재정 확보 △포교원 활성화 및 대사회 참여 등을 제시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영동대로 개발’ 환경문제 우려 잇달아

환경평가 공청회, GBC 중복오염 가능성… “통합평가해야”

서울시 영동대로 일대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공개됐다. 하지만 부실 평가라는 지적과 함께 환경문제 우려가 빗발쳐 대안 모색이 절실한 상황이다.

서울시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6월 22일 삼성1동 문화센터에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봉은사역사문화환경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지현 · 원명) 관계자와 주민대표, 환경전문가 등이 참여해 공개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전달했다.

이 자리서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대상지역 설정 △지하수위 조사 및 평가 △유출지하수 저감대책이 미흡함을 지적했다. 박 교수는 “수환경 보전을 위한 대상지역을 계획구간과 주변수계로 설정해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게다가 지하수 흐름 방향을 한강이 아닌 탄천으로 제시해 재조사가 필요하다”면서 “1회 계측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하수위 분포를 확인하기 불가능하고, 지점별로 연속계측자료와 강남구 보조관측망 자료 등과의 비교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하수위 영향범위와 수위변동 예측 결과를 제시하고, 수위저하로 인한 지반침하 발생 등 주변 영향평가와 저감방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추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제2롯데월드와 지하철 9호선 공사 시 발생한 문제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 적정 차수공법과 시설설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현대차 GBC개발과 연계된 지하수 영향 검토와 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병인 부산대 바이오환경에너지학과 교수는 “예측과 평가가 축소되고 부실하다. 또한 환경영향범위와 평가항목도 누락됐다”고 지적한 뒤 GBC 건립으로 인한 복합오염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 교수도 GBC와 영동대로 가중피해를 사전검증하기 위한 통합환경영향평가를 주문했다. 윤호섭 기자

‘해종언론 사태’ 법정공방 예고

2015년 11월 인터넷매체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를 해종언론으로 규정한 조계종과 이를 언론탄압이라 지적하는 시민사회단체 간 갈등이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조계종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는 6월 21일 서울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불교언론탄압 자행하는 자승 총무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 해종언론 지정 이후 600여일 동안 5금(취재 · 출입 · 접속 · 광고 · 접촉금지) 조치를 단행함에 따라 두 언론사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언론과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불교계 언론이 본연의 기능을 찾을 수 있도록 연대하고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 정남기 前한국언론재단 이사장, 최병모 前민변회장, 임지연 바른불교재가모임 상임대표, 허태곤 참여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해종언론에 내려진 5금 해제 △해종언론 낙인 행위 공개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용주사주지 은처 의혹 · 마곡사 금권선거 · 동국대 사태 등 관련자 징계를 통한 자정기능 회복 등을 조계종 총무원에 촉구하며, 총무원이 입장을 밝히지 않을 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조계종 “탄압 아냐… 취재거부 권리 있다”
조탄공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계획”

조영선 前민변 사무총장은 “1970년대 동아일보 광고탄압사건을 떠오르게 하는 일”이라며 “다음 주 중 두 언론사에 대한 조계종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조계종은 20일 홍보국장 효신 스님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나 소송을 통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 △종단은 취재를 거부할 수 있음 △소속 사찰 이외에 광고 게재를 방해하지 않음 △다수 교계 언론사의 취재에 협조함 등의 이유를 들어 언론탄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조계종은 “해당 매체가 국정원 결탁 및 정보거래 의혹과 지속적인 편파 왜곡 보도로 종단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승가를 비방하는 등의 유언비어를 양산하는 댓글을 방치하는 등 불교계 언론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마저 외면해 이뤄진 문제”라며 “근래에는 종단 수장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을 일삼는 등 언론을 넘어 정치 단체화하고 있음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또 “종단의 공공성을 감안하더라도 종단에 대한 악의적인 왜곡 및 편파 보도에 대해 최소한의 대응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그 대응이 해종언론 지정을 통한 취재 및 출입제한과 광고게재 거부로 자구적인 방안일 뿐”이라고 탄압 논란에 선을 그었다. 윤호섭 기자

조계종 포교대상 공모

7월 28일까지, 시상식 10월

조계종이 포교 일선에서 헌신한 스님과 재가불자를 치하하는 포교대상을 공모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7월 28일까지 전법포교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사찰 단체 후보자를 추천 받아 오는 10월 경 시상할 계획임을 6월 22일 공고했다.

포교대상은 종정상인 대상을 비롯해 총무원장상인 공로상, 포교원장상인 원력상 등으로 나눠 시상한다. 추천대상은 유아 및 어린이청소년, 대학생 등 계층포교 분야와 군 · 경찰 · 직장 등 직능포교, 미술 · 성보 · 건축 · 음악 · 학술 · 연예 등 문화체육포교분야, 환경 · 통일 · 장애인 · 복지 · 여성 등 사회포교, 방송 · 언론 · 출판 인쇄 등 매체포교, 신도교육 및 조직운영 등 지역포교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스님 또는 재가불자다.

후보자 공모는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 스님 및 종단 소속 포교 · 신도단체 대표 추천을 받아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서 양식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 노덕현 기자

의료,복지,전법 구현의 대표종단 한국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사)한국불교조계종 종단 통일가사 점안법회 봉행

한국불교조계종은 미래불교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종단개혁과 혁신으로 불교 콘텐츠 다양화를 통해 한국불교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한국불교조계종은 정법수행을 일으켜 세우고 법계일탈이 만연하여 해체된 승가공동체 구현과 대중공의와 종도주권의 실현을 위해 종단의 체질을 최근 새롭게 바꾸고 종단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해 종도들이 다함께 원융회통을 통해 종단 법인설립 이래 최초로 전통 점안의례 통일가사 점안을 봉행하여 한국불교조계종의 승려 의제를 통일하고 법계제도를 새롭게정착 조계종 정체성 확립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한국불교조계종은 전법의 혁신과 종무행정의 전문성 강화로 종단발전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여 분열과 갈등과 반목을 청산하고 소외된 종도가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창의적인 종무행정을 공평무사하게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불교조계종은 종도들이 환골탈퇴하는 개혁을 통해 기계를 닮아가는 메마른 사회의 풍토에 깨달음의 영혼을 불어넣고 있는 종풍쇄신 운동을 진작시키고 있습니다.제방의 대덕큰스님과 전국에 계신 종도님들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2017년 7월 1일

■ 입종서류 : 행장(이력서), 사진(반명함판) 1장, 사찰(내부, 외부) 사진, 주민등록등본
■ 모집기간 : 2017년 7월 1일부터 ~
■ 입종자격 : 종단통일가사 동참자 ※ 특혜 : (공덕 법계 인정)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원장 장운 운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81, 831호 두산위브파빌리온 TEL : 02)720-8270, 02)2198-5022~4 FAX : 02)720-8271 H.P : 010-5432-0108(총무원장 운산), 010-4167-3666(사무총장 도광)
Http://jogyejong.or.kr E-mail:jonggyo119@hanmail.net

한국불교조계종 종단관련 유관단체 · 사회복지법인 세계불교종단연맹복지재단 / Http://wbof.or.kr ·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연합회 / Http://kntga.or.kr · 사단법인 한국전통민족종교총연합회 / Http://kroa.or.kr · 종교세계신문사 / Http://jworldnews.com

불교 콘텐츠 개발, 이젠 '온라인 스타일'



[기획] 이젠 Z세대 포교다

① 왜 Z세대를 주목하는가

② 유튜브 속 불교 안보인다

③ Z세대 포교 콘텐츠 제언

소통·융합 콘텐츠 확보
사찰문화 변화도 시급
"젊은 스님이 Z포교 잘해
학인 때부터 노하우 전수"

불교의 미래를 담보할 Z세대를 포교하기 위해 불교계가 변화해야 할 지점은 어디일까. 불교 포교 일선에서 활동하는 불자들은 콘텐츠 개발과 교육, 설법 분야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일선 현장에서는 특히 불교 콘텐츠 확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김나영 정토TV 팀장은 "유튜브 속 불교 콘텐츠가 Z세대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시대와 소통 가능한 콘텐츠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튜브의 경우 오프라인과 달리 다수에게 공개돼 즉시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김 팀장은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은 카이스트 재학생의 자살을 계기로 시작됐다. 현재 Z세대의 키워드인 취업, 연애, 힐링 등 소통하는 주제로 법문을 해야 한다. 시대 주제를 잘 읽는 콘텐츠는 이러한 시야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다.

장재진 동명대 불교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불교 콘텐츠의 범주를 넓히는 작업이 지속돼야 함을 역설했다. 각 분야의 융합이 일어나는 현재, 유튜브 뿐만 아니라 최근 불교 카툰을 비롯해 애니메이션, 패션 진흥도 Z세대 포교의 한 방편이라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콘텐츠 분야는 영화, 음악, 출판, 신문, 방송, 광고, 애니메이션, 지식정보, 패션문화, 게임, 캐릭터, 만화 등 다양하다. 유튜브 속에는 이러한 콘텐츠가 다양하게 담긴다. 결국 각 분야에 있어서의 불교 융합이 Z세대 포교의 첩경"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콘텐츠 장르 마다 좋은 소재가 불교문화에 있다. 이를 잘 개발할 줄 아는 파워블로거, 웹투니스트, 불교예술가, 게임제작자들을 네트워킹 하고 육성해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불자 예술가 모임 핑크붓다의 조수연 대표도 "현재 불교는 그 형식을 추앙하며 쫓고 있다. 종교라는 무거운 주제로 대중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친숙하고 일상에서 접할 수 있도록 아티스트들의 분발이 요구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밖에 각 사찰별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청년회 등을 통해 이를 홍보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현재 조계사와 봉은사를 비롯해 불광사, 한마음선원 등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각종 법문과 행사를 업로드 하고 있다. 봉은사의 경우 신도 연등 조직의 자발적인 영상 촬영, 사찰 홈페이지 첫 화면에 유튜브 채널을 표기해 동영상에 익숙한 이들의 접근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한계는 있다. 2011년부터 사찰행사를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 조계사 인터넷 동영상 담당 이해진 사무관은 "현재 사찰행사나 법문 자체가 사찰 신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온라인상 맞지 않는 것이 많다. 요즘 영상은 대부분 이동을 하며 보기에 자막이 필수지만 한문 법어의 내용과, 상대적으로 긴 법문 등 편집이 많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사찰 법회와 법문도 온라인 환경을 고려해 변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8000여 명의 유튜브 정기구독자를 확보한 불교TV의 김경모 전략기획실 대리는 "방송사도 광고수익이 조금씩 생겨나고, 열성 구독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사찰 콘텐츠가 바뀌고 신도들이 이를 구독하게 되면 결국 사찰 수익으로도 이어진다. 영상은 4년 이상 투자해야 효과가 발생한다고 업계서 분석한다. 지속적인 불교계 관심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조계종 교육아사리 원영 스님은 승가교육부터의 변화를 강조했다. 원영 스님은 "가톨릭 신도들이 젊은 신부들이 스님들과 소통하는 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올린 것을 본 적이 있다. 결국 콘텐츠를 풍부하게 갖추기 위해서는 불교계 스님들이 변화해야 한다"며 "세대 간 차이는 어쩔 수 없기에 젊은 스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포교를 잘하는 스님들이 학인 스님 교육부터 포교 노하우를 전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유희좌 도상 고려 수월관음도 첫 발견

정우택 교수, 日조사 중 확인
유희좌 관음보살 도상 '최초'


유희좌를 취한 수월관음도.

한쪽 다리는 곧추 세우고 다른 한쪽 다리는 대좌 아래로 내린 유희좌를 취한 고려 수월관음도가 처음 발견됐다.

정우택 동국대 미술사학과 교수는 "동국대 개교111주년 기념사업회 후원의 일환으로 '일본지역 한국불교미술품의 조사연구'를 시행하던 중 기존 구도와는 다른 새로운 고려 수월관음도를 발견했다"고 6월 19일 밝혔다.

정 교수가 일본 요코하마의 개인 소장자를 통해 확인한 이 불화는 통례의 고려 수월관음도와는 전혀 다른 도상을 가졌다. 일반적으로 수월관음도는 오른쪽 측면을 향하고 반가한 자세로 바위 위에 앉아있지만, 새로 발견된 수월관음도는 얼굴과 상체가 정면을 화면을 향하고 왼발을 아래로 내려뜨린 유희좌를 취하고 있다.

화면 상부에는 세 구의 화불도 눈길을 끈다. 현존하는 40점 가까운 고려 수월관음도 가운데 이처럼 화불이 표현된 경우는 없었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금니선의 유연성이 부족하고 마염문이 두드러지고 있지만 채색 방법과 묘법 특히 형상에 이지러짐이 없이 매우 정확해 14세기 중반 이후로 추정된다"며 "색상이 부드럽고 깊이가 있다. 정병 등에서 일부 안료가 떨어져 나갔지만 전체적인 완성도는 고려 불화를 대표할 만하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제주4.3사건, 불교계 조명 나서야"

제주불교연합회, 제주4.3 진실규명 위한 세미나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으로 규정된 제주4.3사건과 관련, 제주불교의 피해를 재조명하고 이를 추념할 수 있는 기념사업을 전개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제주불교연합회(회장 관효)와 제주도의회 길상회(회장 김태석)는 6월 16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서 '제주불교 4.3 진실규명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 '4.3으로 상처난 제주불교의 영혼을 위로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세미나서 한금순 제주대 사학과 외래교수는 "불교계도 제주4.3을 기억하는 활동을 주도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먼저 제주4.3사건서 발생한 사찰 피해 현황을 짚었다. 그에 따르면 4.3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찰은 약 37개소. 법당과 요사채, 객사 등이 전소되거나 철거·파손됐다. 특히 불상과 탱화, 집기 등의 훼손이 심각해 4.3사건 이전의 장엄물은 소수만 남은 상태다. 또한 조사된 인명 피해는 14개 사찰 16명의 스님으로 총살·수장 등 반인륜적인 가해가 자행됐다.

한 교수는 "수장은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임의대로 처분하는 불법적인 일이었다. 이 때문에 수장 희생자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며 "근대 제주불교 활동을 주도한 승려들이 희생됨에 따라 도내 불교 활동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이 같은 제주4.3사건에 대한 추념사업이 불교계 차원서 진행돼야 함을 역설했다. 그는 "지금의 제주불교는 앞선 인물들의 노력과 희생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현 시대에 맞는 기억의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으로 활용되고 있는 4.3 유적지와 경제활동을 연계하는 사례를 추천한다. 제주불교가 사회의 현재와 역사 속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토론자로 나선 오승국 제주4.3평화재단 기념사업팀장은 "세월이 흐르면서 불교 4.3 유적은 중요성을 인식받지 못한 채 훼손돼 없어지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종단과 사찰 차원에서 1차 조사 작업에 나서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 역시 불교 4.3 유적지 기행코스를 만들어 테마기행을 활성화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제주불교가 겪은 4.3 피해에 대한 공식적인 목소리를 낸 자리로, 제주불교계가 관련 추념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발판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제주불교연합회는 7월 1일 오전 9시 '4.3피해 사찰순례 및 영가를 위한 헌다례'를 개최한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인용 결정 규탄"

종교환경회의, 6월 22일 성명

종교환경회의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인용 결정에 대한 규탄 성명을 6월 22일 발표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6월 15일 양양군이 제기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거부 취소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문화재청이 현상변경허가 거부 처분을 하면서 보존과 관리 측면에 편향되어, 문화향유권 등 활용적인 측면은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을 잘못했다"고 인용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종교환경회의는 "문화재보호법 제3조는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이 '원형유지'임을 명백히 규정한다. 이러한 법령을 준수한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잘못'이라고 규정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야말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적폐청산이라는 현 정부 방향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국립공원 지정 50주년을 맞이해 국립공원에 케이블카와 같은 편의시설이 설치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법에 명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아름 기자

대국민 소통 '이웃종교스테이' 모집

KCRP, 7월 28일부터 7대 교단 체험활동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는 '2017이웃종교스테이' 모집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6월 20일 시작했다.

이웃종교스테이는 전주·군산지역 순례·용문사·청주향교·영산성지·왜관수도원·영동선교·가리산천도교 수도원 등 전국 7개 교단 종교시설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펼치며 이웃종교를 이해하는 자리다.

2017이웃종교스테이는 7월 28일을 시작으로 1회당 2박3일, 총 3회로 진행된다. 신청은 홈페이지(harmony week.kr)를 통해 가능하다. 참가비 3만원.

김영주 KCRP 대표회장은 "이해와 화합, 종교 간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이웃종교스테이에 많은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어학단기반 모 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7년 6월 30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

일 주 문



해인사 여름수련회

향적 합천 해인사 주지 스님은 7월 19일 경내 일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인사 여름수련회'를 개최한다.



어린이 숲속마을 캠프

월우 해남 대흥사 주지 스님은 7월 21일 대흥사 일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름 어린이 숲속마을 캠프'를 개최한다.



수도권 삼사순례

효재 팔공산 구룡사 주지 스님은 7월 2일 서울 조계사 · 봉은사 · 화성 용주사 삼사순례를 실시한다.



진관사 보살계 수계법회

계호 서울 진관사 주지 스님은 7월 2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조계종 전계대화상 성우 스님을 수계사로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한다.



아시아연구協 컨퍼런스 다도

박동춘 (사)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은 6월 24~26일 고려대 엘지-포스코홀에서 열린 아시아연구협회 컨퍼런스서 한국 차문화를 소개했다.

"연등회 환희, 모두의 정성 덕분"

연등회보존위, 2017 연등회 참가단체 시상



올해 연등회를 환희의 도가니로 이끌었던 개인 및 참가단체의 공로를 치하하는 자리가 열렸다.

연등회보존위원회는 6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서 '2017 연등회 시상식'을 개최하고, 연등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개인과 단체에 표창패 등을 전달했다.〈사진〉

시상 부문은 △정진상 △보현상 △원력상 △특별상 △표창패 등으로 나뉘었으며, 한마음선원 합창단을 비롯한 30여 개인 · 단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자리서 연등회보존위원회 집행위원장 지현 스님(조계종 총무부장)은 치사에서 "행렬등이 단체 특성에 맞게 제작되고, 참가자들은 장엄등을 직접 만드는 등 아낌없는 열정이 곳곳에 담겼다. 시민과 외국인들의 깊은 감동과 호응에서 많은 걸 엿볼 수 있었다"며 "현재 연등회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참여단체 중심으로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한국은 제2의 고향 오불도 반환 당연한 일"

Interview

송광사 오불도 반환한 로버트 마리엘리 씨

도난 성보문화재 반환 '쾌모델'
"송광사 오불도, 여행 끝내고 자기 집 찾아가서 기쁠 따름"
30년 서울서 살며 문화재 수집
"옛 것 소중함 몰라 시작했다"

"한국은 제2의 고향입니다. 제가 수집했던 문화재가 도난문화재임을 알고 이것이 빨리 제자리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이제 송광사 오불도가 자기 집을 돌아가서 기쁠 따름입니다."

도난 성보인 '송광사 오불도'를 보관하다 반환한 로버트 마티엘리(92 · 사진) 씨는 6월 20일 기자간담회서 그간의 소회에 대하 이 같이 술회했다.

마티엘리 씨가 스스로 한국을 '제2의 고향'이라고 밝힌 것은 인생의 1/3을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 살았기 때문이다. 그가 미군 공예 · 미술품 관리 및 강사로 서울에 온 것은 1958년 7월이다. 미국으로 돌아간 1988년까지 약 30년을 그와 그의 가족은 한국에서 살았다.

"한국에서 부인 산드라를 만나서 서울시청에서 결혼했습니다. 아이들도 모두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컸습니다."

그가 살았던 집은 조계사 인근 벽돌집이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지금 같이 조계사 주변이 아름답지 않았다고 했다. 오랜만에 찾은 한국의 변화상에 놀라움을 감추지 않았다.

"한국에 다시 와 기쁩니다. 한국사회가 그동안 엄청난 발전을 이뤘다는 데 새삼 놀랐습니다."

종로에 살았던 마티엘리 씨는 자주 인사동을 찾아 한국의 전통 공예품을 수집했다. "투박하지만 손으로 제작한 공예품을 선호했다"는 마티엘리 씨는 1970년대 초 안국동의 한 가게에서 목가구 안에 구겨진 채로 있던 오불도를 발견했다. 구매를 위해 다시 찾았을 때 목가구는 팔리고 오불도만 남아있었다. 마티엘리 씨는 이를 구입해 보존처리 전문가를 통해 수리했고, 미국으로 돌아가서는 자택에 걸어 놓았다.

"나이가 들어 퇴직해 집을 좀 줄이려고 대형 문화재들은 박물관에 기증하려 했어요. 그런데 감정한 결과 도난 문화재라고 하더군요. 원래 도난품이었다는 것을 알고 당연히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문화재 수집'에 대해서도 철저한 철학을 가졌다. 문화재 수집도 근대화되면서 한국도 미국도 옛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데 실망했기 때문이다.

"저희 할아버지 시절은 미국의 근대화가 빠르게 진행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는 예전의 소중한 것들을 쉽게 버렸습니다. 1950년대 찾은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빠르게 근대화가 되면서 옛 것들을 소홀히 하는 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국 공예품을 수집한 것은 버려지는 옛 것을 보존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앞서 로버트 마티엘리 씨와 부인 산드라, 브라이언 페리소 포틀랜드 박물관장, 메리베스 그레이빌 포틀랜드 박물관 큐레이터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하고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자승 스님은 "도난 문화재라고 해도 돌려주겠다는 마음을 갖기 힘들다. 흔쾌히 마음을 내주셔서 감사하다. 도난 문화재 반환의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감사의 인사를 표했다.

한편, 송광사 성보박물관은 6월 24일 개막하는 특별전에서 송광사 오불도를 불조전에 봉안돼 있는 다른 불화들과 함께 선보였다. 이에 앞서 23일에는 마티엘리 씨 일행을 초청해 오불도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 관련 A9면〉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제32회 不二賞 김경래·유재환 수상

7월 5일 시상식, 상금 각 2000만원

제32회 불이상 수상자로 김경래 동국대 외래교수(연구)와 유재환 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 주임교수(실천)가 선정됐다.

여성재가불자모임 불이회(회장 홍라희)는 "제32회 불이상 수상자로 김경래 · 유재환 교수를 선정했다"고 6월 22일 밝혔다.

연구분야에 선정된 김경래 교수는 인도종교 및 초기 · 부파불교 전공자로 저명한 국제학술지에 지속적으로 연구논문을 게재, 국내외 학회 활동을 하며 연구성과를 인정받았다. 불이회 측은 "국내는 물론 해외 학계와의 교류 활성화를 통해 불교연구 세계화에 앞장서는 차세대 연구자로 장래가 촉망된다"고 평가했다.


김경래


유재환

실천분야 수상자인 유재환 교수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한 무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종단 구호 및 전국병원불자연합회 활동 등을 통해 불교의 가치를 널리 전파하며 포교에 공헌한 점이 인정됐다. 시상식은 7월 5일 개최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 2000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한편 불이상은 한국불교계 참신하고 훌륭한 불교인을 독려하고, 한국불교 중흥의 선구적 역군이 될 인재를 육성하고자 1985년 제정됐다. 연구분야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연구원 · 시간강사 · 연구교수 · 강의교수 ·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자격요건으로 제한해 유망학자 발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실천분야는 선행과 포교서 모범이 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한다. 올해 포함 총 92명의 수상자가 배출됐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33관음성지순례 조계사서 회향



33관음성지순례 내국인 순례단 27명이 조계사에서 마지막으로 회향했다. 33관음성지순례사업은 2008년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한국관광공사가 공동 개발한 문화관광상품으로, 한국의 '관음사찰' 33곳을 순례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순례단 참가자는 조계사기본교육(55학번) 수료자들로 지난 2013년 시작해 6월 17일 조계사를 마지막으로 순례를 회향했다. **박아름 기자**

동명불원, 어르신 추억 만들기



부산 동명불원(주지 화랑)이 지역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나들이 봉사에 동참했다.

동명불원은 6월 21일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 25여 명과 함께 거제도로 여행을 떠났다. 어르신들과 함께 동명불원 봉사자들은 거제도 양지암조각공원과 알로에테마파크를 관람하고 비누만들기 체험 등을 진행했다. **하성미 기자**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연수교육



대한불교응공조계종(종정 법운)은 6월 20~21일 대구 평산아카데미 연수원 본관 리더스홀에서 응공조계종 연수교육을 개최했다.

종정 법운 스님은 "수행의 기초는 '무엇인가를 해보겠다'는 마음이 행으로 실천될 때 가능하다"며 "오늘 동참한 종도 스님들은 스스로 깨달음의 주체가 되어 경계에 휘둘리지 말고, 환희가 넘치는 진리의 세계인 근본 자리를 용맹심으로 찾아야만 한다"고 당부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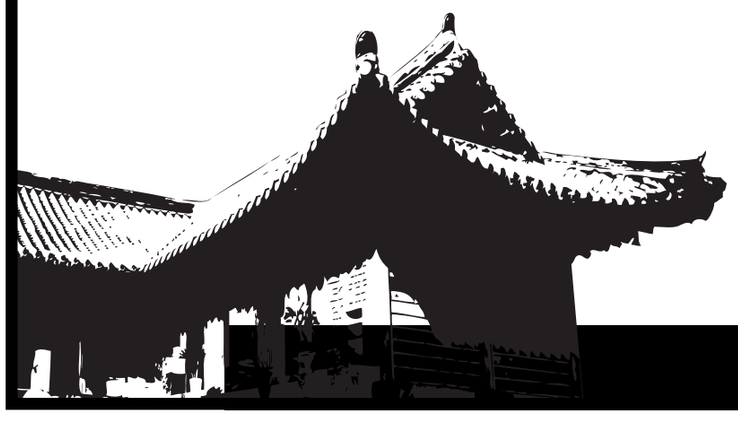
禪農敎團 우리불교 曹溪宗

종 정 홍 산 현 불

종 도 모 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3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도심포교인가? 개인 영리사업인가?

Fact Check Q&A
유사포교당 문제 고찰



단 석 달만 문을 여는 유사 포교당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포교당이란 간판을 내걸었지만 이곳에는 스님도, 법회도, 예불 의식도 없다. 자신을 법사라고 소개한 남성은 대중가요를 부르며 분위기를 띄우고 단돈 천원에 생필품을 나눠주며 노인들의 환심을 산다. 과도하게 친절한 이들의 목적은 포교가 아닌 바로 '현금'이었다. 불교 교리를 악용하여 고가의 위패와 불상, 심지어 상조상품까지 판매한 뒤 석 달 만에 자취를 감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

유사포교당이란?

일반적인 사찰이나 도심포교당과는 다른 성격으로 포교원(전법원)의 이름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세워진 일종의 사업장이다. 주택밀집지역 및 준상업지구 상가의 사무공간을 3~6개월 가량 단기 임대하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모객활동을 하여 생필품 등을 저가로 판매하거나, 선물 및 점심을 제공해 환심을 산 뒤, 사찰 위패나 불상 봉안을 판매하는 곳을 말한다.

유사포교당은 10년 전 경남에 위치한 K사찰의 스님이 불교용품 판매회사를 만들어 전국을 순회하며 물품홍보를 한 것이 시작이다. 당시 단기 차입한 홍보관에 모인 불자들이 임시로 조성한 불전함에 보시금을 내는 것을 보고 포교당을 차려 위패나 원불 등을 팔면 큰 수익이 발생될 것이란 홍보관 직원의 착안에 의해 유사포교당이 만들어 지게 됐다.

유사포교당은 어떻게 운영되나?

여러 형태가 있지만 대부분 유사포교당 측과 중간관리자(브로커), 사찰이나 포교당 측이 수익금을 다단계 형식으로 분배하는 방문판매 형태를 띄고 있다.

예전에는 유사포교당 측과 사찰 측이 직접 계약을 했다면 최근에는 세분화돼 개인인 중간관리자가 방문판매업을 신고하고 활동하는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중간관리자는 총장 단장 실장이란 직함을 가지고 사찰 위패나 원불봉안 의식을 진행해 줄 사찰을 물색해 계약을 주도한다. 일반적으로 중간관리자는 유사포교당으로부터 1건당 50% 수익금을 받아 사찰 봉안의식 비용으로 20% 가량을 지급한다. 가령 한 자가 도심에 위치한 A유사포교당에서 산중의 B사찰에 원불을 봉안하는 조건으로 100만원의 계약을 한다면, A유사포교당이 50만원을, 중간관리자가 30만원을, B사찰이 20만원의 수익을 얻는 구조다.

이런 다단계 판매로 인해 유사포교당의 영구위패 판매 가격은 1위당 120만원부터 150만원, 원불은 1위당 약 2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위 당 가격보다 가족 모두의 봉안을 권장해 대부분 판매 금액이 1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유사포교당 무엇이 문제인가?

가장 먼저 계약 이행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 먼저 직접 판매 방식이 아닌 다단계 판매이기에 소비자인 불자가 지불하는 금액에 비해 실제로 사찰에서 이행되는 일종의 서비스 품질이 낮을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사찰에 가기 힘들고, 물정에 어두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판매가 진행된다.

버스 등을 대절하거나 시내에서 무료 물품 등으로 모객 후 계약 유도하며, 가족 등의 환불 요구에도 불응한다. 도심 판매처인 유사포교당이 사라지고 나면 거리가 먼 지역의 사찰이 계약을 이행하는지 점검하기가 어려운 점을 이용해 봉안 등 계약을 미이행 하기도 한다. 최근 유사포교당의 판매 내역이 영구위패, 원불 등 확인이 가능한 유형물의 판매에서 비교적 계약 이행이 쉽고, 점검도 어려운 천도재 판매로 전환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심지어 원불, 위패 봉안의 경우도 계약 이행 책임을 피하기 위해 중간관리자가 사찰 측과 3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맺으며 앞선 계약을 파기하기도 한다.

문제 발생시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 가장 먼저 계약 해지 및 환불이 어렵다. 불자인 소비자가 위패 봉안 취소를 요구해도 주된 책임을 지는 중간관리자 및 유사포교당의 경우 3~6개월 뒤 판매 종료 후 사라진다. 남아 있는 사찰 측은 본 계약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지급받아 결국 불자와 사찰 측이 피해를 보게 된다.

유사포교당과 중간관리자는 불자가 할부로 결제한 경우 계약대금을 일시로 받기 위해 대부업체를 연계시키기도 한다. 이로 인해 지불 책임이 가족에게 전가된다.

이런 문제로 인해 많은 지자체들이 유사포교당을 단속하고 있지만 처벌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서울에서는 2016년 6월 성북경찰서가 단속에 나섰지만 판매 자체로는 범죄 성립이 되지 않아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성북경찰서 경제과 수사에서 판매 행위 자체로는 사기죄 성립이 되지 않았고, 결국 모객 행위에서 무료로 나눠준 소금이 유통기간이 지난 것을 들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조치됐다.

하지만 이러한 판매 행위가 '비불교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다단계 판매와 표준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각종 재의 특성상 고가 계약 체결이 많다. 여기에 판매 방식도 불교와는 관계가 없다. 또한 문제 발생 시 소비자인 불자와 사찰 측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

유사포교당 피해 사례는?

유사포교당으로 인한 문제는 현재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조계종 호법부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다양하다.

2015년 11월에는 경남의 사찰이 전남 목표에서 천도재를 판매하다 피해가 발생했다. 전남 목포에 거주하는 한 할머니는 경남 함양의 한 사찰 이름의 간판을 걸고 목포 시내에서 운영하는 유사포교당에서 원장 권유로 자녀들 몰래 천도재 계약을 맺었다. 이 할머니는 수년전 사망한 남편과 자신, 아들과 며느리, 손주 등 가족의 천도재 및 생전예수재 비용으로 총 2800만원을 제3금융기관을 통해 지불한다는 계약을 작성했다. 자녀들이 이를 알고 계약을 해지하려 했으나, 계약해지가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가정파탄까지 이르게 됐다. 이후 자녀들이 이 내용을 조계종 호법부에 신고하게 됐다.

2015년 10월에는 한 사찰 주지 스님이 종단 징계를 받기도 했다. 광주와 화순 지역에서 유사포교당을 운영하는 업자가 '사찰에 이익이 되는 수익 포교사업'이라고 소개하자 사찰 측이 이 업자와 영구위패와 원불모연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 업자가 판매한 위패 및 원불의 수익금을 주지 스님 개인 통장에 입금했고, 본사의 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드러났다. 지적에도 지속된 영업행위가 이뤄졌고, 피해가 발생하자 결국 화순경찰서가 조계종 호법부에 신고해 해당 사찰 주지 스님이 징계에 회부됐다.

유사포교당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조계종의 경우 유사포교당 근절을 위해 종단 사찰이 유사포교당과 계약을 하지 말 것과 현재 계약 관계에 있어서도 계약 해지를 할 것을 매년 지침으로 내리고 있다. 유사포교당과 계약하여 위패 및 원불 봉안을 하다 적발될 경우 승려법 제48조 1호 총무원 명령에 불응한 자, 승려법 제49조 4호 종법 및 종령을 위배한 자, 승려법 제49조 7호 총무원의 명령을 태만히 하여 이를 시행하지 않은 자에 해당하여 징계 회부를 조치하고 있다.

또 종무행정 지도감사에서 계약 사항을 감시하고, 지역사암연합회와 공동으로 유사포교당 근절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조계종 외 다양한 군소종단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응이 미비한 상황이다.

유사포교당 문제 해결방안은?

유사포교당 문제는 발생 원인을 고찰해 보면 해결 방안이 보인다.

발생원인을 보면 가장 먼저 고령의 불자들이 점점 산중 사찰을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범수 동국대 교수의 '불자 노령화에 따른 교단적 대안 모색'을 보면 2025년까지 불교신자의 고령화율은 36.3%에 이른다. 이는 통계청이 예상하는 일반 사회의 고령화율 29.4%보다 7%가 많다.

여기에 피해자 가족의 종교가 불교가 아니어서 상의하기도 어려운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갤럽이 2015년에 발간한 통계보고서 〈한국인의 종교-1984~2014〉에 따르면 자신의 종교와 부모의 종교가 일치하는 비율에서 불교는 부친 67%, 모친 82% 수준에 불과했다.

조계종 호법부 관계자는 "산중의 유명 사찰에 기도를 올리고 싶어도 본인이 직접 가기도 힘들고, 또 불자도 아닌 아들딸에게 같이 가자고 하기도 힘든 어르신들에게 관광버스를 대절해 하거나, 유명 사찰 명패를 달고 도심에서 재를 올릴 수 있다고 하면 많은 고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도심포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한국불교의 단면"이라며 "일반 대중들의 산중사찰 접근을 위한 도심포교당 개설 등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유사포교당 문제점

- 고가의 재 · 위패 봉안 가격
- 대부업체 연계해 가족에 수금
- 기존계약 파기, 책임 불분명
- '수익 사업' 사찰 유혹, 이미지 실추

유사포교당 문제 발생 과정

- 사찰 명의 떳다방식 포교당 개설
- 노인 대상 선물 무료로 배분
- 법회 없이 노래 등 유흥 전개
- 법문을 빙자, 위패 등 판매
- 3개월 뒤 포교당 폐쇄, 책임 모호

동국대 FCA 동양미래예측학 · 풍수지리(+관상) 최고위 과정 통합 공개강좌 7월 3일(월) 18시



주임교수 爽廈(석하) 소 재 학 박사

동양미래학자, 미래예측학박사 1호, 명리학자(공식전공 사주명리학박사 1호), 국제뇌교육대학원 명리미래예측전공 주임교수, 재)하원정미래학회 회장 / 서울신문 STV 고문,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Main biz) 자문위원, 한국 동양미래예측학회 회장, 미래융합인재아카데미(FCA) 원장, 기업 투자 경영자문, MBN 황금알, 부동산TV 풍수아 놀자, MBC, SBS외

성공과 실패의 시기 정확히 찰을 수 있는 동양미래예측하 '석하명리' 창시 및 10년 주기 인생 4계절 석하리듬 개발 보급 / 음양오행과 십간십이지, 사주명리학, 풍수지리, 주역 등 동양 역학의 미신적 요소를 벗겨 과학의 옷으로 갈아입히는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동 · 서양 미래학의 접목을 통해 동양 미래예측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

동국대 FCA 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제5기 모집
동국대 FCA 현대사주학 석하명리 최고지도자과정

때를 찾는 지혜, 불확실성의 시대, 동양의 미래예측학, 과학역학(易學), 현대 사주명리학 최종마스터 과정!!
왕초보부터 고수까지, 성공을 위한 필살기!! CEO, 관리자, 역학관심자, 미래학 관심자

- 정확한 성공과 실패의 시기, 자신만의 때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과정!! 기존 사주명리학 아무리 오랫동안 공부해도 정확한 성공과 실패의 시기를 찾을 수 없습니다.
- 원리를 알면 공부가 어렵지 않고 재미있습니다. 왕초보도 1년이면 충분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에게는 총정리하는 필살기, 왕초보자에게는 단기간에 나름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단기 속성과정입니다.
- 2학기 33주+ 완성, 등록금 430만원, 성공과 실패의 시기 찾을수 있는 능력 배양시까지 추가비용 없이 무료 반복 수강
- 일반 CEO 과정처럼 성공담 듣고 교양 높이고 인맥 쌓는 차원을 넘어 자신의 미래, 때를 찾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 근거 없는 비법들을 무조건 암기하기보다 음양오행, 십간십이지, 사주학 관련 모든 이론의 원리부터 공부합니다. (유투브 '논리로 푸는 사주명리학', 황금알 263회 속설 검증 참조) 사주학 관련 모든 이론의 원리공부를 통해 동양미래예측학으로서의 사주명리학, 논리로 푸는 사주학 '석하명리'를 마스터 하는 유일무이한 최고위과정입니다.
- 검증 가능한 작명법, 타고난 성격적성 분석법, 이유 없이 좋아 지고 싫어지는 시기와 콩깍지의 유효기간, 최상의 배우자를 만나는 시기 찾는 방법 마스터
- 1학기 15주 'FCA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 관련 교양, 수상학(손금), 주역(周易), 오행(五行) 건강법 및 선천 성격적성, 인생사계절 석하리듬 외 / 2학기 심화과정(현대사주석하명리 최고지도자 과정 제 2기) 별도 수강 가능 (목 18:00~21:30), 대표적인 동양미래예측학 논리로 푸는 사주학 '석하명리' 마스터, 수강자 조재학 교수 평생 사주 상담

1학기 수료시 : 동국대FCA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수료증 및 명리 진로적성상담사 2급 자격증(소정의 절차 후), 2학기 수료시 동국대FCA현대사주학 석하명리 최고지도자과정 수료증 및 명리진로 적성 상담사 1급 자격증 (소정의 절차 후), 통합 등록 후 월요일(동양미래예측학최고위과정), 목요일(현대사주석하명리최고지도자과정) 동시 수업 가능, 2학기 심화과정(현대사주석하명리최고지도자과정 제2기) 별도 수강 가능 (목 19:00~21:30)

공개강좌 : 7월 3일 18:00~21:30 동국대 덕암세미나실, **입학식** 7월 10일 17:30, **수업** 매주 월 19:00~21:30, **FCA사무국 02-3443-4984**

동국대 FCA 풍수지리(+관상) 최고지도자과정 제2기 모집

대한민국 풍수지리 최고의 스승, 최고의 교수진 직강.
대한민국 최고의 풍수지리(風水地理) 및 생활관상 전문가, 최고지도자 양성과정!!

〈주임교수 소재학 박사, 지도교수 최명우 박사, 정경연 박사, 담임교수 최병용 박사, 전임교수 노승우 박사, 세준 스님 직강〉

양택풍수, 음택풍수, 이기풍수, 형기풍수, 현공풍수, 삼합풍수, 비보풍수, 도시풍수, 부동산풍수, 인테리어 풍수, 기(氣) 풍수, 릴리안 투 풍수 등 풍수지리 종합 마스터 과정!! 좋은 자리 및 좋은 터 찾는 법, 좋은 잠자리, 좋은 책상자리, 생기(生氣)가 흐르는 좋은 곳과 살기(殺氣)가 흐르는 곳 찾는 방법, 생기를 끌어오고 살기를 피하는 법, 수맥 찾고수맥파 차단하는 법, 엘로드 사용법의 허와 실, 제대로 된 엘로드 사용법, 복 부르는 관상, 돈 되는 관상, 관상 궁합, 성형관상, 사업 관상, 2학기 33주+과정, 등록금 390만원, 풍수지리 및 관상 왕초보부터 전문가까지, CEO, 관리자, 부동산 관계자, 풍수지리 관계자 외 수강자 실비 풍수감정 및 소재학 교수 평생 사주 상담.

공개강좌 : 7월 3일 18:00~21:30 동국대 덕암세미나실, **입학식** 7월 10일 17:30, **정기 수업** 매주 월 18:00~21:30, **FCA사무국 02-3443-4984**

불광미디어, 〈콘텐츠 선별제공 매체〉 Curation media '첫 발'

6월 19일 홈페이지 개편
콘텐츠 중심 새롭게 구성

영상 · 카드뉴스 강화
해외불교 소식도



불광미디어 홈페이지. 뉴스와 팟케스트, 출판서적까지 한눈에 볼 수 있다.

지난해 주식회사로 법인 전환한 불광미디어가 큐레이션 미디어(Curation media)로 발돋움하기 위해 콘텐츠 중심 정보 제공에 박차를 가한다. 하루 230개의 국회도서관이 생겨날 정도로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에서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다.

(주)불광미디어(대표 류지호)는 지난해 말부터 약 6개월에 걸쳐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실시, 6월 19일자로 새 홈페이지를 오픈했다. 이번 개편은 사장돼가는 종이매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독자들의 기호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보제공을 하기 위해 기획됐다.

불광미디어가 추구하는 정체성은 큐레이션 미디어다. 쉴 틈 없이 생성되는 다양한 정보 속에서 독자들이 원하는 것을 골라 선별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불광미디어는 〈월간불광〉이 지난 43년간 축적해온 2만여 건의 기사와 사진 등 콘텐츠를 디지털 아카이브화하고, 새로 제작되는 팟캐스트와 동영상 · 카드뉴스 · 해외불교 뉴스 등 기존에 다루지 않은 콘텐츠를 강화했다. 콘텐츠 구성 역시 사실 · 행사 · 단순 보도가 아닌 전문화된 안목으로 불교의 시대적 사명을 분석하고, 흐름과 맥락을 중시할 계획이다.

개편된 홈페이지 메뉴는 크게 △뉴스 △책이야기 △블로그 △팟캐스트 △월간불광 △불광출판 △원더박스 등으로 구성됐다. 뉴스는 사건보도가 아닌 이슈 · 인물 · 문화 · 트렌드 등으로 나뉜다. 또한 '화제의 책과 분류별 책 콘텐츠' '오피니언 · 칼럼' 등이 하위메뉴로 포함된다. 특히 영어 · 중국어 페이지를 통해 책 소개를 하는 등 콘텐츠 수출과 국제적 홍보에도 주력할 방침이어서 눈길을 끈다.

불광미디어는 홈페이지 개편과 함께 소셜미디어를 통한 콘텐츠 유통에도 나선다. 지난해 말 조직개편을 통해 마케팅부서를 전략기획실로 확대 개편하고,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등 팔로워 확대를 추진해왔다. 현재 페이스북 팔로워는 1만1000여 명이며, 기타 소셜미디어도 1만여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도 '저자와의 대화' 등 소셜미디어에 라이브방송을 송출하며 새로운 시도에 나선다.

유권준 전략기획실장은 "교단 · 사찰 · 스님에서 경전 · 가르침 중심으로, 텍스트 위주에서 사진과 그래픽 · 영상 위주로 콘텐츠 변화에 나선다"면서 "수많은 정보를 어떻게 덜어낼 것인가가 관건이다. 불교에 국한하지 않고 융합미디어로 성장하겠다"고 기획 배경을 밝혔다.

불광미디어의 이 같은 변화는 출판업계가 겪는 현실적 고민과 맞닿는다. 종이책을 통한 독서량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고, 홍보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게다가 종교서적 출판업계는 일반출판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처했다.

류지호 대표는 "법인 전환 이후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에서 변화가 시작됐다. 지금의 변화가 당장 수익으로 연결되지는 않겠지만 가만히 앉아 고사되길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며 "현대의 출판 · 잡지가 지향해야할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움직임이다. 방향성이 정해진 만큼 기술적 습득을 통해 내실을 다지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재가자자 맞춤 여름불교대학 '인기'

남원 실상사, 여름학림 개최

무더운 여름, 휴가 기간에 맞춰 재가자들을 위한 사찰 불교대학에서 정진해 보는 것은 어떨까.

남원 실상사(주지 응묵)는 1차 7월 26~30일, 2차 8월 2~6일 경내에서 '재가불자 여름학림'을 연다.

2008년 처음 시작된 재가불자 여름학림은 올해로 10년차를 맞이했다. 시간이 부족해 1~2년 과정 참여가 힘든 재가자들을 위해 도입된 실상사 여름학림은 템플스테이 형식에서 벗어나 4박 5일간 집중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번 1차 여름학림에서는 초기불전연구원 지도법사 각묵 스님이 강사로 나서 〈청정도론〉에 나타난 들숨과 날숨에 대한 마음챙김에 대한 이론 및 좌선 수행을 지도한다.

2차 여름학림에서는 前불교중앙박물관장 흥선 스님이 '그림으로 읽는 불교문화 이야기'를 통해 사찰 탱화와 벽화 등에 숨겨져 있는 다양한 불교설화를 전한다.

실상사 주지 응묵 스님은 "일반적인 템플스테이와 달리 4박5일간 스님들과 공부하며 토론과 수행을 병행해 만족도 높다"고 설명했다. (063)636-3031

노덕현 기자

"사명대사 호국 원력, 이어 가겠다"

20차 전국만일염불회 염불정진대회, 밀양 표충사서


통도사서 진행된 19차 염불정진대회.

불교계 대표 염불정진 수행모임인 '전국염불만일회'(회장 안동일)가 20차 염불정진대회를 밀양 표충사에서 개최한다.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2박 3일간 열리는 이번 염불정진대회에는 250여 명의 염불행자들이 참여한다.

1998년 결성된 전국염불만일회는 금강산 건봉사에서의 첫 염불정진대회를 시작으로 천봉산 대원사, 설악산 백담사, 달마산 미황사, 팔공산 은해사, 한라산 법화사, 덕숭산 수덕사, 토함산 불국사, 백담사 만해마을, 여엽산 연화사, 오대산 월정사, 치악산 구룡사와 자연학습원, 금오산 향천사 양산 통도사에서 정진대회를 연 바 있다.

전국염불만일회 측은 "염불만일결사는 불교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남녀노소, 신앙의 경력, 지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는 차별 없는 불교인들의 만남의 장"이라고 강조하며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전국만일염불회는 6월 24~25일 서울 동산불교회관 3층 법당에서 나무아미타불 6900일 철야정진을 진행했다.

노덕현 기자

금강경 일만회 독송
업장소멸기도 봉행

순천 송광사 서울분원 법련사(주지 진경)는 6월 24일부터 100일간 금강경 일만회 독송 업장소멸기도 집중기간으로 선포하고, 기도를 진행한다.

법련사는 5월 26일 금강경 일만회 독송에 입재한 바 있다. 독송은 하루 3독을 기본으로, 매일 지참한 경전에 확인 도장을 날인해 입재 후 100일마다 수행을 점검한다.

주지 진경 스님은 "금강경 독송은 스스로와의 약속"이라며 "불자 개개인의 근기에 따라 독송 횟수를 설정하고 만독의 원력을 세워 원만 성취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포교단체도 포살 동참한다

6월 28일 공식 포살예문 배포, 첫 법회 예정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이 6월 28일 포교원 산하 단체 실무자들과 포살법회를 연다. 조계종 포교원은 신행혁신운동 차원에서 이날 포살법회를 봉행하게 됐다. 전법과 포교에 나서는 종무원과 불자들부터 스스로 부처님 앞에서 참회하고 원력을 새롭게 세우자는 취지다.

특히 이번 포살법회에서는 오계를 중심으로 포교신행단체 종사자들이 실천해야 할 덕목을 담은 '포살예문'이 배포된다.

조계종 포교원은 5월 23일 서울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보현실에서 포교원 산하단체와 월례법회를 열고 포살법회 형식으로 미리 진행한 바 있으며 이후 포살예문 제작을 시작했다. 포교원 측은 이번에 시작되는 포살법회는 향후 포교사단 포살법회 등으로 확장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포살예문은 예경삼보, 헌향계, 개경게 등으로 구성된 '포살의례'와 참회의 내용을 담은 '바라제목차'를 설하는 '포살서문', 대중의 계를 지킬 것을 당부하는 '설계', 원력을 다지는 '포살회향' 등으로 구성됐다.

'설계'의 계목은 총 18가지로 처음 5가지는 오계를, 그 다음 11가지는 신행청규의 덕목을 담았다. 마지막 2가지는 포교단체 종사자들이 지켜야 하는 마음자세로 '한국불교의 미래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음을 자각하고 원력 정진하라. 이것이 사부대중의 계이니, 신명이 다하도록 지킬지니라.' '진리의 공동체인 대한불교조계종 구성원으로서 항상 화합하고 협력하여 불사를 성취하라. 이것이 사부대중의 계이니, 신명이 다하도록 지킬지니라.' 등이다.

지홍 스님은 "불교 입문자들이 기복으로 신행을 시작해도 결국 수행과 전법의 삶으로 회향하게 되어 있다. 포교 일선에서 일하는 많은 불자들이 이러한 상황을 알고, 함께 정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수용자 교화에 전심전력 다할 것"

교정교화전법단 창립 6주년 맞아

사회와 격리된 교정기관에서 재소자 교화에 나서고 있는 조계종 교정교화전법단(단장 혜원)이 창립 6주년을 맞았다. 교정교화전법단은 6월 17일 서울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3층 문수실에서 기념법회와 지원단 정기연수를 열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포교원 포교부장 가섭 스님, 단장 혜원 스님과 전법단 및 지원단에서 활동하는 사부대중 60여 명이 참석했다.

교정교화전법단은 현재 지도법사 스님 31명과 재가불자들로 이뤄진 지원단 50명이 활동 중이다.

이날 법회에서는 그동안 활발히 활동해온 사무국장 지일 스님과 4월까지 지원단장으로 활동하며 법요집 발간과 포교사 교재 기획, 관계단체 협력에 기여한 조철주 전문포교사와 박정숙 지원단前부단장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또 신임 전법지원단 임원인 강민구 전법지원단장, 어윤식 수석부단장, 진영순, 권영수 부단장, 박종선 사무과장, 이영애 홍보과장, 남현정 기획과장, 최홍자 지원과장이 임명장을 받았다.

전법단장 혜원 스님은 "한국불교는 소외된 많은 이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한다. 교정교화전법단은 어려운 환경에서 불심을 잃지 않은 재소자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소중한 활동"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 ~ 6개월(주1회 특별수련)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


관장 : 이준혁

※ 지면은 쥐 · 원숭이 · 용띠 기준 ※

개운원판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세요

12신살을 이용한 방위개운법 붉은색이 정북입니다

사용법을 모르시는 분은 1회 전화 및 방문하시면 상담 하여드립니다.

• 가액 : 20만원

특허번호 4-2013-035176-1
특수재질 PC

NAVER 귀장술 원판 귀장술 수강생 모집 검색

수강생 모집
초보자도 교육가능 합니다.

※ 원판을 임의로 복사하거나 제작 배포할 시에는 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故 박일우 선생님 영전에 바칩니다

문 의 : 010-8558-2345 / 02)2273-8557 계좌번호 : 신한 110-371-828252 (예금주 : 이민희)
주 소 : 서울 강동구 천호동 406-9 금강빌딩 B-105호 (5호선, 8호선 천호역 3번출구)

개방적 생명정신, 萬物 사랑으로 연결

대한불교진흥원 화요열린강좌… '퇴계 정신을 말하다'

김기현 전북대 명예교수

불교에서는 이 세계를 '인드라망'으로 표현한다. 모든 존재가 하나의 그물로 얽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사소한 행위 하나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일련에 벌어지는 사건사고 소식은 '주의'를 무색하게 한다. 무엇이 문제일까. 김기현 전북대 명예교수는 6월 20일 대한불교진흥원 화요열린강좌서 '퇴계 정신'을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퇴계의 사상 중 '개방적 생명정신'을 강조하며 "잠재적인 도덕정신을 일깨우기 위해 끊임없이 수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리=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김기현 명예교수는… 서울대 법과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대학원에서 동양철학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 방문교수(1995~1996), 전북대 대학원장(2010~2012), 전북대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동 대학 명예교수로 있다. 주요 저서로 〈조선유학의 학파들〉 〈선비〉 〈선비의 수양학〉 등이 있고, 〈주자서절요를 통해 본 퇴계의 학문정신〉 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직함은 나의 본질이 아니다

강연 요청을 받고, 퇴계의 사상을 어느 방향으로 풀어 나가야할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퇴계에 대한 얘기는 그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극히 일부분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제는 바로 '퇴계의 자아의식과 삶의 정신'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떤 삶을 살든 이 질문을 던지는 데서 삶이 시작됩니다. 나 자신을 향해 던지는 질문이죠. 모든 분들이 자신의 문제로 고민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라면 "나 김기현이오"라고 답하겠죠. 그런데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받은 이름이 날 알려주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명함에 찍힌 직함이나 신분, 어느 소속집단의 일원 등은 나의 정체성을 밝혀주거나 본질을 드러내주지 않습니다.

퇴직자의 경우 '갑자기 쉽게 늙는다' 고들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분은 여태껏 자신의 존재를 어느 조직의 일원으로 자각해왔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 자각이 어느 순간 끊어져버리니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마주하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자칫 허무나 존재의 상실감에 빠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존재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부장' '과장' 등 직함은 사물에 불과합니다. 영어로는 'it'이라고 표현하죠. 나의 존재를 표명하고 정체성을 확인하는데 사물을 들이대는 건 스스로를 사물화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인류가 영원히 풀 수 없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자신을 알라' 고 했고, 부처 · 공자 · 예수 등 모든 성인들이 통찰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성인들의 답변으로 쉽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인간관계와 사회생활 속에서 형성돼온 모든 나의 모습, 불교에서 말하는 아상(我相)을 지워야 합니다. '선생' '학생' '남편' '부인' '사장' 등 나라고 생각해왔던 것들을 지워보세요. 그러면 마지막에 뭐가 남을까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겁니다. 불교의 공의 세계로 진입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쯤되면 그저 '내가 존재한다'는 것 말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사유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신비감 속에서 존재의 근원을 묻게 됩니다. 광활한 우주 속에 내가 존재하고,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이러한 형이상학적 물음은 나뿐만이 아니라 만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개 한 마리, 풀 한 포기까지도 말이죠.

퇴계 역시 이와 비슷한 사유를 했습니다. 벼슬생활을 통한 각종 직함이 덧없는 것임을 뼈저리게 느끼죠. 마치 이를 허공 속 연기 같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명예를 '파리 떼'에 비유했는데요. 파리 떼는 먹을 것이 없으면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퇴계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이름을 지워버리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이름이라는 것은 나의 존재를 왜곡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표현을 싫어하는 이유는 스스로 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즉 이 표현이 나의 존재를 왜곡시킨다고 느끼는 겁니다. 퇴계는 이런 언어표현의 폭력성까지도 인지했습니다.

만물의 존재근원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존재근원을 절대자라고 한다면, 그는 절대자를 닮아 살려고 할 겁니다. 이와 달리 생명의 기원을 원시 유기물에서 찾았던 다윈에 따르면 진화된 원숭이밖에 안 되겠죠.

퇴계는 존재근원을 하늘에서 찾았습니다. 하늘의 소명이요. 오늘날 아스팔트 위에서 살아가면서 체감하긴 어렵겠죠. 산속에 들어가 옛 방식으로 산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퇴계는 땅이 부응하고 계절의 변화가 느껴지는 신비함 등 자연의 섭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만물은 이런 하늘의 소명을 타고났다고 여겼습니다.

'월인천강지곡'이 이를 잘 설명해주는 표현입니다. '달이 1천개의 강에 도장처럼 찍혔다'는 뜻이죠. 즉 강의 크기에 따라, 물결에 따라 달 모양이 달라지고 이는 만물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존재근원인 하늘을 만물이 제각각의 형식 속에서 다양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 천차만별의 특성을 갖게 됩니다.

참자아 실천해야 하는 이유

퇴계에 의하면 인간은 하늘의 소명을 경건히 읽어 참자아를 실천해야 합니다. 여기서 자아와 참자아는 구별되는데요. 자아계발 등과 같은 세속적인 자아와 하늘로부터 타고난 참자아를 의미합니다.

사회서 얻은 다양한 이름
자신의 정체성 되지 못해
미물까지 확장한 利他정신
끊임없는 수양으로 가꿔야

맹자는 벼슬에 천작(天爵)과 인작(人爵)이 있다고 했습니다. 장관 같이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벼슬은 덧없는 것이고, 하늘이 내린 사랑과 의로움 같은 천작은 인간 고유의 본질이어서 주거나 빼앗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퇴계는 세속이 만들어낸 비본래적 자아의 모습에 거부감을 갖게 됩니다. 하늘의 소명과 거리가 멀기 때문인데요. 어쩌면 하늘이 준 벼슬을 버리고 사람이 준 벼슬만을 추구하는 건 사람 되기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목금수와 달리 인간이 고유하게 타고나는 소명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참자아는 또 무엇일까요. 생명론적 관점에서 초목금수는 자연으로부터 타고났지만 생명을 자기 안에 가둬 폐쇄적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물론 동물은 새끼를 낳고, 무리와 살며 조금 열려 있다곤 하지만 부분적입니다. 이에 반해 인간은 자연의 생명정신을 개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났습니다. 바로 이타(利他) 정신입니다. 자식뿐만 아니라 인류 모두에게, 나아가 미물에 대해서까지도 가질 수 있는게 이타 정신입니다.

인간의 개방적 생명정신은 도덕정신의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몇몇 사소한 예절이나 윤리규범을 두고 한 말이 아닙니다. 퇴계가 생각한 도덕은 만물을 위해 나의 온 존재를 기울이려는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도덕성은 이러한 정신능력을 타고났음을 표명하는 겁니다.

중국 북송의 유학자인 주렴계가 자신의 제자가 찾아왔을 때 일입니다. 정원에 풀이 가득한 모습을 보고 제자가 "왜 베지 않으시느냐"고 물으니 주렴계는 "그것도 나와 생명을 같이 했다"고 답했습니다. 퇴계는 여기에 사랑의 본질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제가 대학교수로서 강의를 들어갔을 때도 주렴계의 일화를 활용한 적이 있습니다. 캠퍼스 정원을 가꾸시는 분들이 예초기를 돌리며 풀을 다 베어놨을 때인데요. 강의에 들어가자마자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풀냄새가 어떤지 말이죠. 그러자 한 학생이 대뜸 "싱겁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학생에게 "혹시 풀 피비린내라고 생각해본 적은 없느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 학생은 입을 닫더니 기말시험을 볼 때 답안지 말미에 "자신은 그때의 충격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바로 이런 풀 한포기에 대한 마음, 사랑입니다.

어느 날 동료교수와 산책을 나가는데 그가 보도블럭 위에 먼지에 뒤덮인 지렁이를 집어 촉촉한 풀숲으로 옮겨줬습니다. 이것도 역시 사랑입니다. 보는 순간 자신도 먼지에 쌓인 듯한 생명의 위기감을 느꼈을 겁니다.

맹자는 만물이 나의 존재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내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아마 불교에서 말하는 인드라망과 같은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퇴계는 모든 존재가 우주적 존재라고 생각했고, 이것이 나로 하여금 도덕적 요구를 일어나게 한다고 봤습니다. 결국 만물이 내 안에 갖춰져 있고, 그에게서 나도 같은 것을 느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일상생활 속에서 이기심에 의해 무뎌질 수 있는데 그렇다고 아주 없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퇴계는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생명정신의 개폐여부가 사람됨의 차이를 결정합니다. 성선(性善)의 의미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나의 생명을 내어 남을 보듬어 안고, 보살펴주는 사랑 정신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기 때문에 훌륭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선설은 인간이 이런 심성을 천부적으로 타고났다고 보는 것이죠.

나만을 위해 사는 건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이걸 악이라고 합니다. 악은 자폐적인 생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입니다. 혹자는 이런 질문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에 따르면 인간은 이기적 유전자를 타고난 게 아니냐고 말이죠. 그런데 어느 책에 따르면 어느 서양학자가 도킨스에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자 도킨스는 "책을 쓰고 난 뒤 생각을 바꿨다. 인간은 이기적 유전자가 아닌 협력적 유전자를 타고났다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서로 도우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한 것이죠.

도덕정신은 잠재적인 것이고, 사람들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남을 향해 개방하느냐, 나를 위해 폐쇄하느냐는 전적으로 개인 몫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되어가는 존재'이니까요. 처음부터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됨'이라는 표현은 끊임없이 되어가는 존재라는 걸 말합니다. 퇴계가 수양의 노력을 그토록 중시한 까닭이기도 하죠.

오늘날 우리는 '소유하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유에서 자기 존재를 찾는 것이죠. 이런 잘못된 인간관을 수양을 통해 가꿔 나가야 합니다. 단순히 좌선하듯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밥 먹고 출근하고 일상생활 모든 자리가 수양의 도량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됨은 바로 거기에서, 나와 남과의 관계 속에서 태어납니다.

제 96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7년 6월 30일 오후 5시
◆ 강의일시 :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과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www.dongsanbud.net

불전부·아함부·반야부·법화부·화엄부·정토부
붓다의 가르침
범본 한글 옮김 근본육부 경전정선
동산불교대학 · 동산불교대학원에서는 오는 7월 11일 (화) 부터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와 서강대학교 종교학과에서 불교 원전을 중심으로 불교사상을 강의했으며, 팔리어를 중심으로 하는 원전 번역과 학술적 연구에 매진하며 활발한 저술활동에 힘쓰고 있는 최봉수 교수를 모시고 오는 7월 출판예정인 〈범본 한글 옮김 근본 육부 경전 정선 "붓다의 가르침"〉을 교재로 하여 경전 강독 법회를 엽니다.
불전부 · 아함부 · 반야부 · 법화부 · 화엄부 · 정토부의 순서로 진행될 육부 경전 정선본은 병고 고익진 교수님께서 정선하시고 최봉수 교수님이 번역했다. 이 정선본의 강독은 매년 32강씩 6년에 걸쳐 이어질 계획이니, 많은 불자들이 "붓다의 가르침"을 따라 걸으며 부처님과 호흡을 함께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 개강 : 2017년 7월 11일 (화) 오후 7시
● 제1강 – 오후 7시 ● 제2강 – 오후 8시 20분
■ 장소 : 동산불교회관 2층 교육관
■ 내용 : 제 1부 불전부(부처님 생애편) 32강
① 2017년 7월, 8월 (16강) : 수행본생, 강탄출가
② 2018년 1월, 2월 (16강) : 수행성불, 교화열반
제 2부 아함부(2년차-32강) : 십이처·십업설법문 등 사대법문
제 3부 반야부(3년차-32강) : 금강경, 팔천송 초품-강가품-비품, 반야심경
제 4부 법화부(4년차-32강) : 법화경 서품, 방편품, 비유품, 수기품
제 5부 화엄부(5년차-32강) : 서분초지, 아함오지, 반야이지, 법화이지
제 6부 정토부(6년차-32강) : 극락장엄경 소본일사, 광본삼사
■ 강의 : 최봉수 교수
■ 문의 : 02-732-1206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반야회
동산불교대학·대학원
사무처 : (우)03150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1 동산불교회관
TEL 02)732-1206~8, FAX 02)732-1207 www.dongsanbud.net

왕생에도 등급이 있나요



강소연 교수의 불화 속 스토리텔링

④ 위데휘 부인 극락 체험기 ㊦



상품상생인의 모습, 세세생생의 선업으로 보살이 되어 왕생하였다. '극락구품도'의 부분, 1841년, 비단에 채색, 동화사 소장.

참~ 진짜 같지요. 불교에서 말하는 가상의 세계, 임시의 세계, 그래서 거짓이라는 세계. 내가 진짜라고 굳게 믿는 이 세계는 불교에서는 가상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진실한 세계는 무엇일까요. 〈관무량수경〉은 고통 속의 위데휘 부인에게 부처님께서 몸소 극락의 세계를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그 도입부를 보면, 부처님께서는 진실한 세계를 바로 볼 줄 모르는 범부를 위해 이를 비유해서 설하였다고 합니다. 위데휘 부인은 어느 왕국의 여왕으로, 한 순간에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던 가치를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들과 남편, 가정과 지위가 순식간에 파탄 나고 또 목숨까지 위협받게 됩니다. 그녀가 어떻게 진실된 세계를 보아 이를 헤쳐 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러한 고통을 모두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이에 부처님은 부인에게 현재에 '마음'을 집중하라고 이릅니다. 그리고 먼저 '지는 해'를 관(觀)하면서 극락의 물, 땅, 나무, 누각, 연못의 순서로 장엄한 세계로 이끌고 들어갑니다. 속계에서 법계로, 번뇌의 세계에서 본질의 세계로, 갇힌 자아에서 광활한 바다로 노출됩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관해서 들어가다가 드디어 본체와 계합하는 (부처님의) 진신관(眞身觀)에서 내용은 절정을 이룹니다. 이렇게 총 16관법 중 13관법까지가 실제로 여여한 진여(眞如)의 세계에 눈뜨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경전의 마지막 부분인 14관, 15관, 16관은 다른 내용으로 구성되는데 그 제목을 보면 상배관(上輩觀), 중배관(中輩觀), 하배관(下輩觀)입니다.



중품의 연못에 왕생한 모습.

중생 '근기' 따라 왕생

중생들은 각자의 근기(根機)가 천차만별인데 그 근기의 높고 낮음에 따라 상·중·하로 나뉘어 크게 세 개의 연못에 무리지어 왕생합니다. 중생들은 상품(上品)·중품(中品)·하품(下品)으로 구분지어지고 각 3품 속에서 상·중·하로 다시 나뉩니다. 그러니까 상품에는 상품 상생(上生), 상품 중생(中生), 상품 하생(下生)이 있고, 중품에도 상중하, 하품에도 상중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9품입니다. 극락에 있는 왕생(往生)의 연못을 보통 '구품 연못'이라고 하는 데에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구품'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조선후기 극락 그림은 '극락구품도'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불교는 모든 존재의 평등을 말하고 어떤 차별도 없는 무차별의 세계를 말합니다. 헌데, 어찌 중생을 이렇게 9등급으로 나누어 차별한단 말입니까. 극락에 왕생을 해도 이미 차별화된 연못에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차별의 기준이 되는 '근기'가 무엇인지 보도록 합시다. 불교에서는 중생을 어떤 세속적 가치로도 평가하지 않습니다. 출신 배경, 돈, 학벌, 외모, 직위 등 모두 허망한 잣대일 뿐입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기준은 고수하는 데 그것이 '근기'입니다. '근기'란 중생이 태생적으로 전생에서부터 지어서 가지고 나온 근본 바탕을 말합니다. 즉, 본성을 나무의 뿌리(根)에 비유하고 그것의 작용을 기(機)라고 합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교화될 수 있는 능력, 또는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다만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즉 '수행을 할 근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나아가 '수행을 어느 수준까지 진전시킬 수 있느냐'라는 기준입니다. 아무리 지체 높은 사람이라도 수행하지 않으면 하품이고, 비록 사회적 지위가 낮더라도 그가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상품입니다. 근기는 종교인이냐 아니냐는 상관없습니다. 법복을 입었건 안 입었건, 불교 공부를 했건 안했건, '스스로를 자각하는 힘의 척도'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이렇게 근기를 따지는 것은, 물론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 교화 방편을 베풀기 위함입니다.

중생이 가진 根機는 '천차만별'
9품 근기로 나눠 무리져 왕생
지성심·심심·회향발원심 갖춰야
최고 근기 '상품상생인' 이르러

티끌의 불씨, 만개 횃불 밝힌다

모든 존재는 본질적으로 무상하며 공(空)이라는 하나의 진리를 공유하지만, 유위법(有爲法) 속에서 짓는 업(業)은 각자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업행이란 것에는 '인과응보'라는 철칙이 따릅니다. 선업(善業)에도 다양한 역량과 종류가 있어, 그것의 과보로서의 내용들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느 근기에 해당하는가. 과연 어느 왕생의 연못에 태어나는가. 가장 최고의 근기인 상품상생(上品上生)을 보도록 합시다. 상품의 연못은 보통 화폭의 정중앙에 위치합니다. 상품 중에서도 특히 상품상생인은 눈에 띄게 그려졌습니다. 커다란 홍련위에 천의를 입고 보관 장엄을 하고 나타납니다. 보통 보살의 모습을 이미 갖추고 있고 광배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미타부처님이 바로 앞에 몸소 나투어 정면에서 맞이합니다. 경전에는 '삼종심(三種心)을 갖추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정토의 세계가 열린다'고 합니다. 상품상생인이 되기 위한 전제조건은 삼종심(세 가지 마음의 씨앗)을 갖추는 것입니다. 첫째가 지성심(至誠心: 정성을 다 하는 마음), 둘째가 심심(深心: 깊게 믿는 마음), 셋째가 회향발원심(回向發願心:모든 선업을 회향 발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전생에 지은 많은 업들은 어디 가지 않고, 자신의 업식(業識)으로 남은 채 그대로 저장됩니다. 자신이 지은 업의 성향과 모습대로 우리는 다시 윤회하게 됩니다. 생전에 '수행의 업'을 얼마나 지었느냐에 따라 '근기'의 높고 낮음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극락 또는 깨달음의 체험에 있어 규모와 시간 등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물론 근기에 따라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행 기간도 다릅니다. 상품상생인은 무생법인(無生法忍)의 궁극적 진리를 깨달아 부처님 세계에 확고부동하게 안주합니다. 반면, 상품하생(下生)인은 잠시 아미타불을 친견하지만, 활짝 폈던 연꽃은 오므라들어 빛은 사라지고 다시 무명(無明)에 갇히게 됩니다. 하루 지나지 않아 다시 연꽃이 피는데 7일간 아미타불을 볼 수 있으나 명료하게 보지는 못합니다. 계속 정진하면 21일이 지나야 분명하게 극락세계가 보입니다.

깨달음 세계와 계합하는 것은, 중생이 타고 앉은 연꽃이 활짝 피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반면, 무명(無明)에 떨어져 있는 상태는 연꽃이 피지 않고 닫혀 있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깨달음(覺)의 상태는 청정한 연꽃이 만개하여 찬란한 광명이 비춰들고 이 빛 속으로 융해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깨닫지 못한(不覺) 상태는 피지 않은 연꽃 봉우리 속에 갇혀 빛을 보지 못하는 상태로 그려집니다.

비록 삼매 체험을 잠시 하더라도 근기가 얕으면 다시 빛이 없는 무명(無明)으로 떨어지는 것을, 연꽃이 잠시 피었다가 바로 오므라들어버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한이 어찌 부처님을 맞이하는가

그렇다면, 중품의 근기를 가진 사람은 어떤가. 중품중생인은 밤낮 하루 동안 계(팔재계 사미계 또는 구족계)를 지킨 사람입니다. "수행이 적은데도 어찌 이와 같은가 라고 말하지 말라. 티끌의 불씨라도 능히 만개의 횃불을 밝힐 수 있다"고 초발심의 중요성은 강조됩니다. 마음 속 청정한 깨달음이 활짝 열려 찬란한 빛이 들어오는 것도 잠시, 이내 연꽃은 오므라들고 맙니다. 다시 7일이 지나야 연꽃이 피는데 그때는 마음의 눈이 열려 수다원과(須陀洹果)를 얻게 됩니다. 수다원이란 팔리어 소타판나(sotpanna: 전향)를 음사한 말로서 예류(預流) 또는 입류(入流)로 번역됩니다. 즉 중생의 마음에서 성자의 마음으로 전향, 방향을 바꾸어 성자의 대열로 진입한 사람을 일컫습니다.

하품상생인의 경우는 "가지가지 악업을 짓는 중생을 말한다. 어리석기 때문에 온갖 나쁜 짓을 하고도 참회하거나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염불공덕을 아주 간절히 한다고 해도 아미타부처님을 만나기는 힘듭니다. 대신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나투시고, 연꽃을 타고 연못에 태어나게 되는데 49일이 지나야 비로소 연꽃이 핍니다.

49일로 연꽃 속에서 대기하는 기간이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49재를 지내는 우리 중생들은 대부분이 하품상생인에 해당한다는 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하품중생인의 경우는 "계율을 범하고 승단이나 스님네 물건을 훔치며, 자기의 명예와 이익을 위해 허무맹랑한 부정설법을 하면서도 뉘우치거나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 갖가지 악업을 짓고도 오히려 스스로 옳고 장하다고 뽐내는 사람"입니다.

하품상생인은 모르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고 하품중생인은 의도적으로 나쁜 짓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중생도 선지식의 법문을 접한 인연으로, 지옥에 떨어졌다가 다시 극락의 바람이 불어 구제받게 되는데, 극락에 왕생하더라도 6겁(劫)에 달하는 참으로 아득한 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연꽃이 열리게 됩니다.

중앙승가대 교수 · 불교문화재학

불교국가 연방승가회 회장단 5~7개국 승정 증명법사 참석 확정

국제 승려 具足戒 금강계단 제5회 비구, 비구니계 수계 의식

부처님 당시의 상좌부 출가의식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와 종교법인 세계불교 법왕청에서는 400여 군소종단을 불문 어느종단 스님이든 출가 법납이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되어도 먹물옷 다시금 여미며 초발심에 행자승의 마음으로 되돌아가 새롭게 발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대승적 큰 뜻, 큰 마음으로 미얀마 연방정부의 종교성과 미얀마 연방승가회의 자문과 도움을 받아 법왕이신 우꾸마라 종정큰스님을 대화상을 모시고 구족계를 내려주실 三師 7尊證 大元老 큰스님들과 500여 증명 존증아사리들의 독경속에 상좌부 불교승려로 거듭나는 장엄하고 여법한 야단법석, 국제불교 금강계단을 마련했습니다.

구족계 계첩을 미얀마 연방승가회에서 정식 수여함

- 일 시 : 10월 11일 출발 6박 7일 일정
- 신청기간 : 7월 31일까지
- 참가서류 : 사진 부착된 이력서 1통 여권
- 참가신청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68(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우. 03158
- 장 소 : 미얀마정부 종교성내 양곤승가대학 5일간 입교함
- 문 의 : 011-229-6061

■ 주최 :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교법인 : 세계불교법왕청 / ■ 후원 : 미얀마 연방정부 종교성. 미얀마 연방승가회

원효 탄신 1400년 기념 특별전 일본서 열린다

동국대, 가나자와문고서

원효 스님 탄신 14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이 일본에서 열린다.

동국대 인문한국(HK)연구단(단장 김종욱, 이하 HK연구단)은 오는 8월 20일까지 일본 가나가와 현립 가나자와문고에서 특별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를 기념하는 공동 학술대회도 6월 24일 열렸다.

'안녕하세요! 원효법사-일본에서 발견한 신라 · 고려 불교'를 주제로 하는 이번 특별 전시회에서는 가나자와문고뿐만 아니라 일본 전국에 소재한 △원효의 〈판비량론〉 단간 △〈대혜도경종요〉 △〈대승기신론별기〉 △〈보살계본지범요기〉 사본이 최초로 공개된다. 또한 △의상의 〈일승법계도〉의 법성게에 음표를 붙인 〈화엄원융찬〉 △의적의 〈보살계본소〉 △제관의 〈천태사교의〉 △지눌의 〈화엄론절요〉 사본이 처음으로 선보인다. 이외에도 △법장이 의상에게 보낸 편지 △확심의 〈원종문류집해〉 등이 소개되고, 태현의 〈보살계본종요〉에 대한 일본 주석서가 처음 공개된다. 이 밖에 고산사의 원효상과 의상상도 전시된다.

김종욱 동국대 HK연구단장은 "이번 전시와 학술대회는 원효 탄신 1400주년을 기념해 기획한 원효학 세계화 프로젝트의 일환"이라며 "신라 불교와 고려 불교의 사본과 간본 및 문헌들이 총망라되는 자리"라고 밝혔다.

한편, 가나자와문고는 일본에서 동아시아 불교문헌이 가장 방대하게 집성된 가마쿠라 시대의 불교전적을 제일 많이 소장하고 있는 굴지의 문고이다. 신성민 기자

신진학자들이 연구한 우리 시대의 불교학

한국불교학회, 하계 워크숍

신진 불교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사)한국불교학회(회장 성운)는 6월 26일 오후 2시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서 '신진학자들이 연구한 우리 시대의 불교학'을 주제로 하계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안유숙(동국대)의 '유가사지론의 사마디 수행 연구' △계미향(동국대)의 '한국 고대의 천축구법승 연구' △담준 스님(동국대)의 '원효윤리사상의 연구' △장성우(동국대)의 '초기불교의 경영사상 연구' 등이 발표된다. 신성민 기자

"송광사 53불도, 時空 충만한 여래 상징"

송광사, 23일 오불도 학술대회 및 특별전

40여 년 전 도난됐다가 지난해 12월 미국 포틀랜드 박물관에서 송광사로 돌아온 불조전 오불도(五佛圖)에 대한 연구 결과 발표와 이를 일반에 공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제21교구본사 송광사(주지 진화)는 6월 23일 경내 성보박물관 로비에서 오불도 관련 학술대회와 특별전을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송광사 오십삼불도와 오십삼불상에 대한 연구와 종단 국외성보환수정책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다.

환수된 오불도는 송광사 불조전에 봉안돼 있던 '오십삼불도(五十三佛圖)' 중 하나로 〈관약왕약상이보살경(觀藥王藥上二菩薩經)〉을 근본 경전으로 한 불화로 조성사례가 드물다.

송광사의 불조전의 오십삼불도는 △칠불도 1폭 △구불도 2폭 △십삼불도 2폭 △오불도 2폭 등 모두 7폭으로 구성돼 있었지만 이 가운데 오불도 2폭이 도난됐다. 이후 지난해 미국 포틀랜드박물관이 보관하고 있던 1폭이 기증되어 6폭이 됐다. 이 오불도는 송광사 불조전의 왼쪽 출입문 벽에 있던 것으로 오른쪽 출입문에 있던 나머지 1폭의 오불도는 현재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태다.

정명희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 학예연구관은 '송광사 불조전의 오십삼불도 연구'를 통해 오불도가 봉안됐던 송광사 불조전의 구조와 구성을 살폈다.

정 연구관은 국립중앙박물관이 1969년부터 5년동안 진행한 전국 사찰 소재 불교회화 조사 사업의 송광사 연구 결과를 주목했다.

당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액자 형태인 '오십삼불도'는 원래는 상 · 하단 축을 부착한 족자 형식이었고, 1970년 이후 보존 처리를 하면서 현재의 형태로 바뀌었음을 알게 한다. 중앙 주출입문을 두고 서단과 동단에 협문이 있는데, 그 중 양 끝의 한 짝을 고정시키고 문과 우주(隅柱) 사이 좁은 벽면에 불화를 걸었다. 그러나 지금 이곳은 불상과 불단 등이 배치되지 않고 있다.



환수된 송광사 불조전의 '오불도.' 본래 불조전 '오십삼불도' 중 하나로 조성 사례가 극히 드문 귀중한 불화다.

53불도 삼신 · 오방불로 시작
과거 · 미래 천불 존상 마무리
특별전, 국보 문화재도 공개

1969년 조사 연구와 현 상태를 분석한 정 연구관은 "반환된 '오불도'는 제48, 제50, 제52, 제53 일체상만왕불까지 도해라고 미래 천불을 대표하는 미륵불을 추가했다"며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아직 행방을 알 수 없는 다른 '오불도'에는 제45 우담발라화수승왕불, 제47 아축비환희광불, 제49 재광불, 제51 산해혜자재통왕불이 도해되고, 과거비바시불이 배치됐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불조전 오십삼불도는 삼신불과 오방불에서 시작돼 53불이 순서대로 배치되고, 불화의 마지막은 과거천불과 미래천불을 상징하는 존상으로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 연구원은 1725년 의겸이 맡았던 송광사 불사의 맥락서 오십삼불도 불사의 의미를 살펴봤다. 정 연구원은 "의겸은 삼신불과 오방불을 전각 중앙에 배치해 불신과 시방삼세 부처를 아우르는 중심축을 삼았다"면서 "불조전의 건축 구조와 공간의 쓰임을 의식하고 이미 존재했던 불상과 뒤에 거는 불화의 역할을 함께 검토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광사 오십삼불도는 시공간에 충만한 여래에 대한 사고를 보여준다"며 "건축 공간 안에 불상과 불화가 종합적으로 구현된 귀중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송은석 동국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의 '순천 송광사 불조전 오십삼불상 연구'와 신유철 조계종 문화부 행정관의 '조계종의 국외소재성보환수정책과 성과' 등이 각각 발표됐다.

이와 함께 송광사 성보박물관은 환수 오불도를 비롯해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불조전 오십삼불도와 불상 일부를 공개하는 특별전을 10월 8일까지 진행한다. 전시회에는 그간 제한적으로 공개했던 국보 제43호 목조삼존불감과 국보 제314호 화엄경변상도도 출품된다. 두 국보의 전시 기간은 오는 7월 23일까지 한 달동안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문화 타임캡슐 '불복장' 총망라

주목! 학술서

유근자 동국대 겸임교수의 〈조선 불상 복장기록 연구〉

조선 불상 300기 복장물 분석 불교사 연구 기초자료 의미 커



"서방의 교주 아미타불은 이 사바세계에서 중생을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는 인연이 있어 한편 피불(彼佛)이라고도 칭하니, 중생을 인도하여 구연대(서방정토) 위로 들어간다. 〈중략〉 널리 존귀한 사람과 미천한 사람들에게 고하여 그들의 도움으로 열반의 아름다운 뿌리를 심어서 다행스럽다."

이 글은 조선 태종 후궁 의빈 권 씨가 단종복위운동을 도모했던 금성대군의 명복을 빌기 위해 조성한 영주 흑석사 아미타불상의 권선문(1457) 중 일부다.

금성대군을 아들처럼 보살폈던 권 씨가 주도해 만든 아미타삼존상은 특이하게 협시보살인 대세지보살 대신 지장보살을 조성한다. 이는 모두 정쟁의 소용돌이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금성대군을 기리기 위한 것이었다.

이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불상 내 안치되는 복장(服藏) 속 기록들이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 상을 점안하기 전 내부에 사리와 경전 등 넣는 복장에는 불상의 명칭, 조성 연대, 봉안 장소, 불상을 만든 장인, 조성에 참여한 사람과 신분, 조성 배경 등이 자세하게 쓰여진 기록물이 함께 안치된다.

복장물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함부로 열 수 없어 이를 한국불교전통문화의 '타임캡슐'이라 부르기도 한다. 또한 불교미술사 연구에서는 빠질 수 없는 귀중한 자료이다.

유근자 동국대 미술학부 겸임교수(강원도 문화재전문위원)가 최근 발간한 〈조선시대 불상의 복장기록 연구〉는 불복장 연구와 자료의 집적(集積)을 이룬 의미 있는 연구서이다.

유 교수 연구의 가장 큰 의미는 조선시대 조성된 300기의 불상 복장기록을 분석하고 원문을 게재한 것이다.

이를 통해 유 교수는 조선시대 불사 동참자를 데이터베이스화했다. 이는 '숭유억불'의 조선에서 불상이 조성돼 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조선 전기에는 억불숭유 정책 아래에서도 왕실의 후원이 지속되지만 시대가 내려올수록 조선불교계는 차츰 자력으로 불사(佛事)를 진행하면서 수행자인 승려를 중심으로 서민화된 불사를 추진했다.

많은 백성들이 불상 조성에 나선 이유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고인의 극락왕생,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현세이익적인 무병장수와 종교적인 깨달음을 기원한다. 해남 대흥사 천불전의 천불상 조성에 관한 1817년의 기록을 보면 총 976명의 시주자들이 동참했는데, 스님과 일반신자로 구분된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속가 부모님의 영가천도를 발원하고 있는 점이다. 이것은 효를 강조했던 당시 조선시대의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서에 대해 유 교수는 "조선시대 불상 조성기에 관한 종합적 연구는 아직까지 활발하지 못하지만, 불상 조성기 자료가 집성되고 분석이 이뤄진다면, 조선시대 불교조각사와 불교사 연구는 한층 체계적인 연구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동아시아 선불교 사상을 논하다

금강대, 韓 · 中 · 日 국제불교학술대회

7월 1~2일 日도요대서

한국과 중국, 일본 불교학자들이 선불교 사상을 조명하는 학술행사가 열린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는 오는 7월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일본 도쿄 도요(東洋)대에서 제6회 한 · 중 · 일 삼국공동 국제불교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한국의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중국의 런민(人民)대 불교와 종교학이론연구소, 일본의 도요대 동양학연구소가 공동 주관하며, '동아시아 선불교 사상과 의의'를 주제로 진행한다.

학술대회서는 한국 측에서 박건주 전남대 교수가 '〈보리달마론〉의 선지(禪旨)와 그 의의', 최연식 동국대 교수가 '고려말 간화선 전통 성립의 역사적 배경', 최은영 금강대 HK교수가 '북조 승조 선사의 습선법(習禪法)'을 발표한다.

중국 측에서는 장원량(張文良) 런민대 교수가 '〈능가경(楞伽經)〉과 중국화엄사상', 싱동펑(邢東風) 에이메(愛媛)대 교수가 '원간본(元刊本) 〈임제록〉에 관하여', 쉬원밍(徐文明) 북경사범대 교수가 '불인요원선사의 문인에 관하여'를 발표한다.

일본 측에서는 도호쿠(東北)대 사이토 토모히로 교수가 '선문답의 탄생과 공안선으로의 전개', 야나기 미키야스 하나조노(花園)대 국제선학연구소 교수가 '무소소세키와 〈종경록〉', 타치류우시 도요대 동양학연구소 교수가 '중세 선림(禪林)에 있어서 단오(端午)'를 발표한다.

이들 학자들의 발표와 토론은 내년 3월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에서 단행본으로 출판될 예정이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는 한 · 중 · 일 삼국의 3개 대학 연구소가 순차적으로 학술교류를 지속하는 행사다. 동아시아 학술연구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금강대와 도요대 · 런민대는 10년 동안 '불교의 동아시아적 수용과 변용'이라는 방대한 주제를 공동으로 연구하기로 하고 제1회 학술대회를 '동아시아에 있어서 불성 · 여래장 사상의 수용과 변용'이라는 주제로 2012년 6월 서울에서 개최했다.

이후 매년 동아시아 불교에서 나타난 사상과 논쟁 등을 다룬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사단법인 한국불교 종단총연합회 회원등록 안내

본 법인은 민법 제32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총연합회 법인설립을 허가 받은 단체로 본회 설립동기에 대하여 종단스님 및 문화예술단체 지도자님들께 널리 알리고 회원을 모시고자 지면을 통하여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스님 및 지도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설립동기 : 많은 종교지도자님들께서 몸담고 계셨던 단체에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임원과 회원들 간에 소통하면서 투명하게 운영해 주었으면 ●법인설립자 및 회장단이 독선적으로 연합회를 운영하지 않았으면 ●각종행사 등을 하기 전 회원들과 사전에 협의를 하였으면 ●회비 및 후원금을 회원들의 현실에 맞게 정했으면 ●행사일정을 행사 15~20일전에 미리 연락해 주었으면 ●회원들 상호간에 서로 상생하며 친목을 도모하는 단체가 되었으면 ●덕망 있는 좋은 분들 만나 단체를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본회를 설립한 소생들도 위와 같은 소망을 오랜 기간 추구해 왔던 당사자로서, 항상 낮은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을 기필코 해결하여 회원님들이 신뢰하고 덕망 있는 단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단 및 문화예술 단체등록, 종단행정, 사단법인설립, 재단법인설립, 사암등록, 세무서 고유번호등록, 관청 등록번호등록증명서, 단체명의 차량등록증 등 모든 행정에 대하여 지원도 해드리고 친절하게 상담도 해드립니다. (문의 : 사무총장 산수스님 H·P : 010-3300-0408)

사단법인 한국불교 종단총연합회 법인설립 발기인 일동

대구사무실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로 205(성당동) 2층 전화 053-621-0408
강원사무실 : 강원도 동해시 만우안길 5-3(만우동) 정심사 전화 033-534-3956

연인원 9만명이 관람하는 힐링전문 템플스테이도량

선무도 공연과 함께하는 윤달 성지순례

오감으로 느끼는 생생한 문화체험
보고 듣고 따라하고 느낌으로 배운다
선무도와 불교종합예술공연 – 체험 – 감동의 파노라마
사천왕 四天王 DEVAS GUARDIAN



1500년 마애불의 미소가 삼세업장을 소멸하는 골굴사

[주변성지 : 기림사, 오어사, 석굴암, 문무대왕 수중릉]

◈ **공 연 내 용** : 선무도 · 승군의 검무 · 화랑의 봉술 · 아수라의 바라무 · 사천왕의 탈춤 선무드라춤 테라피 · 힐링살풀이 · 불교전통무용 · 민요

◈ **템플라이프(유료)** : 선무도체험 · 공연관람 · 공양(식사)

◈ **선무도 지도자 과정 신입생 모집** : 2년 전액 무료 (홈페이지 참조)

• 선무도 공연 •
오후 3시 30분 (무료공연)
월요일은 쉽니다.





◈ 선무도 수련원 ◈
· 서울본원(종로) 02)763-2980
· 서울 강남지원 02)599-5554
· 부 산 본 원 010-2554-8100
· 울 산 지 원 052)276-6271

선무도총본산 골굴사 재)선무도 대금강문
☎ 054)744-1689 / 775-1689 www.sunmudo.com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소중한 인연들

만남은 설렘이지만 헤어짐은 아쉬움이다. 만남은 날아서 오지만 헤어짐은 기어서 간다. 만남은 무지개 빛으로 다가오지만 헤어짐은 안개비를 뿌리며 더디게 간다. 만남은 소중한 인연이지만 헤어짐은 더욱 소중하게 마무리해야한다.

옷깃 스치는 것도 인연이라지만 만남은 끌어당김이고 헤어짐은 밀어내기의 법칙으로 동전의 앞, 뒤나 그림이 같지 않다. 만남은 느낌의 배려에서 비롯되지만 헤어짐은 확인 사살처럼 감정의 막 내림으로 마무리된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다보면 누구나 천 번의 만남과 만 번의 헤어짐 속에서 철이 들고 늙으며 병들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숱하게 겪으며 윤회하는 만남과 헤어짐에 서툴고 어색하며 같은 몸짓으로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다.

우선은 남의 밥 콩이 굵게 보이는 중생심에서 자유롭지 못하여 눈높이만큼 세상이 보이고 보인만큼 알아차리며 즐거움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의 쳇바퀴를 쉴 틈 없이 돌고 있는 다람쥐가 되는 것이다. 더러는 장닭처럼 허세를 부리며 깃털을 세우며 거드름을 피우고 똥개처럼 아무에게나 짖어대며 경계하듯 탐색전을 즐기지만 만남과 헤어짐 뒤엔 남는 것은 허무의 그림자 같은 빈 손 뿐인 것이다. 때 늦은 후회도 삶의 뒤안길에서 되돌아보면 가벼운 나의 말과 행동이 지는 낙엽처럼 마른 버짐처럼 싸하게 가슴 깊이 번지는 것을 느낄 터이다.

세월이 흐르면 무엇이 남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남는 것은 빈손, 빈손의 허무뿐이다. 일생을 가꾼 마음의 영토에서 추억의 줄기처럼 타작해보면 알곡은 몇 알이 안 되고 검불떼기 뿐인 안쓰러움이 후회로 남는 법이다. 검불더미 속에서 외톨이의 삶을 분해해보지만 흔들리는 어금니처럼 달아난 젊음이 두어 방울의 눈물로 남을 터이다.

젊은 시절 글짓기를 즐기던 나는 오현 · 정휴 · 성우 · 지현 스님 등과 '승려시인회'를 만들어 동인지도 발간하고 분주한 몸짓으로 뻐기며 살았다.

나이 들어 죽음의 문턱에서 떠날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요즈음, 오현 스님은 설악산의 산신령으로, 정휴 스님은 천하제일의 자유인으로, 성우 스님은 종단의 전계사이자 BTN불교TV 회장으로, 지현 스님은 번역 대가(大家)의 선지식으로 색깔을 달리하며 까마득히 멀리 있다.

요즘은 지리산의 용타 스님과 영산 스님, 도법 스님, 그리고 숨은 도인 광재 스님과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며 붉은 노을로 살고 있다.

한때는 오현 스님과 정휴 스님, 나는 셋이서 '고행자 수첩'이란 책을 함께 펴내며 걸레스님 중광과 잡설(雜說)을 즐기며 더러는 살아있는 전설 속의 몸짓으로 여행 아닌 여행을 즐겼었다.

중광 스님은 천재 화가답게 선배로서 죽음도 먼저 맞이했지만 10권의 책으로도 부족할 그의 자유분방함은 세월이 흐를수록 전설로 남을 터이다.

오현 스님과 정휴 스님과의 첫 만남도 지극히 소설적인 살아있는 전설이다. 계림사로 오현 스님을 찾아갔을 때 오현 스님은 누워있는 자연스런 몸짓으로 나를 보며 팔뚝 굵어 시(詩)쓰는 일보다 가스나 섬기는 일이 제격이라며 호탕하게 웃었고, 불국사 강사인 정휴 스님을 처음 만나 함께 잠을 자는데 정휴 스님은 문구멍으로 볼일을 봐 나의 기차표 하얀 운동화가 흥건히 젖어 있던 일도 어제 같다.

몇 년 전부터 늙은이들이 도반 모임으로 가끔씩 만나고 있다. 통도사의 혜남 스님이 사자암에 와서 두어 차례 밤을 밝히며 대화 나누며 도담(道談)을 즐겼는데 혜남 스님은 몸으로 설법하는 스님다운 스님으로 좋은 도반으로 꼽힌다. 늙어갈수록 허울의 옷을 벗고 순수하게 진솔한 삶을 몸으로 보여야 참 스승이고 착한 벗인 것이다.

맑고 밝은 모습으로 개운하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누가 무엇을 물어도 머뭇거리거나 망설임 없이 진리를 드러내 보일 수 있는 힘이 진정한 의미의 힘인 것이다. 있는 듯이 없는 듯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자연에 순응하며 드러내고 감출 것 없이 살아야 인생 마무리의 삶인 것이다. 만남도 소중하지만 헤어짐에 방점을 찍어 개운하고 아름답게 마무리를 준비하며 살일이다.

만남은 설렘이지만 헤어짐은 아쉬움
개운하고 아름답게 마무리 준비하자

상식에 어긋난 말로 화두를 던지다



지안 스님의 〈禪話의 향기〉
조계종 고시위원장

수산성념(首山省念:926~993) 선사는 임제 선사의 5대손이다. 처음 출가한 후 각처의 선지식을 두루 찾아다니며 두타행을 실천하다가 〈법화경〉을 3000번 수지독송 했다. 그래서 그를 염법화라 부르기도 하였다. 한 번은 풍혈연소(風穴延沼) 선사의 회상에 있을 때 어느 날 풍혈연소 선사가 대성통곡을 하는 것이었다. 깜짝 놀란 수산 스님이 다가가 "스님, 왜 그러십니까?" 하고 물었다. 풍혈 선사가 대답하기를 "임제의 법맥이 내게서 그만 끊어지는 게 슬퍼서 그러네"하였다. 이에 수산 스님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 "저라도 스님의 법을 이으면 되지 않을까요?" 했다. 그러자 다시 풍혈 선사는 "자네는 〈법화경〉에 걸려 있어서 되겠나?"고 하였다. 수산 스님도 다시 "이제부터 공부를 다시 하여 스님의 법을 잇도록 하겠습니다"고 했다.

이렇게 하여 각고의 정진 끝에 결국은 수산 스님이 풍혈 선사의 인가를 받고 그의 법을 잇게 되었다. 그가 법을 펼 때 사용한 여러 가지 공안의 이야기가 전해진다. 죽비를 소재로 한 '배촉관(背觸關)' 이야기는 특별히 유명하다.

〈선문염송설화〉에 소개된 내용은 이렇다.

어느 날 수산 선사가 죽비를 집어 들고 어떤 학인에게 보이면서 물었다.

"이것을 죽비라고 부르면 그 말에 물들고, 죽비가 아니라고 하면 등지게 된다. 자, 말해 보게. 무엇이라 불러야 하는가?" 이 공안을 '배촉관'이라 한다.

150년 후 송나라 대혜종고 선사가 이 '배촉관' 이야기를 들어 대중에게 법문을 했다.

"나는 방에서 항상 선수행자들에게 묻는다. 죽비라 부르면 그 말에 물들고, 죽비라 부르지 않으면 등지게 된다. 말을 해서도 안 되며 말을 안 해서도 안 되며, 생각해서도 안 되고 헤아려서도 안 되며, 옷소매를 털고 떠나서도 안 되니, 그 중에 어떤 것도 안 된다. 그대들이 죽비를 빼앗아 부정하려 한다면 내가 빼앗도록 허용하겠지만, 내가 주먹이라 부르면 그 말에 물들고 주먹이라 부르지 않으면 등지게 된다고 할 경우 그대들은 어떻게 빼앗아 부정할 것인가?"

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어떤 사람이 수산 스님에게 물었다.

"부처란 무엇입니까?"

"며느리를 나귀 등에 태우고 시어머니가 고삐를 잡고 길을 간다."

이것은 '수산신부(首山新婦)'로 알려진 공안인데 파설(破說)을 무릅쓰고 의리(義理)를 따져 이 말 속에 들어 있는 뜻을 풀어내기도 하였다.

며느리를 나귀 등에 태우고 시어머니가 고삐를 잡고 가는 것은 우선 상식에는 어긋나는 경우다. 당연히 어른인 시어머니를 태우고 며느리가 고삐를 잡고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 이야기다.

그러나 상식에 어긋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상식이라는 것도 일종의 고정관념이다. 가령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상상해 본다. 며느리가 뱃속에 애기를 가진 임산부였다. 그리하여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나귀 등에 태우고 간 사연을 알게 되었을 때 처음 상식에 어긋난다고 의아해 하던 마음이 수긍이 되어 지면서 시어머니가 중요하고 고마운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때는 어떨까? 상식에서 느끼지 못했던 감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상식과 다른 뒤바뀐 상황에서 오히려 상식보다 더한 감동 같은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메시지는 마음에 감동을 일어나게 하는 것이 부처라는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는 제일구의 소식은 아니다.

수산삼구(首山三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종용록(從容錄)〉에 의하면 수산 스님이 대중에게 말한다.

"제1구에서 알아차리면 불조의 스승이 되고, 제2구에서 알아차리면 인천의 스승의 되며, 제3구에서 알아차리면 자신도 구제하지 못한다."

이때 어떤 학인이 "화상께서는 몇 번째 구절에서 알아차렸습니까?"하고 물었다. 이에 말하기를 "삼경에 달이 지더니 저자를 뚫고 지나가는구나.(月落三更穿市過)"라고 하였다.

마음의 별칭, 부처



진원 스님의 깨달음 찾는 〈금강경〉
㉕ 실상을 보는 법

유건 스님이 어느 날, 법당 뒤에서 좌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마조 선사는 유건 스님의 귀에다 대고 '휴우' 하고 입김을 두 번 내뿜었습니다. 유건 스님은 선정에서 깨어나 선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선정에 들었습니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선사는 곧 시자를 시켜 유건 스님에게 차 한 잔을 가져다주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유건 스님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휙 일어나더니 곧장 그의 방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마조 선사가 내뿜은 두 번의 숨으로 선정에서 깨어난 유건 스님은 선사의 한숨이 수행의 과정임을 알고 다시 선정에 들었으나, 시자를 통해 보내온 차 한 잔을 보고 급히 방으로 돌아간 것은 좌선이 결코 치하와 보답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한 것으로, 유건 스님은 마조 선사의 심중을 이미 간파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일으키는 한숨은 부처님의 뜻을 깨닫는 길잡이가 되어 수보리 존자처럼 감격의 눈물을 흘릴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참으로 희유하시옵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이 심히 깊은 경전을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예로부터 오면서 얻은 바 지혜의 눈으로는 일찍이 이와 같은 경을 얻어 듣지 못하였나이다.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얻어 듣고 신심이 청정하면 곧 실상이 생긴 것이오니, 이 사람은 마땅히 제일 희유한 공덕을 성취한 것임을 알겠나이다."

이와 같이 심히 깊은 이 경전을 말씀하시는 것을 예로부터 오면서 듣지 못하였고 수보리 존자가 지닌 지혜의 눈으로도 알지 못했는데,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신심(信心)이 청정하여 감격의 눈물을 흘린 이 마음을 곧 실다운 상(實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실상이 생긴 사람의 공덕은 삼천대천세계에 칠보를 쌓아놓고 남을 위해 보시한 사람의 공덕보다 더없이 뛰어나고 희유한 공덕을 성취한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이 실다운 상이라는 것은 곧 상이 아니오니 여래께서는 이름이 실다운 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분별망념을 여읨으로 신심이 청정한 것을 실다운 상이라고 하여, 실다운 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분별망념을 여읜 것을 무엇인가 문자로 나타내려 하다 보니 실다운 상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다운 상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여 애착한다면 이는 허망한 상이므로, 실다운 상을 애착하지 않으면 실상이라는 것이 곧 실상이 아니고 이름이 실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이라는 이름은 마음의 별칭으로 이와 같이 바르게 보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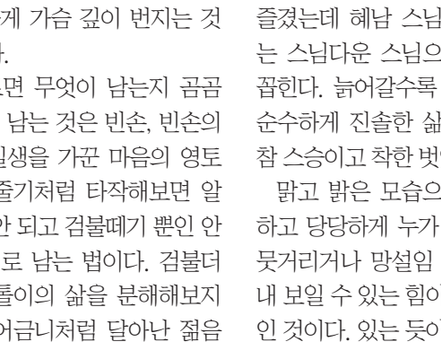
"세존이시여, 제가 이와 같은 경전을 얻어 듣고 알고 받아 지니는 것은 어렵지 않사오나 만일 이 다음 세상 이천 오백년(후오백세) 뒤에 어떤 중생이 이 경을 얻어 듣고 믿어 이해하여 받아 지닌다면 이 사람은 제일 희유한 사람이옵니다."

이 다음 세상 이천 오백년 뒤 우리들 중에 누가 있어 이 경을 얻어 듣고 믿으며 마음으로 행한다면, 그는 삼계의 28천(天) 가운데서 가장 높은 무색계(無色界)의 경계에 머물고 있으며, 보살 10지(地)에 해당하는 보살 성인(聖人)이므로 참으로 희유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오면 이 사람은 '나라는 상'도 없고 '남이라는 상'도 없고 '중생이라는 상'도 없고 '오래 산다는 상'도 없는 까닭이옵니다. 왜냐 하오면 나라는 상이 곧 상이 아니오며, 남이라는 상, 중생이라는 상, 오래 산다는 상이 곧 상이 아니옵니다."

지금 부처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함은, 부처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부처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생각, 즉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부처이다 함은, 부처는 생각과 마음으로 인하여 있으므로 부처는 마음의 별칭인 것입니다.

삶의 무한 지혜, 화제의 신간
香 향이 세상에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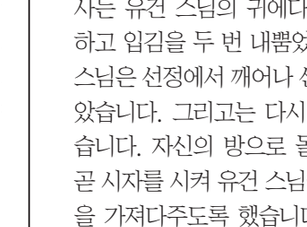


허공천(虛空天)
향운계(香雲界)에서
향수(香水)의 비가 내려
바다에 떨어지니
바다가 향수대해(香水大海)를 이룬다.

향1권 기품, 승화, 사유, 이성(理性)의 향기
향2권 지혜, 정신, 마음, 지성(知性)의 향기
향3권 생명, 차(茶), 초월, 꽃잎의 향기를 담았다.

박명숙(德慧林)저 / 향 1권 336쪽 / 향 2권 328쪽 / 향 3권 320쪽 / 정가 각 23,000원

완전한 지혜의 세계,
密 밀이 세상에 나왔다!!



최상 깨달음 지혜 과정이
이보다 더 상세할 수는 없다.

5, 6, 7, 8, 9식(識) 전변 깨달음세계와
완전한 깨달음 6종각(六種覺)인
5각, 6각, 7각, 8각, 9각,
10각(十覺) 성불 과정의 경계와
지혜의 길을 상세히 완전히 밝혔다.
밀법 태장계와 금강계, 옴마니반메훔,
광명진언 등의 실상세계를 자세히 밝혔다.

박명숙(德慧林)저
밀1권 500쪽 / 밀2권 584쪽 / 정가 각 35,000원

관음출판사
홈페이지 : www.gubook.co.kr E-mail : gubooks@naver.com
Tel. (02) 921-8434 Fax. (02) 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신심의 결실 '자비회' 무료급식소 열다

광명사 신도회, 지역민 위한 무료급식 시작

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광명사가 지역민을 위한 무료급식을 시작했다. 주지 법경 스님과 광명사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무료급식 봉사로 매주 첫째 · 셋째 주 화요일 오전 11시~오후 1시 문을 연다.

광명사(주지 법경)는 6월 20일 사상구 덕포 시장에 위치한 한 음식점에서 무료급식을 시작했다. 봉사자들은 북적대는 시장 골목에서 일일이 지나가는 어르신들의 손을 붙잡으며 "누구나 드시고 가시라"고 홍보했다. 이에 300여명 어르신이 무료급식소를 찾아 광명사가 준비한 국수와 떡을 즐겼다.

이와 함께 마련된 전통 민요 및 색소폰 연주 등 흥겨운 무대는 잔치 분위기를 조성했다.

남귀현(86) 할머니는 "국수도 너무 맛있고 봉사하는 분들이 생글생글 웃으니 더 기분이 좋았다"며 "지나가는데 들어오라며 맛있게 드시라 하는데 나눔실천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이었다"고 웃었다. 임윤연(82) 할머니는 "시장을 지나다 음악소리에 멈췄더니 식사하고 가라며 반갑게 잡아주더라. 기분이 정말 좋다"고 했다.

광명사 자비나눔 무료급식은 2달 전 광명사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발심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지 법경 스님은 "무료급식을 위해 광명사 신도회 '자비회'를 구성했다"며 "신심으로 나눔을 실천하고자 나선 신도들을 응원한다. 오늘 이 자리가 자랑스럽다"고 격려했다.

자비나눔 위해 신도회 결성
신도들 자발적 의사 '눈길'
6월 20일 덕포시장서 첫 문
지역민 300여명 찾아 '성황'

또한 "광명사는 현재 재개발 지역으로 묶여 무료급식을 진행하기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신도회장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무료급식을 열게 됐다. 가게가 문 닫는 날 장소를 제공한 신도회장의 정성에 감사하다"고 칭찬했다.


광명사가 6월 20일 사상구 덕포 시장에 위치한 한 음식 가게에서 무료급식을 시작했다. 광명사 주지 법경 스님이 지역민을 격려하고 반기는 모습.

강우석 자비회 신도회장은 "기도성취 도량인 광명사를 어머님을 모시고 자주 갔는데 스님의 봉사와 신행 활동에 감동받아 조금이라도 닮고 싶었다"며 "그동안 법경 스님은 지역 내 독거 어르신을 방문하고 위로하셨다. 그 어느 누구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에 신도들이 함께 의논했고 이런 자리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광명사 주지 법경 스님은 지역 내 동사무소 무료급식 쌀 지원 뿐 아니라 자비의 일일 찻집, 독거노인 돕기에 앞장서고 있다.

아울러 사상구 불교연합회에서 진행하는 장학금 지원 사업에도 동참한다. 앞으로 법경 스님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한다는 의지다.

한편 이 자리는 덕포1동 행정지원센터, 석이네 아구찜, 정원식품, 소담국수, 민속떡집, 대경유통, 문화사랑발전위원회, K스타원엔터테인먼트가 함께 후원했다.

하성미 기자

웃음꽃 핀 우리 동네 경로당 '늘 기쁩니다'

사회복지법인 늘기쁜마을 경로당 지원사업

사회복지법인 늘기쁜마을(대표이사 지현, 이하 늘기쁜마을)이 지역 내 경로당을 방문하고 행복한 노인복지에 힘쓰고 있다.

늘기쁜마을은 6월 15일 부산 사하구 장림현대아파트에 위치한 경로당을 방문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떡 · 과일 · 음료수 등을 준비하고, 건강박수 · 노래 따라 부르기 · 건강체조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이날은 특별히 늘기쁜마을 대표이사 지현 스님(관음사 회주)이 직접 방문해 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늘기쁜마을은 2007년부터 경로당방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 초창기 노인복지를 위해 대표이사 지현 스님이 제안했고, 현재 경로당방문 사업은 지역 내 경로당 10곳에서 현재 22곳으로 확대됐다.

특히 부산 사하구 신평과 장림 지역에는 노인복지관이 없기 때문에 늘기쁜마을의 행보는 더 의미가 깊다.

현재 매월 셋째 주 목요일 마다 늘기쁜마을 환희불교복지대학 봉사자들과 사회복지사들이 팀을 나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대표이사 지현 스님은 "어르신은 이 땅의 뿌리이자 나라의 근본"이라며 "어르신들의 행복이 우리 모두의 행복이다. 어르신들의 외로움은 큰 문제다.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발원하며 더 자주 찾아 뵐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늘기쁜마을은 노인복지를 위해 경로관광, 경로잔치 등을 실시했으며 '자랑스러운 어머니상'을 제정해 지역 내 경로효친사상 확산을 위해 애썼다. 아울러 호스피스사업을 통해 현재 1560여명의 교육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전문호스피스봉사자가 병원 및 요양시설에서 봉사해 모범이 되고 있다.


6월 15일 부산 사하구 장림에 위치한 한 경로당을 방문한 늘기쁜마을 법인 가족들과 대표이사 지현 스님의 모습.

이뿐만이 아니라 환희노인요양원을 건립해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늘기쁜마을은 "노인복지를 위해 대표이사 지현 스님이 후원한 지원금이 총 32억이 넘는다"며 "스님의 원력으로 행복한 어르신들이 가득한 지역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늘기쁜마을 산하 두송주간노인보호센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방문요양 · 주간보호 최우수기관으로 4년 연속 선정됐다.

하성미 기자

진여원, 부산 북구 '호국성지'로

제19회 진여호국영령 위령재 및 보훈가족 위안행사

부산 북구를 호국성지로 거듭나게 한 곳이 있다. 바로 부산 진여원이다.

진여원(원장 남보타월 · 법명)은 호국의 달을 맞아 '진여호국영령 위령재 및 보훈가족 위안행사'를 6월 15일 화명 신도시 내 현충공원에서 봉행했다. 〈사진〉 올해 19주년을 맞았다.

진여 호국영령 위령재는 진여원을 찾아 기도하던 한 전쟁 미망인의 사연을 듣고 시작됐다. 당시 부산 북구에는 순국선열에 대한 추모의식이 전무했다. 진여원은 1997년 6월 25일 제1회 호국영령 및 군경전물장병 영가 합동천도재를 봉행하고 법당에 군경전몰장병 영가를 모셨다. 현재 위패 432위가 봉안되어 있다. 2000년에는 유자녀학자금을 전달했고, 다음해인 2001년 53사단 125연대 6대대와 공동으로 호국영령추모비 건립에 나섰다. 2002년 5월 31일에 진여원은 화명 제3근린공원 내 추모비를 건립하고 기공식을 봉행하고 있다. 현재 호국영령 위령재에는 승가와 지역 국회의원 등 지역 내빈들이 함께 하는 행사로 자리 잡았다.

남보타월 원장은 "내년이면 호국영령 위령재가 20주년이다. 더욱 뜻 깊게 준비하기 위해 계획 중"이라며 "북구 지역에 있는 보훈가족들이 더욱 행복하기를 발원하고 순국선열을 위한 위령재가 지속되길 발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여원은 제53사단 125연대 6대대에 군법당 건립을 발원하고 불사 중"이라고 관심을 독려했다.



한편 진여호국영령 위령재는 △왕생극락기원 등 밝히기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 왕생극락발원문 △ 감사패 및 장학금 전달 △법어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법문을 맡은 정여 스님은 "호국영령의 고귀한 희생으로 대한민국은 어려운 시절을 딛고 이렇게 잘사는 나라가 되었다"며 "호국영령 한 분 한 분이 맑고 아름다운 극락에 왕생하도록 기원한다"고 전했다.

하성미 기자

용암산 미륵사 제1회 진혼제 및 경로잔치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용암산 미륵사(주지 자일)는 6월 15일 제1회 진혼제 및 경로잔치를 열었다.〈사진〉

행사는 헌다 및 헌향 의식에 이어 경과보고, 불우이웃을 위한 백미 10kg 50포대 전달식으로 이어졌다.

미륵사 주지 자일 스님은 "미륵사에서 17년 지내며 처음으로 진혼제 및 경로잔치를 봉행하게 됐다.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마련한 자리"라면서 "참석한 사부대중에게 좋은 인연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 위로보다는 격려로 세상을 이어가며 늘 부처님 마음과 함께하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기원정사 창건 33주년 〈좋은인연〉 출판

재단법인 선학원 기원정사(주지 법륭)는 6월 18일 창립 33주년 기념문집 〈좋은 인연〉 봉정법회를 경내 대방광전 앞마당에서 봉행했다.〈사진〉

주지 법륭 스님은 "아름다운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데에는 질서가 필요하다"며 "사부대중 모두 날마다 좋은 날 되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한편 이날 법륭 스님은 자비와 원행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한 불자들의 공로를 치하하며 박종명 생명나눔실천본부 대구지역본부장 외 24명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좋은이웃이 마련한 어울림 한마당서 외국인근로자들이 난타공연을 즐기고 있다.

"불교계 情, 타향살이 버팀목"

불자모임 '좋은이웃', 외국인근로자 축제 열어

고국을 떠나 전북 완주 국가공단 기업체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들과 지역민들이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이 6월 18일 완주군 봉동읍 현대자동차 인화관에서 열렸다.

외국인근로자들을 지원하는 불자모임인 좋은이웃(대표 정용기)이 주최하고 송광사 · 금선암 · 원경사 · 현대자동차 불자회 · 전북대병원 불자회 등이 후원한 이번 어울림 한마당은 네팔 · 스리랑카 · 미얀마 · 베트남 · 태국 등 동남아시아 13개국 근로자와 자원봉사자 등 500여명이 동참했다.

현대자동차 사물놀이패의 길놀이를 시작으로 막을 연 이날 행사는 제기차기, 투호, 단체 줄넘기 등의 게임과 장기자랑, 공연, 경품추첨 등이 진행됐다.

이외에도 행사에 참가한 외국인들에게는 기념 티셔츠, 음료와 다과, 경품이 주어졌고 전주 천천클럽과 로터리클럽에서는 집에서 입지 않는 겨울옷 1,000여점을 제공했다. 또한 익산 원경사 자비 스님은 근로자들 손에 일일이 합장주를 채워줬으며 전주 한사랑 봉사단에서는 이미용 봉사활동을 펼쳤다.

정용기 대표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사회적 편견과 고국에 대한 향수로 많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어 이들이 건강하게 근무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사를 준비했다"며 "이들이 정해진 기간 동안 열심히 근무해 건강한 모습으로 고국에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네팔출신의 랄마니(32) 씨는 "한국생활 6년 동안 (행사에) 매년 참가했다"며 "고국의 동료들도 만나고 고향 이야기로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선족 출신의 한 근로자는 "외국인을 대하는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꼈다"며 "한국사회의 일원이기도 한 외국인근로자들을 잘 대해주면 고맙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영취산 설법현장, 음악으로 재현

부안 내소사, 선악회 초청 영산회상 음악회

부안 내소사(주지 진성)가 30년 전통의 선악회를 초청해 영산회상 음악회를 개최했다.

내소사는 부처님이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실 때 천상에서 선녀들이 여러 가지 악기로 연주한 것으로 전해지는 영산회상 음악회를 6월 18일 회승당 특설무대에서 개최했다.〈사진〉



템플스테이 참가자와 관광객 등 100여명이 관람한 이날 음악회는 중요무형문화재 대금정악 예능보유자 조창훈 선생의 지도 아래 해금 정은향, 단소 최차환, 대금 조석호, 피리 양정환, 가야금 김인선, 거문고 윤선숙 선생 등이 훌륭한 연주를 선보여 관객을 매료시켰다.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은 "전통 악기로 구성된 현악영산회상을 아무 음향기기 없이 들은 것은 처음이다. 내로라하는 대가들로 구성된 선악회의 영산회상곡을 직접 들을 수 있어 공연 내내 정말 행복했다"며 "앞으로 선악회를 초청해 좋은 시간을 자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현악 영산회상을 연주한 선악회는 1985년 결성돼 전통음악 중 정악인 '영산회상'과 '가곡' 등 줄풍류의 음악을 연주하는 단체다. 대한제국 궁정악사 출신 원로들이 함께하는 모임으로 출발해 꾸준히 영산회상을 연주해오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4.16 희망의 씨앗, 호남 곳곳에

4.16순례단, 전북서 11일간 순례 · 대담 등



군산 새만금 방조제 신시도 구간을 걷는 4.16 희망순례단.

지난 5월 15일 인천 연안부두를 출발, 진도 팽목항을 향해 떠난 '4.16희망순례단'이 인천~경기~충남 바닷길 450여㎞를 걸어 전북까지 내려왔다. 순례단은 6월 13~23일 금강 하굿둑을 시작으로 전북순례 일정을 소화했다.

총 순례 거리인 800㎞의 절반을 넘어 군산 은적사에서 첫날밤을 보낸 순례단은 군산 새만금 방조제~김제~부안~정읍~고창을 거쳐 11일간 전북순례를 마치고 23일 전남 영광을 지나 팽목항을 향해 걸었다.

16일 부안 새만금방조제를 출발한 부안 마실길 1코스 순례길에는 실상사 신도회와 일감 스님, 정념 스님 등 스님들이 함께 걸으며 생명과 안전이 우선되는 사회가 이뤄지길 기원했다. 순례 중에는 세월호 304인 이팝나무동산이 있는 정읍 황토현전적지를 방문하는 등 순례길 곳곳에서 세월호 희생자를 기억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22일에는 부안 변산공동체에서 '세월호와 희망교육'을 주제로 한 공개대담을 비롯해 전북작가회의와 함께하는 작은 문화제가 열렸다.

대담은 30여년을 교사로 재직해온 박두규 시인이 사회를 맡았다. 또 생명평화의 사회화 · 생활화를 위한 생명평화운동을 펼치는 도법 스님, 일찍이 희망교육을 역설해온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 변산공동체와 보리출판사를 통해 교육운동을 펼치는 농부철학자 윤구병 선생, 순례단에 함께 하고 있는 청소년 등이 교육과 우리 사회의 희망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눴다.

한편 순례단은 오는 7월 6일 진도 기억의 숲에서 4.16㎞를 걸어 최종 목적지인 팽목항에 도착한 후 회향식을 갖고 대단원의 막을 내릴 예정이다.

생명평화결사, 세월호지리산천일기도, 지리산종교연대, 한국작가회의,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붓다로 살자, 예수살기 등 종교시민사회단체 300여명이 함께 동참한 '4.16희망순례단'은 세월호 참사 이후 아픔을 극복하고, 희망의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데 일조하고자 순례를 시작했다. 이들이 걷는 길이 '성찰과 기도의 길' '한국의 산티아고 길'로 이어지길 바라는 염원을 안고, 안전한 생명평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촛불을 들고 희망의 새싹을 피우자는 의미로 인천 연안부두에서 진도 팽목항까지 809.16㎞ 22개 지자체를 걷는다. 특히 순례길에 만나는 사람들은 물론 지나가는 마을과도 교류하며 화합의 씨앗을 뿌리는 데 힘쓰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지역포교 산실' 꿈꾸는 자비신행회

6월 16일 나눔센터 개관 무료식당 · 문화교육 제공



6월 16일 열린 자비신행회 나눔센터 개관식. 깔끔한 인테리어가 눈길을 끈다.

호남의 대표적인 재가불교단체인 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영)가 6월 16일 새로운 나눔센터를 개관하고 지역포교 확대를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올해로 창립 18주년을 맞은 자비신행회는 광주 장동에 기존 건물을 헐고 지상 2층, 400평 규모의 나눔센터를 신축했다. 나눔센터는 1층에 130명이 동시에 식사를 할 수 있는 무료식당과 빛고을사찰음식체험관, 카페 등이 있으며, 2층에는 다도교육실과 다문화사랑방, 한꽃시민선방, 다목적실이 들어섰다.

개관식에는 진화 스님(송광사 주지), 연광 스님(광주불교연합회장), 이화영 이사장 등 불교계 인사와 윤장현 광주시장, 박주선 국회의원 등 정관계 인사, 200여명의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이 참여해 개관을 축하했다.

이화영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자비신행회와 함께 지혜와 나눔의 길을 함께 걸어준 고마운 자원봉사자들과 회원들이 흘린 땀과 따뜻한 정이 쌓여 만든 결실이라고 생각한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진화 스님은 축사에서 "앞으로도 자비신행회가 걸어갈 지혜와 나눔의 길에 늘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하고, 그 성장이 모든 이웃들과 불자들에게 널리 전해지기를 기원드린다"고 말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자비정신의 향기가 나눔센터를 통해 광주에 그윽하게 퍼지고,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편 총 400여 평으로 확장한 나눔센터는 지역포교 및 다양한 복지, 신행 프로그램 등을 강화해 지역포교 산실로 한 걸음 더 도약할 계획이다. 1층 빛고을사찰음식체험관에서는 청년식당, 어린이식당, 어르신식당 등 무료 식당 운영과 사찰음식 만들기 체험교육이 이뤄진다. 또한 한꽃차문화아카데미에서는 다도(茶道)에 관한 각종 교육프로그램이, 한꽃선방에서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찰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참선 · 명상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시민과의 공감대 공직자 노력으로부터"

법선 스님, 공무원 대상 강연

"공직자들이 공적인 의식을 갖고 시민의 권익과 타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시민과의 공감대를 넓히는 데 힘써 달라."

광주 문빈정사 주지 법선 스님은 6월 15일 광주광역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제17회 '시민의 목소리 청해 듣는 날'에 참석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과 평화운동에 대해 강연했다.

이날 법선 스님은 "우리 모두는 타인의 은혜로서 존재하지만 타인을 이롭게 한 적은 별로 없다. 시민의 권익을 지키려면 자기의 권리를 지킬 줄 알아야 하고 그 결과로 타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광주는 공적인 사회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우리 사회가 양극화되고 사색이 사라지면서 정신적으로 황폐화되고 있다. 광주가 인권도시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인권의 진정한 의미를 고민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선 스님은 또 "권력은 언어에서 나오기 때문에 통치자의 언어가 아닌 시민의 언어로 시민과의 공감대를 넓혀 달라"는 당부로 이야기를 마쳤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동대부속 금산中 금산사서 인성교육

1박2일 템플스테이, 고민상담도

동국대 사범대학 부속 금산중학교(교장 조영석)가 금산사에서 인성교육 캠프를 겸한 템플스테이를 체험했다.

금산사 템플스테이 수련원에서 열린 이번 금산중 인성교육 캠프는 6월 16~17일 1박2일 일정으로 학생 35명과 교사 10명이 동참했다.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사찰예절, 스토리텔링을 통한 금산사 역사와 문화재에 대해 공부하고 나눔과 배려를 통한 타인과의 관계설정을 정립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또한 주지 성우 스님과의 대화 시간에는 스님으로부터 청소년기의 진로와 인생의 미래에 대한 법문과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는 사례중심의 상담활동을 했다.

이외에 불교의 대표적인 '효' 주제 경전인 〈부모은중경〉을 통해 효를 바로 보게 하고, 자신이 귀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인식시켜 자살 및 범죄예방에 대비하는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억불사
- 주 지 : 진광(김효성)
- 주 소 : 경남 창원시 북면 월백리 290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8일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법하

易理作名法
(역리작명법)
(당신도 작명대가가 될 수 있다)



이름을 한번 잘못 지으면 평생 후회하게 되고, 다시 개명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일반인들은 작명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위 전문가라는 분들이 함부로 작명하고 개명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옛말에 자식을 낳으면 먼저 그 이름 바르게 지어주어야 부모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름을 지을 때는 반드시 타고난 사주에 맞추어 지어야 한다. 본서에는 이름에 쓰면 절대로 안 되는 불용문자(不用文字)를 수록하였기 때문에 작명과 개명하는데 좋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한다. 특히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대법원이 선정한 인명용한자(人名用漢字) 8,142자 전부를 수록하였다.

易理作名法 (503쪽) 著者 : 孫中山 會長 (전, 대구미래대학 강사)
서점판매가 : 40,000원 (스님 판매특가 : 34,000원)
■ 입금계좌 : 기업은행 530-002326-01-014 (예금주 : 손상용)

韓國陰陽學會 中央會
010-9391-5699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일체의 흙과 물은 다 나의 먼저 몸이요, 일체의 바람과 불은 다 나의 본체이거니 산 것을 풀어서 살려주라.

– 범망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유투브」에서 대명스님를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천수바라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 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역학 · 빙의 퇴마
개인 지도 . 예약 상담
1. 역학 : 사주,궁합,택일,사업운
2.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3. 빙의퇴마,전생요법,심리상담
4. 정신분열,환청,환시,우울증
※ 빙의(신병)출장 퇴마 및 상담
010-3772-4606 제행
서울 지하철4호선 상계역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천도재 49재 점안식
각종 불공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나비무,법고무
호적, 살풀이, 화청
010-4304-0120

저렴한 천도재로 영가가 천도되게 맞춤 천도 합니다
천도재·49재·점안식
이 인연으로 극락왕생 하소서
010-2168-2800
011-850-0176

불사용 달마도
불사하시는스님들을위하여불사나 선물용으로 저렴하게그려드립니다
규격 : 40cm * 60cm / 가격 : 6,000 원
(고급 족자에 그리면 15,000원)
10매 이상은 절이름과스님 법명을 넣어드립니다.
010-2953-8770
농협 919-02-137213 정휘춘 청암 달마원

명예박사학위
취득할 분
미국령상담. 학과자유 선택. (철학, 문학, 정치학, 대체의학 등)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
070-8844-2030

관 상 (손금)
– 스님 특별 비법 개인지도
– 상술, 비법, 질병 전문강의
– 암,묘터,질병,재판,이혼수를 얼굴만 봐도 알수 있다
– 일반인,무속인,철학원,스님
010-4014-8822
(천기누설비법)

배워야 산다
사찰, 포교당을 운영하시는 스님과 법사님 필수조건
명리+귀장술+원인사+조상 찾는법을 단기간에 책임지도
(무료로 배우면서 공양주 하실분 1분)
010-4540-0061
지리산 현담

범음범패 학인모집
천수바라, 나비춤(작법),
염불,송주북, 정근북, 법고
진주시 집현면 진산로 1528-7
010-7579-8200
금륜사 대진 합장

석 하 명 리
논리로 푸는 사주 명리학
속성반 (기초부터 통변까지)
명리 진로적성 상담사 1급 자격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
010-2643-5685
부산경남지역 설운 합장

범음범패 교육
스님, 일반, 남·여 수시모집
바라, 나비춤, 사물 다루기,
살풀이, 극락무, 천도재,
49재, 점안식, 사찰행사
010-3413-5078
010-3653-5151
무상 합장

에너지 테라피
(우주기에너지) 1,2,3단계
인상학, 타로, 파동
성명학 모집합니다
010-6284-6172
문자 부터 남겨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영 통 철 학
1개월 완성
– 바로 상담가능(책임지도)
– 불교 고승비급 전수
– 일반 사주학과는 다름
동국대 불교대학원 졸업 (석사)
010-3936-2295
정광 합장

이조불교용품 재활용센타
(퇴불.철거전문)
개금. 단청. 소불.중.
대불취급. 표구제작
(퇴불시정성것모셔드립니다)
담당 010-9177-7842

부전스님 모십니다
(울산, 60세 이상)
010-3034-2113

비구니 부전스님 구함
숙식거주자,
운전가능자, 30~50세,
월 보시금 100만원
(서울 도봉구 청암선원)
010-3382-8625

무보시로 스님이 없는 사암을 찾습니다. 노승으로써 미안하나마 절을 잘보살펴 드리겠습니다. 인연 기다립니다.
010-3806-846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02)2234-2198
010-8721-2198

절을 함께
운영하실
비구니 스님 모심
(30대 비구니 스님 모심)
010-5564-5211
부산 총무보살

부전스님 모십니다.
행자 모집합니다.
제반의식에 능통하신
스님 연락주세요.
(경북 문경)
010-8819-8988

별똥(운석) 몸에 지니면 일이 잘 풀립니다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이천)
031-641-6311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서울 도심 포교원)
010-3618-6061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큰스님 상좌(행자) 및 출가학교 모집
1. 프로그램 : 무문관체험, 불교교리, 사경, 염불습의, 걷기명상 (지도 : 법사스님), 참선(지도 : 無一우학스님)
2. 교육기간 : 100일 / 3. 참가비 : 무료
4. 대 상 : 50세 미만의 남자 독신 / 5. 문 의 : 010-9562-8228
※ 미혼 청년회도 모집중입니다.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 강원, 기본선원) 뒷바라지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해외도량,복지시설 등에서 활동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27년 전통의 길상불교예술원
(탱화, 단청, 불상 갤러리 운영 전문)
불교미술을 배워서 전문적으로 불교예술원을 기획, 운영하실 인연을 기다립니다.
경북 경주시 보문로 402-31
(붓다의 허브정원 : 탱화 불상 갤러리박물관)
010-5595-8533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50대, 서울 금호동 관음사)
02)2234-3310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大醫王 부처님의 기도치료법을 널리 펴고 싶습니다

총 782P 두권 구입 값 43,800원
입금 확인후 택배비는 저자부담으로 즉시 배송해 드립니다.
• 인류최초로 기도치료법을 가르쳐 주신분은 부처님이십니다.
• 이것을 세계 최초 가장 현대적으로 풀이하여 누구든지 쉽게 배워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위 2권의 서적입니다.
•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기도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자기 자신의 건강 증진은 물론 포교방편으로 삼으면 좋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 세상의 모든 질병들을 치유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담 및 책구입 : 011-557-2773, 010-2093-3385
입금 온라인 : 611038-02-030104 우체국(정보식)
352-0943-7979-03 농협(정보식)

비구니 스님 , 보살님 방사 드림
(1인 1거주, 아파트형 25평)
조용한 산사에서 요양하실 분 / 수행처가 마땅하지 않은 분 / 사찰에서 여생을 보내실 분
양산 통도사 부근
010-4640-4747

불교종단 사암 및 전통문화예술단체 사단법인 등록 | 가입 안내
민법 제32조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 4조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 받았음.
※ 본회에 불교종단 및 문화예술단체 200여 종단과 단체 가입되어 종무 행정을 지원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 세계평화상 제정 상 · 훈장 시상
※ 세계불교승왕청 임원 추대 선임
※ 연 4회이상 연합법회를 통하여 시상 수여와 메시지,결의문 등 발표 기회를 드림
※ 연합불교방송과 신문으로 동영상과 신문으로 기사 홍보
※ 대법원 등기
※ 대한민국불교종단 평화기장 수여
※ 공인단체 각종 시상을 추천 가능
※ 불교대학(문화센터) 개원
※ 수시 종무 행정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세계평화연합법인회 · 사단법인세계평화불교종단연합회
이사장 법왕자 김 소 부
☎ 011-356-3427 (직접 방문 상담)
종단 · 사암 · 개인 홍보 동영상 제작
연합불교방송 편성국장 김병기
☎ 010-5334-9008

수 행 도 우 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냄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선하트조율
하루 10분 수행으로 몸맘 행복한 조율
상·중·하 단전 챠크라 열려 기운 쌩쌩!
스트레스 제로! 피로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휴~ 힐링베개
잠이 스르르~ 저절로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완전해결!
이완이 스르르 저절로 와선심매 100% 체험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알기쉬운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 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cafe.daum.net/9dan9gung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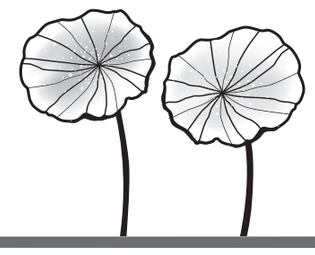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인욕(忍辱)이야말로 가장 높은 고행 긴 고통도 능히 참는 것이 지고의 적멸 다른 중생을 해치는 이는 출가자가 아니며 중생을 괴롭히는 이는 사문(沙門)이 아니다.

- 법구경 -



서울시 사찰 안내

- 서울시 노원구
- 토지 : 210㎡(약70평) • 법당 요사채 마당 주차장 등
- 지하철역 인근 조용하고 살기 편한 사찰
- 가액 : 7억 5천
- 사진 정보 : www.010-3426-9393.com

서울, 경기 사찰 & 포교원 매매 / 임대 급히 구함

이현종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공인중개사 이현종)
주소 : 서울 광진구 뚝섬로52길44 101호
010-3426-9393 / 02-449-0284

경주시 추천 사찰 안내

(www.이박사.com)

- 3층 건물 법당. 요사채. 공양간 • 토지 230㎡
- 주변좋음. 교통편리. 깨끗한 신축 사찰
- 양도가액 : 6억 5천만원 (융자 3억 포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공인중개사

010-7347-1010 (02-430-0284 이박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18길40.가락동프라자@상가 (대표:이규철)

■ 비밀 보장. 방문 접수. 전국사찰. 암자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람"

※ 서울 중랑구 불교용품점 매매 소개합니다.

- 면적 : 60㎡ (20평)
- 보증금 : 1500만원, 월세 90만원
- 물품값 : 6500만원 (오토바이 포함)

가람공인중개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226 (상봉동 128-45호)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 위치 : 경기 이천
◎ 부지 : 60평 ◎ 면적 : 2500평
◎ 법당 : 25평 ◎ 인법당 : 30평,차량진입
◎ 요사 : 30평 ◎ 경관수려,남향,IC인접
◎ 양도가 : 6억 5천 ◎ 양도가 : 6억3천

*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선남면
- 법당 40평, 대지 360평
- 요사채 3동, 산신각, 용왕당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 50만원
- 몸만 오셔서 바로 법회가능

010-8384-7754
하루 전 미리 전화 요망

사찰(급)안내

- 성북구 산중 사찰 양도
- 토지930㎡.이층법당.일층요사.넓은주차장
- 산중에 위치한 접근성 좋은 사찰
- 안정되고 버스진입가능함
- 가액 : 28억원(융자가능함)

010-7347-1010 (02-430-0284)
사무소 방문 부동산 무료 상담
(서울 이박사 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무료상담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신평동
- 대지 : 150평(반지하)
- 법당, 산신각, 칠성각 약 70평
- 스님친견실, 주지실, 종무소, 외 방 3개, 공양간, 욕실, 다용도실, 텃밭
- 완전 몸 만오시면 됩니다
- 가액 : 3억

010-6717-6826

토 굴 안 내

- 위치 : 원주시 부론면 소재
- 여주IC, 문막IC에서15분거리
- 대지180평,전75평,건평30평
- 난방 : 심야보일러
- 대문까지 포장도로,주차장시설
- 스님 토굴용으로 최적
- 가액 : 1억 5천만원

010-7345-1674

경기도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
- 지하철역 인접 / 대로변위치
- 2층 149 ㎡ (약 45평) 방2실 법당 주방 공양간 등
- 가액 : 보 1500만, 월 90만 시설비 무

010-3426-9393 (포교원전문)
02-449-0284

삼보사찰안내

- 위치 : 사하구 / 위치 : 서울 / 위치 : 김해
- 대지 : 750평 / 대지 : 120평 / 대지 : 2,000평
- 법당 : 50평 / 법당 : 25평 / 법당 : 30평
- 요사 : 3층 20평씩 / 요사 : 30평 / 요사 : 60평
- 양도액 : 25억 / 가액 : 12억 / 가액 : 25억

오랜전통 믿음과 신용으로 스님들의 가람을 일심으로 정진 불사하오며 만남의 장으로 환영합니다.
사찰,포교원을 찾는 스님이 많은데 물건이 없습니다.
물건을 많이 주시면 빠른 시일에 성사 시키겠습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무료 부동산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 특징:대지 약 80평 (종교부지)
- 법당 약 26평 (주지실, 삼성각 포함)
- 요사채 약 24평 단독종교법인 사찰
- 가액 : 4억 5천만원

010-5626-5080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남 천안시 목천읍
- 대지 : 173평
- 법당 : 25평
- 요사채 : 28평
- 가액 : 1억 8천

010-2376-5411
041-557-7786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남 함양 마천 지리산(둘레길)
- 대지 152평, 법당 조립식 약 10평
- 요사채 철근콘크리트 약 25평
- 팬션형 2층 건물 바로 앞 계곡
- 공기, 물, 산세, 경치 건강최고
- 기도도량임, 보살님 법사님 환영
- 가액:2억 1천만원(대출가능)

010-3283-773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동림동 새고개 2길 47
- 대지 : 3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30평
- 가액 : 3억

010-8551-3374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괴산 60년된 사찰
- 종교부지 911평
- 목조 건물
- 대웅전 15평, 지장전 11평
- 요사채 23평(황토 목조건물)
- 가액 : 4억(대출 2억 2천) (승계가능)

010-6628-8271

토 굴 안 내

- 위치 : 익산시 여산면 천호동굴 앞
- 삼존불.각종탱화 있음
- 대지.125평
- 산좋고.물좋고.공기 좋은곳
- 동네에서 500미터 떨어진 산 밑
- 가액 : 7300만원

010-9288-6889

사찰안내

- 위치 : 청주시 소재
- 부지:600평(문중땅450평포함)
- 법당: 35 평(2층)
- 요사채: 35평(1층)
- 기타: 산신각
- 가액: 3억5천만원
- 특징 : 청주 톨게이트 인근의사찰로 포교와 기도정진할 사찰로 참 좋습니다.

사찰안내(포교당)

- 위치 : 포항시 소재
- 부지: 40평(2층 방두개)
- 보증금:1000만원(월50만원)
- 시설비:1200만원
- 특징: 도심 번화가에 있으며 시설이완벽하여 곧바로 법회를 볼수있습니다.

동진불사 서울) 010-5848-0455
대구) 010-4942-0455 / 제주) 010-5122-8080
* 전국소재 사찰 양도, 양수 하실분 연락바랍니다.

다용도주택 안내

- 위치 : 경기 양평군 옥천 (다용도 주택)
- 주위편의시설 체육공원, 마트. 관공서, 은행, 전철역,
- 전망 좋음, 대지 257평 건물 40평
- 가액 : 4억 5천 (융자끼고 3억에 입주가능)

010-4234-2536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수도권의 위치
- 목조 단청, 전통사찰로써 웅장하고 아름다운 사찰
- 원하시는 분은 전화로 문의
- 가액 : 9억

010-5466-3321

포교원 안내

- 위치 : 강원도 동해시 45평 단독주택
- 공기맑고 아담하고 담장높은집
- 동해묵호역 항구항만 인접지역 인근에 아파트 대단지 공사중
- 전자제품 생활용품 일체완비함
- 몸만오시면 생활편리 즉시법회
- 시설 건물일체 양도가 칠천구백

010-5458-2955

사 찰 안 내

- 위치 : 전철역에서 5분
- 가액 : 몽땅 1억 6천 (조정가능)

010-8861-1785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괴산 60년된 사찰
- 종교부지 911평
- 목조 건물
- 대웅전 15평, 지장전 11평
- 요사채 23평(황토 목조건물)
- 가액 : 4억(대출 2억 2천) (승계가능)

010-6628-827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시내 10분거리
- 평수 80평, 2층 건물
- 2층 법당 1층 요사채
- 산신각, 창고 건물 1동
- 대중교통 편리함
- 가액:대출 4천만원 양도가 1억 6천 절충가능
- 비구니스님 수행 도량으로 적합

010-8794-1257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서초구 양재동
- 면적 : 3층 약 40평
- 금액 : 보증금 1천만원, 월 130만원 시설비: 3천만원
- 참고 : 10개월 월세 보조 가능

02)571-9197

포교당(급)안내

- 위치 : 포항 남구 청림동
- 상가 2층, 80평
- 법당,공양간, 종무소, 스님방 시설완비
- 가액: 1억8천만원

010-2857-2811

대지 건물(급) 안내

- 위치: 경북 영덕군 창수면 창수리 614
- 산세수려한 전지역 국유림내에 위치한 대지 457평, 건물60평
- 자연 지하수 도로 양호 창건 희망 하는분 최상의 적합지, 1%도 거품이 없는 가격
- 9,500만 검색 또는 현장 답사후 전화주세요

010-8899-8899
010-7621-7621

사찰(급)안내

- 위치: 불국사 부근.
- 대지200평.건평40평.
- 법당, 요사채,방3개,친견실, 공양간,샤워실,화장실2개, 밖에 남,여 화장실 건평18평
- 산신,용왕,나반,대중공양간, 용왕연못,7층탑등,시설일체, 최고입지 조건 갖춘 암자임
- 가액 : 2억5천 사전전화요망

010-5427-369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 5평)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0기 허가득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6288-9067

울산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울산시 다운동 767-6(2층)
- 평수 : 30평
- 삼존불 : 아미타불, 관세음, 지방보살, 관음, 지장보살, 소불 60불, 후불탱화, 미타, 관음, 신중, 칠성, 산신
- 현재 법회도량

010-3558-9016

사찰(급)안내

- 위치 : 강원도 정선읍
- 부지 약 1,700평

대웅전1, 삼성각1, 부처님 진신사리 있음

- 대형돌탑 높이 9m30, 탑둘레 13m 108돌탑, 요사채2, 정자각1, 심야전기, 보일러, 태양광열설치, 대형주차장완비
- 집기일체 법회 바로 가능
- 읍내거리 5분 • 가액: 16억

033-562-0448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마당 22평,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 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버스 정류장 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3900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99만원

010-7409-0490
02)957-0824

득산암 안내

(된장, 간장)

1. 전통항아리, 100년된 전라도 항아리 800개 보유
2. 식품제조공장, 20년 운영, 보유고객 만오천명, 직원 8명 근무중
3. 백화점, 농협 마트, 인터넷 전화주문, 특판행사 진행중
4. 식품제조공장 1동, 법당 1동, 숙성실 1동, 주거용 2동, 심야보일러, 화목구들 1동, 대형 가마솥 7개, 자연수사용, 상수도 완비
5. 9,500평 (전, 잡종지)
6. 스님 및 재가자 환영
7.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명재로 332-108
8. 양도가 : 11억

• 스님께서 원로하신 관계로 매매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문의 전화 : 010-2033-6077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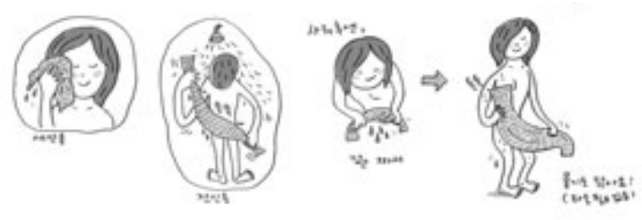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포함)

법회, 환갑, 돌잔치, 칠순 명절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삼베샤워타올 (건포마사지)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 삼베세안타올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 삼베수세미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T.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선불교 사찰서 드럼+법고 연주 '이색 조화'

드럼연주가 마이크 와이즈 · 존뮬러, 사찰서 연주회 열어

드럼을 활용해 선불교 사찰에서 명상적 실험을 하는 두 젊은이가 있어 화제다.

주인공은 미국 시카고 출신의 드럼연주가인 마이크 와이즈와 존 뮬러다. 록 공연을 통해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온 이들은 최근 인근 선불교 사찰에서 독주회를 열어 타악기의 영적 · 공간적 차원에 대해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와이즈는 무반주 드럼 연주곡을 담은 음반 3개를 발매하고 정기 콘서트를 열기도 한 실력파 연주가다. 마이크 와이즈는 "드럼연주가들이 솔로로 연주하는 것을 보면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 드럼 솔로 연주는 매우 대담한 움직임처럼 보여 매력적"이라며 "15년 전 한 색소폰 연주가가 라이브로 솔로연주를 하는 것을 보고 자극을 받았다"고 말했다.

존 뮬러는 솔로공연을 자주 열었다. 그의 연주 대부분은 실존과 영성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룬다. 여러 장의 앨범을 내기도 한 그는 반복적인 패턴과 디지털 도구를 사용해 소리를 내는 것을 피한다. 심지어 음원 다운로드를 받을 수 없게 했다.

이들은 소리 울림이 좋고 아름다운 균형을 보유한 공간을 찾던 중 와이즈가 신행활동을 하던 시카고 선불교 사찰에서 공연을 열기로 마음먹었다. 와이즈는 "뮬러는 시카고에서 솔로 공연을 함께 하자고 제안을 했다. 그는 음향이 잘 울려 퍼질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시카고 선불교 사찰서
신도로 활동한 마이크 와이즈
존뮬러에 '사찰 공연' 추천
"음향 잘 울리는 최적 공간"

특히 이번 공연에서 와이즈는 사찰 주지스님에게 공연과 더불어 불교 의식 때 사용되는 목어(木魚)와 징 등 4개의 법고(法鼓)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 한국 타악기를 공연에 사용하기도 한 와이즈가 사찰 악기를 사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시카고 출신의 드럼연주가인 마이크 와이즈(사진)와 존 뮬러. 이들은 최근 인근 선불교 사찰에서 독주회를 열어 타악기의 영적, 공간적 차원에 대해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출처=시카고리더

"유일한 공통점은 빈 공간에서 압도적인 울림을 역동적으로 소리 낸다는 것입니다. 이번 실험적인 공연이 매우 기대됩니다."

뮬러는 자신의 독특한 음악색깔을 드러낼 예정이다. 평소 소량의 드럼을 사용해 다양한 소리를 내는 뮬러는 이번 공연에서 4개의 드럼을 사용한다.

"드럼과 함께 2개의 공(청동이나 놋쇠로 만든 원반형의 타악기)을 사용해 소리를 혼합할 것입니다. 이런 작업은 저에게 매우 흥미롭습니다. 아주 간단한 움직임을 통해 일어나는 소리의 커다란 울림은 큰 영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는 "곡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녹음한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드럼의 종류와 개수, 연주 스타일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코끼리 습격에 스님 사망 '충격'

스리랑카 불교 축제서 사고 발생

스리랑카의 한 불교사원에 있던 코끼리가 스님을 공격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고자는 카타나 스리 와다나라마 사원의 비구 스님(25).

영국 언론 '메일온라인'은 6월 12일(현지시간) "지난 일요일 밤 3마리의 코끼리가 갑자기 난동을 부리며 스님을 습격했고, 스님은 월요일 아침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여러 색으로 장식한 코끼리는 불교 종교행진과 축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사찰과 부유층 집안은 축제를 열기 위해 코끼리를 소유하거나 빌리기도 한다. 하지만 동물보호운동가들은 코끼리들이 비인간적인 상태로 유지돼 영양실조를 겪는다고 지적한다.

해당 사건이 일어난 곳은 2천만 지역 중 70%가 불자인 곳으로, 이 지역에는 축제로 사용되는 코끼리는 127마리 뿐이다.

19세기 스리랑카에는 약 1만4000마리의 코끼리가 서식했다. 코끼리를 기르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부와 권력의 상징이 됐으며, 수백 년 동안 코끼리는 종교적 활동과 고대 왕들의 전투를 위해 사용됐다.

현재는 약 6000마리의 코끼리를 보유하고 있지만 야생동물들은 서식지 손실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 매년 200마리의 코끼리가 농작물을 보호하려는 농부들에 의해 사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보형 객원기자



스리랑카의 한 불교사원에 있던 코끼리가 스님을 공격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출처=TomoNews

죽기 전 '꼭' 방문해야할 독특한 사찰

허핑턴포스트, 마하보디사원 등 5곳 선정



왼쪽부터 시계방향 인도 '마하보디 사원', 미얀마 양곤 '쉐다곤 파고다', 대만 카오슝 '불광산사',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사진출처=허핑턴포스트

불교 사원은 세계 각국마다 다양한 형태와 양식을 자랑한다. 우리나라는 한옥과 접목한 양식이, 동남아 국가에서는 찬란한 황금빛이 특색이다.

허핑턴포스트는 "불교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 중 하나"라면서 "2,500년 전 처음 인도에서 발원한 후 지구 곳곳으로 퍼졌다. 같은 가르침 아래에서도 여러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사원들이 지어지기 시작했다"고 6월 16일 보도했다. 그러면서 '당신이 죽기 전 방문해야할 독특한 불교사원 5곳'을 소개했다.

인도 '마하보디 사원'

인도 보드가야에 위치한 마하보디 사원은 허핑턴포스트가 소개한 5곳 중 가장 역사가 깊다. 이름은 '위대한 계몽주의 사원'이란 뜻으로, 부처님이 기원전 531년 이곳에 위치한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이뤘다고 전해진다. 기원전 260년 아소카 왕이 이곳을 성지로 조성하며 사원을 지어 현재도 석가모니 부처님과 관련한 4개 성지 중 하나로 꼽힌다. 약 55m 높이의 대형 석탑을 중심으로 소형 석탑들과 부도탑들이 둘러싼 형태다.

미얀마 양곤 '쉐다곤 파고다'

"쉐다곤 파고다는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눈부신 불교 사원 중 하나일 것입니다." 쉐다곤 파고다에 대한 허핑턴포스트의 평가다. 쉐다곤 파고다는 약 100m 높이의 탑이 도금과 수천 개의 다이아몬드, 루비 등으로 장식돼 있다. 꼭대기에는 73캐럿 다이아몬드를 포함해 총 5,448개의 다이아몬드와 2,317개의 루비 및 사파이어, 대형 에메랄드가 찬란한 빛을 내뿜는다. 둘레는 약 426m에 달한다. 기단 부분은 64개의 작은 불탑들이 에워싸고 있다.

대만 카오슝 '불광산사'

대만의 불광산사는 한국인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다. 1967년 설립된 이래 대만불교를 대표하는 총본산으로 자리매김했다. 전 세계 각지에 200여개 분원과 170여개 지회를 보유한다.

허핑턴포스트는 "불광산사는 전통적인 동아시아 디자인으로 설계됐다. 웅장한 신사와 건물을 갖추고 있으며, 대형 사원 단지 내에 수많은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소개했다.

불광산사가 위치한 불광산은 5개 봉우리가 이어져 형성된 것으로, 그 모양이 마치 연꽃의 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풍수지리적으로 불국정토의 조건이라고 일컬어진다.

태국 '왓 프라 담마까야'

담마까야 사원은 거대한 크기와 현대적 디자인으로 유명하다. 1970년에 세워져 역사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100만개의 불상,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홀 등이 돋보인다. 약 100에이커(약 40만4,700㎡)로 유럽 남부 국가인 모나코 면적의 2배에 달한다.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보로부두르는 수많은 탑이 집합체를 이루며, 전체의 모양도 탑의 형상을 하고 있다. 불상 · 부도 · 장식 등이 매우 훌륭한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만다라와 닮은 고안법으로 섬세하고도 정교한 아름다움을 뽐낸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장대하고 복잡한 건축물로 손꼽힌다.

허핑턴포스트는 "5곳 중에서 가장 유명한 불교사원"이라고 평가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빙의치유(영가장애) 상담환영!!

빙의치유도 전문가를 만나야 문제해결이 가능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가족의 행복이 걸린 문제입니다!!

각종 빙의의 구체적 증상

- 사람이 갑자기 어느 시점부터 이상 행동하는 경우 (폭력적으로 변한 경우, 술을 갑자기 많이 먹는 경우, 술 먹으면 눈빛이 바뀌는 경우, 밥을 끊임없이 많이 먹는 경우 등)
- 잠잘적 마다 많은 꿈에 시달리는 경우, 잠잘적 마다 가위 눌리는 경우
- 숙면 취하지 못하고 불면증 심한 경우
- 어느 시점부터 사람이 의욕이 없고 우울해지고, 몸이 마르고, 몸이 천근 만근 무거우나 병원에선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
- 불안, 공포, 무서움증이 심한 경우
- 알 수 없는 머리 두통, 가슴통증, 배아픔 등이 있는 경우
- 환청, 환각 증세가 심한 경우
- 가정불화, 사고 우환이 계속되는 경우
- 중,고등학생이 갑자기 이상 행동, 폭력적 행동, 학습능력저하, 자살충동 일으키는 경우
- 장례식장, 상가집, 국내외 여행 다녀온 후 몸과 마음에 이상 증세 있는 경우
- 여러번 천도재, 굿을 해도 효과 못 보신 경우
- 아무리 센 신기운도 제압, 천도가능 함.
- 신기운, 무병에 시달리는 경우
- 동물(소,돼지,개,닭,오리,어류 등). 식물(큰나무 베고 탈난 경우) 영가도 천도 가능함.

상담해법 문제해결 중심으로 상담 : 빙의치유 전문자격 갖춤

- 차후 지속 관리해 드림 (또 다른 기운이 들어올 수 있음)
- 원격치유 가능 (외국에 있는 분도 치유가능)
- 몸안에 들어온 영가제령, 최고실력 보유 (전국 최고)

상담문의처 | 제주 불교금강선원 (빙의치유영가천도전문상담원)
☎ 064)746-0789 ※ 전국 어디든 상담환영!

오시는길 : 제주시 삼무로 47, 3층 (연동) 삼무공원버스 정류장 하차하여 바로

佛事의 모든것 대원불교 사랑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사랑을 성원해 주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사랑에서는 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및 불교용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철거한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대표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915-17
전화 031)573-3722. 010-7171-2636
010-4037-3722
팩스 031)573-3723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사랑이 되겠습니다

참기 힘든 치아통증, 거친 피부
피부·치아 건강제
건강한 치아, 아름다운 피부를 원하십니까?

참기힘든 치아 통증, 치아건강 백세인생
거친피부, 노화촉진, 피부건강, 청춘인생

약사여래불 보살님의 기도, 가피, 지혜원력으로 건강하여지니 회향공덕하는 마음으로 불자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내산 자연식용재료로 준비하였습니다



스님, 불자님, 충치, 풍치, 시린이 치주염, 아토피, 피부알레르기, 기미, 손발톱 무좀, 각질 등 치아피부가 건강치 못한 분들 연락주시면 3개월 사용분을 보시합니다.

문의 및 보시처 010-6332-6070
안산 법흥사 개운 합장

自恣告白이 주는 밝은 인생

〈자자고백〉



박태수 제주국제명상센터 이사장

명상은 세상과의 소통 ⑬



요즈음 정부는 국무부 장관 임명에 따른 청문회로 진통을 겪고 있다. 여기서 필자가 관심을 갖는 것은 장관 내정자들이 보여주는 자신의 과거 행적에 대한 반응과 태도다. 대부분의 내정자들이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답변했다가 근거를 제시하면 '모른다'거나 '사과한다'고 대답한다. 그런데 그 중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안경환의 고백은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그는 과거 신문 기고와 저서에 쓴 글에서 "음주운전, 운 좋게 적발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차례 있었다"고 자신의 부끄러운 일을 고백했다.

이러한 고백은 국민들이 모르는 일인데 밝힘으로써 그가 '참 용기 있다' '정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그런 잘못을 저질렀으니 장관으로서 자질이 없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문제는 그러한 고백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잘못된 과거를 밝히는 것이 올바른 건지 밝히지 말아야 올바른 건지 혼란이 일어난다는 점이다. 안경환의 고백은 진실을 밝힘으로써 인격적 성숙함을 인정받기보다 오히려 인격적 미숙함을 드러낸 격이 되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진실을 밝히면 오히려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려주었다(사실 이 글을 쓰는 중 안경환은 자진 사퇴했다).

고백으로 푸는 심적 부담

승가에는 안거를 마치고 마지막 날 서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고백하는 자자고백(自恣告白)이 있다. 아마도 장기간의 수행을 통해 에고(ego)를 내려놓은 상태이니 자신에 대한 어떠한 비밀이나 아픔도 고백할 수 있는 힘이 생겼을 것이다. 스님들은 함께 수행한 도반들에게 고백을 하면서 더욱 가벼워진 마음으로 세상에 나오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극락으로 다가올 것이다. 고백을 하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부끄러운 일이거나 잘못한 일들은 정서적으로 무거운 기운을 갖는다. 무거운 기운은 삶을 경쾌하게 하지 못하고 힘들게 한다. 그러므로 그 무거운 마음을 드러내면 가벼워진다. 비록 잘못은 없어지지 않지만 '잘못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부터 무거운 기운이 밖으로 빠져 나오고 몸과 마음은 정화된다.

이 기회에 필자도 상대방의 고백을 들으면서 함께 삶의 기운이 가벼워졌던 경험을 소개하고자 한다. 몇 년 전 '비행청소년 예방을 위한 세미나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상담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질문지를 처리하도록 요청했다. 그 학생 중에 M군이 컴퓨터를 잘 다루기 때문에 이 일의 책임을 맡겼다. 그리고 모두의 도움으로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나는 그 자료를 분석하여 세미나 원고를 작성하였으며 발표도 무사히 끝냈다. 이후 학생들과 힘들게 작업했던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냈다.

몇 개월이 지난 뒤 나는 M군에게 다른 일 하나를 더 부탁하여 도움을 얻고자 하였다. 그런데 M군은 "저는 이미 다른 일이 계획되어 있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 순간 다소 무안함을 느끼며 돌아섰다. 그러면서 M군이 나에게 뭔가 서운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나 그때는 그냥 넘어갔다. 그리고 그 후로 몇 번이나 M군과 마주치는 일이 있었으나 더 이상 부탁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고, 왠지 마주 대하기 어색함을 느낄 수 있었다.

얼마 뒤 '동사섭 수련회'에서 나와 M군, 그리고 다른 학생이 같은 방을 쓰게 되었다. 이틀이 지날 때까지 우리 세 사람은 가끔 프로그램을 통해 얻게 된 여러 가지 새로운 지식과 느낌들을 나누었고, 그러는 가운데 나는 M군이 언뜻언뜻 불편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M군은 어떤 이야기 가운데 문득 "교수님한테 서운한 게 있습니다"라고 말했고, 나는 그런 그의 마음을 받아 "그래, 나한테 서운한 게 있다고"라며 가볍게 넘겼다.

나흘째 저녁, '절 명상(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큰절을 함)'에서 나는 그야말로 가장 존중하는 마음으로 M군에게 큰절을 세 번 하였다. 그리고 그를 껴안았다. 그 순간 M군은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의 아픔을 가슴으로 느끼며 정성을 다해 등을 토닥거려 주었다. 마지막이 되는 엿샛날 아침, M군은 약간 상기된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와 "교수님 실은 지난번 질문지 처리 후에 교수님이 세미나 발표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만 저에게 아무런 말씀이 없어서 서운하였고, 그래서 그 뒤 교수님이 다른 일을 부탁하셨을 때 일부러 거절했습니다"라고 말했다.

> 내면의 행위자 · 관찰자가
>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
> 자기 관리 결과 달라져
> "에고 내려놓아야 빛난다"

'아차, 내가 이렇게도 어리석다니.' 나는 그 순간 가슴이 뜨끔하고 부끄러워 M군의 얼굴을 바라보기가 민망스러웠다. 닷새 밤을 함께 지내고 나서야 비로소 M군은 나에게 속 깊은 마음을 보여주었다. 속마음을 꺼내기가 그렇게 어렵다. 그도 그렇게 마음을 꺼내는 게 힘들었지만, 나는 세미나 발표를 마치고 그 자료를 처리해준 M군에게 '덕분에 발표 잘 했어'라는 감사의 한마디도 못했다는 것에 대해 참으로 부끄러웠다. 나는 이러한 순간을 맞이하면서 기억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나의 어떤 행위가 수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 밑바닥에 회한(悔恨)의 물결이 일었다.

있는 그대로 드러내자

앞에서 장관 내정자들의 '행적'을 얘기하면서 관심을 갖는 것은 '행적'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이 단어의 의미는 한 개인이 남긴 발자취를 말한다. 눈 위에 사람이 지나가면 사람의 발자국, 소가 지나가면 소의 발자국, 차가 지나가면 바퀴 자국이 남는다. 안경환이 말한 "운 좋게 적발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차례 있었다"는 말에서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라는 말이 단단한 발자국처럼 지워지지 않는다. 이는 습관적인 음주운전이라는 의미를 갖게 한다. 그런 사람이 장관이 되든 안 되든 살면서 또 음주 운전을 자신도 모르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습관은 자신도 모르게 하게 되는 행동이다. 몇 년 전에 어느 교회의 목사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다. 그때 목사의 행적을 보면 목사가 되기 전에 성폭행한 전력이 있는데, 스스로 그러한 행위에서 벗어나고자 작심하고 목사가 되었다고 했다. 적어도 목회 일을 하는 한 그런 욕망을 조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욕망을 조절하지 못했고 자신도 모르게 성폭행을 저지르고 말았다. 본인이 생각해도 자신이 얼마나 한심스러웠을까. 본인은 의식적으로 개과천선(改過遷善)하겠다고 다짐했지만 무의식에서는 그 욕망이 들끓고 있었고 그는 이를 어찌할 수 없었던 것이다.

자자고백은 자기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데 깊은 의미가 있다. 내 안에 무거운 것이 있든, 탐욕이 있든 그것을 드러내어야 삶이 가벼워진다. 생리적이든 심리적이든 내 안에 무언가가 들어있어서 나를 불편하게 한다면 그것을 내어 놓고 가볍게 살아갈 필요가 있다. 마치 용변을 봐야 하는데 보지 못하고 간직한 채로 비행기나 버스를 탔다고 가정해 보자. 볼 일을 봐야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므로 옆 사람과 얘기를 나누거나 책을 보거나 창밖을 보더라도 어느 것 하나 집중할 수가 없다. 심리학에서는 이처럼 시급한 과제를 전경(前景, figure)이라고 하는데, 매순간 우리 의식의 초점이 되는 것을 말한다.

건강한 개인은 전경으로 떠오른 과제를 해소하고 새로운 전경을 맞이하지만 전경이 해소되지 않으면 그것은 미해결 과제로 남아 새로운 전경을 맞이하는 데 방해를 한다. 그리고 해소되지 않은 전경을 해소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므로 결국은 자신의 삶이 고갈되고 만다.

앞의 사례에서 우리는 M군이 자신의 아픈 마음을 나타내기까지 많은 시일이 걸렸음을 볼 수 있었다. 마음공부를 하는 집단 활동에서 M군은 조금씩 자신의 마음을 볼 수 있게 되고, 나와의 친밀감이 형성되면서 점차 자신을 노출할 힘이 생겨난 것이다. 다행히 나는 M군과 같은 방을 사용하며 자주 만날 수 있어서 마음을 나눌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M군의 아픈 마음을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어리석음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인간의 내면에는 두 사람이 존재한다. 한 사람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행위자로서 존재하고, 다른 한 사람은 그러한 행위자를 끊임없이 바라보는 의식이라고 하는 관찰자로서 존재한다. 행위자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느끼며, 무언가를 실행에 옮기는 일을 한다. 그러면 다른 한 사람인 관찰자는 행위자가 하는 일을 관찰하면서 상황에 적절하면 그 일을 지속하고, 부적절하면 상황에 맞도록 조절하거나 멈춘다. 이 두 사람은 함께 할 때만이 온전한 자신의 모습으로 존재한다.

살면서 자기를 잘 관리한다는 것은 바로 행위자와 관찰자가 어떻게 만나느냐에 달려있다. 자기 자신이 잘 관리되어야 자기를 넘어 세상과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고, 세상과의 관계가 잘 되어야 비로소 자신의 일(역할)도 잘할 수 있다. 안경환의 경우 음주 운전이나 상대여성 몰래 혼인 신고한 사실을 본인이 모를 리 없건마는 자신이 한 행위를 올바르게 통찰하지 못함으로써 마음의 관리는 물론 관계관리, 일 관리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다행히 자진 사퇴함으로써 자신의 운명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막을 수 있었지만 이 과정에서 보여준 그의 낮은 의식과 탐욕은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준다. 자기성취에 대한 욕망이나 세상에 대한 욕망은 균형을 이룰 때 아름답다. 그보다 아름다운 모습은 자자고백으로 에고를 내려놓을 때 더욱 빛난다.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좋은인연 대출안내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현대불교신문
구독 문의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문의 전화 : 02)2004-8200



대행 스님

내 탓으로 돌려서 잘못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알기 때문에 법계에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 한 사람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의식들이, 수십억 개의 의식들이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깐 아무도 모르게 해도, 아무도 모르게 조건 없이 그 좋은 일을 한다 하면, 바로 내가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또. 나는 심부름꾼으로서 그 사람의 거를 그 사람으로 돌려서 어떡하면 잘 써 주나 이거지 내가 좋은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걸 잘 들으세요. 심부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너도 나도 둘이 아닌 까닭에 다 서로가 공덕이 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요렇다 조렇다 말로 형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난 사실 돈이 그립거나 그래 본 예가 한 번도 없습니다. 일 푼어치도 없습니다. 그 많은 돈을 그렇게 저거 했어도, 어떤 때는 신도들이 가져오는 것도 그 집 봐서 거기서 삼만 원이면 삼만 원, 만 원이면 만 원 딱 꺼내고선 도로 줍니다. "네가 잘 살아야 나도 마음이 편안하니까 말이야." 하고 주고 빚을 얻어 가지고 온 거라면 빚 갚으라고 도로 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더 붙여 줍니다. 왜냐?

사람이 아주 없을 때는, 하다못해 여기 돈으로 따진다면 100불, 100불이라도 어디서 나왔다 하면 그것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먹지 못하고 있다가 그걸 가지고서 먹을 걸 사다가 오손도손 식구들이 앉아서 먹을 때 얼마나 한숨이 훅 나가겠습니까. 이 모두가 상대방의 그 어려움을 내 어려움같이 생각하고, 내 아픔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부드럽게 해 나갈 수 있다면 남을 원망 안 합니다. 어떠한 일이 와도 남을 원망 안 합니다. 왜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탓이니까. 잘했든 못했든 말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부딪침이 있고 말 상대가 있고 인연이 돼 있는 거지, 내가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린다면 그것이 나중엔, 여러분이 실험해 보시면 알 겁니다. 내 탓으로 돌려서 잘못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 탓으로 돌리니까 그쪽에서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러 오고 외려 더 친절해졌다는 사람들이 하고많습니다. 이 건건이 살아나가는 데에 인연에 따라서 모든 게 돌아가지 않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한 가정도 그렇고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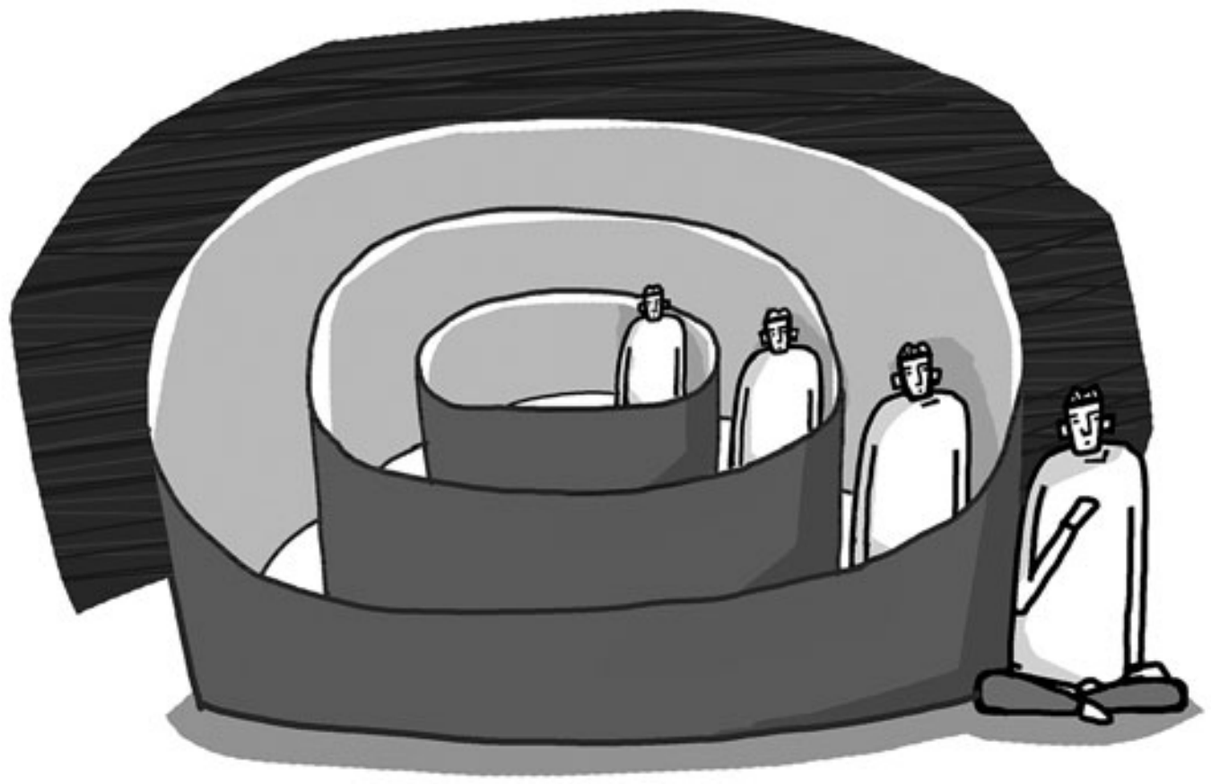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내가 이런 말 저런 말 왜 하느냐 하면 모든 게 그 살림살이에서, 모두 그 마음에서 빚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빼놓지 말고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이 세상을 알고, 이 세상을 들이고 내고 하고 가는 이 자체가 바로 내 주인공이 하는 거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아예 몽땅 줘서 생각을 해 버리라는 얘깁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송장이죠? 생각이 없다면 목석이죠? 육신이 없다면 무효죠? 삼합이 같이 돌아가면서 작용을 하니까, 이것이 바로 주인공의 원리란 말입니다.

나만 또 여직껏 얘기했네요. 하여튼 질문하십시오.

질문자1(남) 이렇게 또 한 말씀 해 주시려고 먼 길을 와 주셔서, 정말 뭐라고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선원에 나온 지도 얼마 안 되고 아는 것도 없고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참 궁금한 것도 많습니다. 질문이 좀 유치하더라도….

큰스님 아뇨, 유치한 건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유치한 게 어디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질문자1(남) 널리 이해해 주시고 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님 법문을 듣다 보니까 동물을 피치 못한 일로 죽였을 때 자기 한마음에 거둬들이면 그 동물이 다시 사람으로서 자기 마음속에 환생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이 죽으면 천도를, 자기 갈 길을 가라고 천도를 하는데 제 의문은 동물이고 사람이고 간에 스님 같으신 분께서 한마음으로 다 들일 수가 있을 텐데 왜 제 갈 길 가게 하는지 그 점이 첫째 질문이고요.

큰스님 그런데 이것이 법원에 가면 십 년을 받고 무기징역을 받고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데 그분은 딴 검사가 다 해 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새로이 검사나 판사가 들어가서 해결할 일이 못 되죠. 그와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만약에 소가 지나가는데 도살장으로 끌려간다 합시다. 그런다면 그거는 누구도 개입한 예가 없단 말입니다. 누구도 개입한 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얼른 쉽게 말해서 그냥 그 즉시 나로 하나로 집어넣는다면, 그러면 거기 들어가기 이전에 벌써 사람으로 환생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는 도살장에 가서 맞아도 아픈 줄을 모릅니다, 안락사처럼. 아픈 줄을 모르고 무명을 벗습니다. 그럼 됐습니까?

그리고 천도도 그렇습니다. 생전에 살면서 이 도리를 모르는 사람은 내 몸속에 들어 있는 그 악업 선업의 그림자에 밟혀서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부부지간이나 자식지간, 동료, 그 모두 동구 바깥에서 인사를 하고 갑니다마는 그 악업 선업의 그림자는 떠나질 않습니다. 자기 영혼에 딱 붙어서 그냥…. 그러니까 그 의식들에 묻혀서 한 발짝도 떼어 놓을 수가 없으니까, 이 도리를 모르니까 자기가 체가 있는 줄 알아요. 자기가 환상인 줄 모르고 이 체가 있는 줄 알고 그냥 한 발짝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떡하다가 벗어났다 하더라도 강을 건너가야 하는데 빠져 죽을까 봐 못 건너갑니다. 내 이 몸뚱이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지금 살아서 없는 줄 아셔야 합니다, 하하하. 그런데 그렇지 못해서 죽어도 있는 줄 알기 때문에 배가 올 때를 기다리고 거니는 겁니다. 불바퀴를 넘어서야 할 텐데 타 죽을까 봐 못 들고요. 그러니 세 조건이 다 없는 겁니다, 아주. 그러니 천도가 생긴 겁니다. 눈 뜬 사람을 통하고 귀 뜬 사람을 통해서, 그런 사람의 길잡이를 통해서 말입니다.

지금도 각 절에서, 원효 대사가 사자 새끼가 죽었는데 거기다 대고 목탁을 치고 염불을 하니까 대안 대사가 "허, 그렇게 염불을 해서 천도가 될 건가?" 그러고 그 바가지에 얻어 온 젖을 사자 새끼에게 끌어다가 먹였단 말입니다.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어느 사찰이든, 사찰뿐만 아닙니다. 어느 종교, 티베트 불교든지 일본 불교든지 한국 불교든지 모두 이게 기복으로 하는 데는, 부처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대로 그냥 하다 보니까, 그것도 그대로나 하나요? 제대로 그대로 못하는 점들이 많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중들이 마음이 넓어야 천도를 시키는 그 영혼도 들어와서 중의 마음과 같이 동시에 알아짐으로써 이 시야가 넓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중들이 요만한 교자상에다 크게 잘 차려 놓고 이렇게 할 때 그 중들이 이렇게 잘 차리고 한다는 것만 알았지 우주의 섭류의 그 모든 문이 여여하게 열린 줄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들이 마음이 얼마큼 넓으냐에 따라서, 하다못해 찹쌀떡 하나 갖다 놓고 제사를 지내도 이 세상 전부 그 영혼의 거니까, 그 세상 모든 중생들을 다 먹이고도, 모든 조상들을 다 먹이고도 그 떡 하나가 되남더란 얘깁니다. 천도를 시켜도 이쯤 돼야 천도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목탁 치고 염불만 한다고 천도가 아닙니다. 영계를 만나서 얘기할 줄 알고 교류할 줄 알고, 그래도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지금 가고 뭐를 하고 있는지 그쯤은 알아야 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천도도, 아까 소가 지나갈 때 그것도 천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천도하고 이 천도하고는 또 다르죠. 왜냐하면 아무 조

☞ A18면으로 계속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삶은 고가 아니다

길을 묻는 이들에게 전하는 대행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 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yunbulshop.com

▶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 신행요전 (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 • 법어 • 계송 • 선화의 집대성
▶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금강경 (독송용)
▶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천수경 (한글/영어)

*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내가 여기 오지 않았다고 해서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 A17면에서 계속

건도 없어야 할 텐데 이 한 사람을, 내가 이거는 아주 철저하게 실험해서 체험한 거니까요. 이 한 사람을 건져 주려면 몇 집을 돌아쳐야 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연결 연결 돼서 말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게 막아지고 그걸로 인해서 저게 막아지고 죄 이렇게 되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천도도 가지가지에 의해서 용도에 따라서 주어지는 거고 그러니 그 천도도 천차만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천도라는 건 한마디로 그냥 천도지마는 그 천도의 가짓수는 나름대로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주어질 테죠.

질문자1(남) 두 번째 물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몸을 받기도 어렵고 또 일단 사람으로 태어나면 그냥 갈 수 없다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질문은 낙태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미국을 보면 이 낙태 문제 때문에 낙태 수술을 해 주는 병원을 사람들이 막기도 하고 못 들어가게도 합니다. 또 낙태하는 것을 여성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인간이 태어나려면 정자와 난자와 함께 영혼이 삼합이 합쳐져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태아가 형성될 당시에 벌써 하나의 인간이, 몸은 아직 발전되지 않았지만 하나의 인간이 그 안에 들어 있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세속 법에서도 그렇게 사람을 죽이면 큰 벌을 받는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사실 그걸 좋아하고 잘한다고 하는 사람은 없지만 큰 죄의식을 갖거나 사회 문제로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낙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을 죽이는 걸로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인연으로 어떻게 얽혀져서 그렇게 일이 된 줄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스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스님 그것도 여러 가지죠. 원인에 따라서, 어떻게 됐기에 낙태를 했느냐에 따라서 더하고 덜함에 죄가 있겠죠. 어쩔 수가 없어서, 남편의 배신으로 어쩔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수도 있고요, 또는 여자가 배신을 하기에 그렇게 하는 수도 있고요, 또는 돈벌이를 해 가지고 나중에 어린애를 낳고 살자 해서 낙태하는 수도 있고요, 여자애를 많이 낳았기 때문에 남자애가 영 생기질 않아서 자꾸 낙태하는 수도 많고요. 여러 가지가지겠죠. 말로 어떻게 다 하리까.

그런데 서울에 산부인과 의사들 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낙태하는 숫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낙태하는 숫자를 생각해서 그냥 그걸 정성을 들이려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네 마음의 영에다가 영을 만 개를 넣으면 몇 개가 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았으면 됐소!" 했습니다. 그 전에는 건건이 일이 터져 가지고는 문도 닫게 되고 뭐, 여러 문제들이 발생되고 건건이 그랬습니다마는 이 공부를 그네들이 하고부터는 그렇게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태어나려고 딱 70살이고 80살이고 주어져서 인제 잉태가 됩니다. 그러는데 중간에서 그냥 탁 치워 버리니까 그 영혼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만약에 70살까지 살 나이라면 70살까지 허공에서 돌아야만 됩니다, 기한까지는. 이게 자연적인 법칙에 의해서 조금도 에누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그렇게 놓고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도리를 배우는 사람에 한해서는 바로 그냥 자기가 돼 버리는 거죠. 돼 버려도 두드러지지 않죠. 빗물이 바다로 수많은 방울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두드러지지 않죠? 이 한 그릇의 물을 한 그릇의 물에다가 이렇게 부은들 그냥 한 그릇이죠. 그와 같이 두드러지지 않는 것을 또 이 주인공에 의해서 줄을 놔서 내보낸단 말입니다, 좀 더 좋은 데로.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이 세상을 알고,
이 세상을 들이고 내고 하고 가는 이 자체가
바로 내 주인공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악행스럽게 죽여야만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렇게 죽이지 않으면 안 되리만큼 됐던 그 가정에 다시금 태어나지 말라 하고 한 번 염원을 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청와대에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 청와대에 들어갈 때는 아주 자연스럽고 쉽죠? 근데 청와대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들어갈 때는 검열이 심하고 못 들어가죠. 그와 같습니다. 이 지금 우리가 주인공에다 모든 것을 맡겨 놓고 일임하고 이렇게 믿고 나가는 데는 이 블랙홀이라는 이 핵심적인 거기 문을 자유스럽게 드나들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할 때는 언감생심 거기를 어떻게 드나듭니까?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거기 직원으로서 배지라도 얻어야 거길 다닐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인생의 조건은 그 청와대에서 나오는 건데…, 하하, 이건 청와대 아닌 청와대를 말합니다.

그 블랙홀, 핵심적인 거기에서 모든 인생의 차원이 주어지는 건데, 어떻게 살고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입력이 됐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 것도 그렇게 한다면 그 죽은 아이도 오히려 천도가 되고 외려 천도를 시켜 줬으니 고맙게 생각할 거고, 그러니까 일은 더 잘되고 산부인과 일은 자꾸 걸리기만 하다가 아주 걸리지도 않고 잘돼 나가고 그럴 수밖엔 없죠, 걸리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깐 보이는 데 문제보다도 보이지 않는 데서 문제가 더 크다는 얘깁니다. 이렇게 상세히 얘길 해 드리다 보니까 하이 참, 이상스러운 것 같습니다. 하하하.

나는 어떡하든지 여러분이 편리하고 되는 조건으로 자꾸 얘기를 해 드리거든요. 뭐, 죄가 있어서 안 된다, 너는 무슨 업이 있어서 못한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이 불바퀴에다가 갖다가 넣으면 타 버리는 거와 같고, 자력이라는 것은, 즉 말하자면 그 뭡니까? 큰 자석 덩어리가 있는데 쪼끄만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냥 큰 데 붙으면 그냥 하나, 하납니다, 하나. 하나로 돼 버리고 말죠. 그와 같은 겁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참 생각하기에 달려 있고, 그 생각하기에 달려 있는 반면에 생활이 윤택해질 수도 있고, 생활이 급박해질 수도 있고, 생활이 완화될 수도 있고, 다복할 수도 있는가 하면 극치적으로 그냥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유스럽게들 못하는지 나 그것이 좀 이해가 안 가는 점이 많아요. 도시락 싸 가지고 나왔다가 뭐 그렇게 오래 살다가 가겠다고 그렇게 하는지….

질문자2(남) 오늘 처음 나와 가지고요, 저는 교리에 대해서, 방금 앞에 질문하신 분은 그래도 제가 듣기에 상당히 전문적인 용어도 쓰시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것도 하나도 모르는 그런 단계입니다. 제가 스님 말씀하시는 데 가장 깊은 감명을 받은 것은 자유인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곧 자기 마음속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공부는 그걸 찾는 길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여러 의식이 존재한다고, 제 육체 속에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런 의식 중에 어떤 것이 내 참의식이고, 소위 말해서 접근 방법, 수행 방법이 과연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제가 가장 궁금스럽게 생각하는 것은요, 제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스님과 같은 분들은 불교에서 더 오를 수 없는 경지에까지 오르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아까 오신통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거기 위에 어떤 도인의 경지라는 말씀으로 제가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그 오신통의 경지를 넘어선 도인의 경지라면 자기의 과거나 미래사를 충분히 다 꿰뚫어 보시고 이미 다 보신 상태라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과연 스님의 과거는 어떠했고 미래는 어떠한지 이것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하하하. 아이, 당돌한 질문이지마는 좀 말씀해 주십시오.

큰스님 아이, 좋아요. 그런데요,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고, 알고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까 없고, 현실은 공해서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니까,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니까 그것조차도 없더라 이겁니다. 하하하. 그런데 만약에 내가 꼭대기까지 올라갔다면, 다시금 꼭대기다 아래다 없이 아예 그냥 같이 요리를 해서 모든 여러분과 나와 동시에 같이 더 올라가고 더 내려가고도 없이 아, 평등하게 같이 나누어 먹겠습니다.

질문자2(남) 지금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하신 거고요, 첫 번째, 자유인이 되는 길, 자기 진짜 나를 찾는 길, 그 수행 방법을 스님의 경험을 통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큰스님 그럽시다. 그런데요, 나의 경험을 통해서 꼭 듣고자 하신다면…, 나는 아버지도 참, 지금으로 생각하면 장군으로서 유명 인사였었고 또 가정도 부유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걸 모르다 어려서 모두 일본 사람들한테 어떤 제한을 받은 것 같아요, 어려서 모르긴 하지만. 그래서 다 뺏기고 식구가 산중으로 들어가게 됐고, 그랬기 때문에 묘지 옆에서 자지 않으면 안 됐고 그런 문제들이 벌어져 있었죠. 그래서 그랬는지 식구가 모두 제가끔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되리만큼 돼 있었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립고 엄마도 그립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누구더러 엄마니 아빠니 뭐, 이렇게 부를 수가 없으니까 안에다가, 어려서부터 '아빠!' 이렇게 불렀답니다. '아빠! 아빠만이 밥 굶는 사람 그런 거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야.' 그러고 '해 줄 수 있을 거야.'를 떠나서 내가 극치적으로 죽겠으니까 죽겠으면 그냥 '아빠' 하고 붙들고 울었을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아빠가 지금 내가 말하는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이 틀림없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너무 감응이 오고 그러는데도 믿지를 못해서요, 허허, 나도요. 어린 마음에 '아빠가 정말 있다면 내 손을 좀 들어 봐.' 이렇게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들어 보랄 때는 안 들어 보이고 그냥그냥 무심하게 그냥 이렇게 돌아서서 저거 하면 '내가 여기 있다.' 그러듯이 팔이 번쩍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아하! 있긴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인제 내가 글을 모르는데 글을 써도 내 손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 아빠로부터 쓰게끔 돼 있었고, 말을 해도 아빠로부터 지금 말을 하는 거지 내가 그놈의 거를 뭐 책을 봐서 어떻게 그걸 일일이 얘기합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이 팔만대장경이거든요. 다른 거 없어요. 글로, 책으로 어떻게 세상 돌아가는 걸 다 써 놓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때에 따라서는 다 그저 먹게끔 돼 있고 주게끔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걸림이 없고, 대권이라고 할까? 그런 한마음의 대권은 여여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과 같이 나누어서 대권이지 나 혼자만의 대권이 아닙니다. 천상천하에 유아독존이라고 한 부처님의 말씀을 한번 새겨 봅시다.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은 바다에서 제일이고 또는 나라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위대하고, 농사짓는 사람은 농사짓는 대로 농사꾼으로서 위대하고 전부 손가락 하나도 버릴 게 없고 전부 위대하다고 한 겁니다. 전부 위대하다. 작든지 크든지 다 위대하다. 작은 게 있기 때문에 크게 보였으니까, 그것도 한 몫하니까 모든 게 위대하다. 그래서 천상천하에 유아독존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 "나 하나만 위대한 게 아니다. 모두가 전부, 천상천하의 모두가 다 위대하니라. 그리고 나 아님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리고 내 아픔 아님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리고 내 자리 아님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리고 부처는 중생 속에서 나왔고 중생은 부처 속에 있느니라." 이랬습니다.

질문자2(남) 감사합니다.

큰스님 그러니 지금이라도 꼭 참선을 하시려고 든다면 앉아서 좌선하는 것만이 참선이 아니라 그저 서나 앉으나 일하나 내가 생각나면 거기다 맡겨 놓고 '나는 믿어! 당신만이 나의 물리를 틔게 해 줄 수 있고, 참나를 발견하게 할 수 있는 것도 당신밖엔 없어.' 하고 거기에 모든, 어떠한 가정의 용도라도 거기에 놓고 지켜보는 것이 참선입니다. (합장하시고)

그리고 내가 여기 오지 않았다고 해서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데서 여러분 마음먹는 대로 그 에너지는 충족될 것입니다.

※ 위 법문은 1992년 6월 28일 오하이 오지원 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

| 불자 세상보기 |

'분노조절장애' 사회와 共業



허남결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외벽 도색하던 하청노동자
음악 듣기 싫어 생명줄 끊어
인터넷 늦다고 수리기사를
시비 끝에 칼부림 살해해

연이은 분노조절장애 살인
얼마나 부도덕한 사회인가

최소한의 공동체 의식 필요
불자들부터 자비심 나누길
사회적 차원 안전망도 절실

아파트 외벽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도색 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의 휴대폰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밧줄을 끊어 추락사하게 만든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뿐만 아니다.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는 신고를 받고 자신의 집을 방문한 인터넷 수리기사를 사소한 시비 끝에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다. 소중한 남의 목숨을 빼앗은 범행의 동기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한심한 이유들이 아닐 수 없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을 지경이다.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험악한 세상이 되고 말았는가.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일어나면 범죄 심리학자들은 한국사회의 '분노조절장애' 범죄가 도를 넘었다고 진단한다. 다양한 종류의 원인분석과 함께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최근에는 분노조절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신과치료를 적극 권유하는 전문가들도 많아졌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를 모두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희생자의 가족입장에서 보면 넉넉하지 않은 가정형편에서도 서로 의지하면서 화목하게 산 죄밖에 없는 그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생긴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생각할수록 억울하기만 할 것이 분명하다.

밧줄이 끊겨 생명을 잃은 사람은 5남매의 아버지이자 한 여자의 지아비로서 성실하게 살던 평범한 가장이었다. 인터넷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고객의 집을 방문했다가 비명횡사하게 된 다른 한 사람은 노모를 모시고 대학생 자녀 둘을 뒷바라지 하던 재취업 기술자였다. 그는 '동네 사위'로 불릴 만큼 주변사람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웠다고 한다. 우리는 그런 이웃사촌들을 너무나 허망하게 잃고 말았다. 두 사건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병든 사회인지 그리고 얼마나 부도덕한 사회인지를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와 같은 사회를 만든 것은 나 이외의 다른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한사람도 빠짐없이 공업(共業)의 수혜자임과 동시에 공업(共業)의 기여자들이기 때문이다.

다소 진부한 말로 들릴지 모르지만 최소한의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고 확산시키려는 윤리적 성찰이 무엇보다 요청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다. 그동안 너무 빨리 달려왔을 뿐만 아니라 너무 많이 가지려고 아귀다툼한 업보를 받고 있는 것이리라.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다. 각자의 위치에서 나부터 조금씩만 욕심을 내려놓기로 하자. 자본주의 체제를 수용하는 이상 개개인의 사적 이익추구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다만 현재와 같은 무한경쟁을 당연시하는 사회 분위기는 지금부터라도 자제되어야 마땅하다. 이럴 때일수록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더 나아가 부처님의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불자 이웃끼리라도 자(慈)와 비(悲)의 마음을 서로 주고받았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을 향한 적극적인 마음씀씀이를 의미하는 자(慈)와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참여하는 소극적인 마음나누기로 이해되는 비(悲)의 실천은 그렇게 먼 곳에 있지 않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남들에게 갖는 작은 관심만으로도 충분한 것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사회적 차원에서도 안전 시스템의 제도적 확립과 유지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불행한 두 사건을 계기로 공업의 엄중함을 깨달음과 동시에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자비심이라도 실천하자는 사회적 캠페인이 들불처럼 일어나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社說

신도교육, 전문성이 중요하다

조계종의 신규 신도교육기관인 신행불교대학이 6월 21일 최종 선정됐다. 16곳으로 140여 기존 불교대학과 함께 신도 양성의 산실로 자리할 것이다.

신행불교대학은 그동안 불교대학을 운영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소규모 사찰들에 신도교육을 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준 성격이 강하다.

열악한 사찰 환경을 고려해 교육이수 시간부터 강사진 구성, 정원기준까지 대폭 완화됐다.

이런 대중화가 자칫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사찰이 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방식을 선택했고, 이런 개별 교육을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

실무 차원에서는 많은 문의 전화 대부분이 조계종 인가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란 하소연도 들려온다. 이런 상황에서 개별 교육에 대한 관리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가장 먼저 대안으로는 개별 교육과 함께 선택적으로 진행하게 한 디지털 대학 제공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찰ID를 통해 접속하고, 영상 방영 시간 등의 기록이 남기 때문에 개별 교육에 비해 관리가 가능하다. 인터넷을 통한 동영상 강의가 힘든 사찰환경의 경우 빔 프로젝트 등 교구재를 포교원이 지원하는 방안도 있다.

신도교육은 대중화와 전문화의 두가지 토끼를 잡아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전문적 교수법이 도입된 체계적 신도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단순히 과외 수준의 교육에 지나지 않는다면 신도교육 대중화의 취지가 무색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제주4.3 재조명, 불교사 바로잡는 길

국가권력에 의해 승가의 위상과 스님들 인권이 유린당한 불교계 대표 사건은 1980년 벌어진 10.27법난이다.

이는 한국불교계 현대사의 치욕이자 신군부 정치적 시나리오에 불교계가 짓밟힌 사건이다. 이 사건은 발생 20여 년이 지나 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노무현 정부의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를 통해 '국가권력 남용사건'으로 규정됐다. 이후 2008년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며 과거사 치유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 1947~1954년 제주도서 남로당 무장대와 토벌대 간 무력충돌로 빚어진 주민희생 사건인 제주4.3은 불교계와 거리가 멀다는 인식이 높다. 10.27법난처럼 탄압대상이 불교계에 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주4.3 당시 불교계 피해는 상당한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사찰 법당과 요사채 등이 전소되거나 불상·탱화 등이 훼손되고, 특히 14개 사찰 16명의 스님들이 총살·수장되는 등 반인륜적 피해를 입었다. 제주불교연합과 제주도의회 길상회는 이 같은 문제를 알리고, 불교계 차원서 역사를 조명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제주불교계의 움직임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지는 미지수다.

내달부터 4.3피해 사찰순례와 영가 헌다례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사회적 공의가 모이지 않으면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불교계는 뜻을 모아 선대 스님들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헤아려 역사를 재조명하고, 추념사업에 나서야 한다. 국가권력의 만행을 후대에 알려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때 이 땅의 민주주의가 바로서고, 불교계의 위상 또한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사유의 숲을 거닐며
송마나 작가

백합 향기

딸아이한테 꽃바구니가 배달되었다. 찬찬히 들여다보니 그 안에는 만다라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다.

장미가 고혹적인 자태를 뽐내고 연분홍 델피움과 노란 스토크는 활짝 웃고 있었다. 탁구공이 튀어 오르듯 연둣빛 머리를 불쑥불쑥 내밀며 웃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라낭큐러스. 배추 잎 치마를 두른 리시안은 부끄러운지 바닥에 주저앉았다. 셀렘과 유카리도 손바닥보다 더 큰 잎을 감추며 이웃 꽃들이 돋보이도록 몸을 낮췄다. 이들의 조화로운 모습은 나를 잠시 행복하게 했다.

그러나 꽃바구니에서 단연 돋보인 것은 하얀 백합이었다. 심연을 드러내지 않은 고결한 자태와 매혹적인 향기란. 이런 까닭에 백합은 순결과 변치 않은 사랑이란 꽃말을 얻게 되었나 보다.

흰 백합은 순결과 처녀성의 종교적인 상징으로 중세에는 제단이나 성모 마리아 상을 장식하곤 했다. 프랑스의 부르봉과 독일의 프랑크 왕가, 이탈리아의 피렌체, 캐나다의 퀘벡 주 등의 문장(紋章)에는 백합 문양이 그려졌다. 이처럼 백합은 자태와 향기가 빼어나서 오늘날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중학생 시절이었다.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방에서 교복을 벗다가 그만 쓰러졌다. 책상 위의 꽃병에 듬뿍 꽂아둔 백합꽃 향기 때문이었다. 어머니께서 낮에 꽃밭에 핀 백합을 꽃병에 꽂고 방문을 닫아두었더니 독한 꽃향기가 방 안에 가득 찼던 것이다.

백합은 치명적인 향기를 내뿜는 꽃이다. 밀폐된 공간에 백합과 함께 오랫동안 있으면 강한 향기에 질식할 수 있다. 그래서 철부지들은 수백 송이의 백합과 함께 잠이 들어 영원히 깨어나지 않겠다는 어리석은 소리를 하기도 한다.

백합, 치명적 향기 내는 꽃
밀폐 공간선 향기 아닌 毒
무엇이든 과하면 좋지 않다

백합 한 두 송이의 향기는 얼마나 싱그럽고 향긋한가. 그런데 이 백합 향기가 과하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니. 그래서 예부터 과하면 부족함만 못하다고 했던가 보다.

향기가 좋다고 마냥 꽃향기에 취해있는 것도 세존께서는 향기 도둑이라고 말씀하셨다. 꽃향기에 빠져있는 그 마음에는 이미 향기를 훔치는 욕망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향기를 내뿜는 백합, 그 향기에 빠져드는 인간. 모두가 비식(鼻識)의 탐착으로 이것은 오온(五蘊)의 유희 때문이 아닌가.

백합(百合)의 '백' 자는 흰 백(白)이 아닌 일백 백(百)이다. 백 가지의 모임이라니. 백합의 알뿌리가 백 겹으로 둘러싸인 비닐줄기라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백합을 흔히 흰색 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꽃잎 색깔이 하얀 경우는 드물고, 흰 백합이 대중화가 되도록 원예작물로서 키웠기 때문이다.

청초하고 순결한 하얀 백합이 겉은 희고 속은 검은 백로 같이 느껴진다. 어디 백합뿐이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갈애(渴愛) 덩어리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을.

'조견 오온개공 도일체고액(照見 五蘊皆空 度一切苦厄,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알아서 일체의 고액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의 〈반야심경〉을 되뇌며 나의 비식을 경계한다. 딸아이 방의 창문을 활짝 열어야겠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	연 락 처
대 구 지 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512-5003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0-8642-7733
영 주 지 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0-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부 산 지 사	이 도 경	010-5640-8883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0-3511-6682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BTN 불교TV와 함께하는 프리토킹 강좌

각설하고 覺說何故!

공개강좌 일정표

1차 공개강좌	주 제 : 사 성 제 ‖ 일시 : 2017년 4월 16일 일요일 오후 2시
2차 공개강좌	주 제 : 법화사상 ‖ 일시 : 2017년 5월 21일 일요일 오후 2시
3차 공개강좌	주 제 : 반야사상 ‖ 일시 : 2017년 6월 18일 일요일 오후 3시
4차 공개강좌	주 제 : 유식사상 ‖ 일시 : 2017년 7월 16일 일요일 오후 3시
5차 공개강좌	주 제 : 화쟁사상 ‖ 일시 : 2017년 8월 20일 일요일 오후 3시
6차 공개강좌	주 제 : 화엄사상 ‖ 일시 : 2017년 9월 17일 일요일 오후 3시



• 주제별 대본없이 강의하는 프리토킹 강사~진귀장자

※ 강좌에 관심있는 분이면 누구나 참석가능합니다. • 문 의 : 1899-9532

NAVER 깨달음산문 검색

깨달음 山門

‘복지 수행자’ 20년 이제 회향합니다



1997년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최초 비구니 관장으로서 옥수종합사회복지관에 취임한 상덕 스님이 6월 29일 정년 퇴임한다. 20년간 불교복지 자비행을 회향하는 상덕 스님을 6월 21일 만났다.

리더에게 聽하다 **상덕 스님** (옥수종합사회복지관장)



1997년 옥수사회복지관장 취임
불교계 ‘최초 비구니’ 관장으로 부담 있었지만 ‘本’ 된다는 사명
하루 3~4시간 자며 소임 몰두해 20년 불교복지 발전 기틀 닦아

지역민과 함께하는 복지관으로
복지부·서울시서 최우수 평가
서울시복지관협회 이사 등 역임
지역사회 복지계와 소통 활발
교계 네트워크 형성에도 ‘앞장’

“집이 근처라고요? 그럼 부모님 모시고 우리 복지관으로 와요. 어르신들 오면 얼마나 재미있고 좋은데!” 옥수동에 산다는 기자에게 옥수종합사회복지관장 상덕 스님이 대번에 하신 말씀이다. 퇴임을 일주일여 앞둔 가운데서도 복지관을 살뜰히 챙기는 마음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었다.

상덕 스님은 1997년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최초 비구니 관장으로서 옥수종합사회복지관을 맡았다. 그동안 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부처님의 자비구세 보살정신으로 불국정토를 이 땅 위에 건설한다’는 기조아래 복지부 및 서울시로부터 최우수 운영평가를 받으며 불교복지를 선도해 왔다.

이는 상덕 스님의 운영방침 덕분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좋은 일 하러 모였으니 웃으며 일해야지요”라고 말하는 상덕 스님은 이용자들의 편의와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고민을 멈추지 않는다. 20년간 매일을 하루 4~5시간만 자면서 복지관 운영과 사중 소임에 몰두했다고 하니, 그 말만 들어도 그간의 정성과 열정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불교복지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산증인인 상덕 스님을 정년퇴임을 일주일 여 앞둔 6월 21일 만났다.

Q. ‘비구니 최초 복지관장’ 스님으로서 20년 임기를 마친 후 정년퇴임하는 소감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심정이 어떤가요?

많은 수행의 길 중에서도 ‘복지 수행자’ 길을 택하고, 하루하루 열과 성을 다해 복지관을 운영하다보니 벌써 강산이 두 번 변했습니다.

원만한 회향을 맞이할 수 있던 것은 우리 직원들과 이용자, 봉사자와 후원자, 또 여러 복지협회 단체 및 재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향기로운 옥수복지’를 일굴 수 있도록 도움 주신 여러 인연분들에게 감사합니다.

Q. 처음 옥수복지관에 들어섰던 그 날을 기억하시는지요?

그럼요. 임명장을 받아들고 1997년 6월 처음 옥수복지관을 방문했을 때는 아직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아 내외부가 어수선한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과연 이 큰 복지관을 잘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부담감과 두려움이 생겼지만, 이내 ‘복지수행에 뜻을 두고 지금까지 정진한대로 한다면 잘 해낼 거야’라는 용기가 들었습니다.

그 후 6개월간 빈 건물에 각 방을 나누고, 직원을 뽑고, 집기들을 배치하는 일부터 차근차근 했습니다. 그야말로 처음부터 제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는 셈이지요. 그땐 참 고생스럽기도 했는데, 이젠 보람과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Q. 당시는 불교복지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비구니 스님으로서 최초로 복지관장 소임을 맞는데 부담은 없으셨는지요?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은 무엇입니까?

‘최초’라는 타이틀은 그 자체로 부담이기도 했지만, 그만큼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제가 만들어갈 하나하나가 훗날 후배들에게 본(本)이 될 것이란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역사를 써간다는 사명으로 임했습니다.

특히 당시는 IMF로 전 국민이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러다보니 복지관 운영도 지역민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전개했습니다. 지역민들이 복지관에서 다양한 사회 교육 및 무료 프로그램을 이용하며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 그저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Q. 20년간 에피소드도 많을 것 같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헤아릴 수조차 없이 많은 일이 있었죠. 우리 직원들이 결혼하고, 또 아기를 낳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제가 다 흐뭇했어요.

또 어린이집 아이들 중 한 명이 놀다가 다칠 때면 제가 다 마음이 철렁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좋은 일, 어려운 일, 궂은일들이 반복된 7000여일이 모두 소중한 날들이었습니다.

Q. 그중에서도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있었다면 무엇인가요?

이용자 할머니 중 한 분이 시설에서 인절미를 드시다가 목에 걸려서 돌아가신 일이 있습니다. 기도가 막힌 직후 병원으로 옮겨 고비를 넘겼다고 생각했는데, 할머니도 얼마나 놀라셨는지 댁으로 귀가 후 돌아가셨어요. 전전긍긍 하면서도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유가족 분들에게 더욱 감사했던 것은 복지관을 탓하지 않고 도리어 감사하다고 눈물지으셨어요. 생전 할머니가 옥수 복지관을 이용하시면서 그렇게 행복해하셨다고 해요. 그 얘기를 듣는데 보람을 느끼며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Q. 복지에 뜻을 둔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1977년 대학을 졸업하고 미타사와 정수암을 비롯한 많은 지역단체에서 지도 법사로 활동할 때입니다. 복지 저변을 넓히기 위해 불교계 외부와도 접촉하다보니, 이웃종교(개신교·천주교 등)가 사회 깊숙이 침투해 의료·복지·교육 3대 분야를 리드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자연스레 그 종교인이 됐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복지행을 실천해야 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B2면에 계속

INSIDE

B3 기획연재 김성우의 ‘염불각자 열전’
B5 문화 전국 7~8월 연꽃축제 일정
B6 기획연재 고원영의 ‘저 절로 가는 길’

“불교복지, 보살 정신으로 涅槃樂 이끄는 것”

〈열반락〉



상덕 스님은?

1955년 서울 미타사에서 법성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68년 구산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1977년 석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1978년 동국대 승가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동국대 불교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부터 옥수종합사회복지관장을 맡았으며, 서울숲데이케어센터장 · 한국비구니복지실천가회 초대회장 · 서울시 자원봉사자센터 이사 · 서울시 사회복지관협회 이사 · 선재방과후 교실 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현재 미타사 정수암 주지, 전국비구니회 서울지회장을 맡고 있다.

상덕 스님 B1면에서 계속

복지관을 수탁운영하며 불교적 색채를 그대로 드러낼 수는 없지만 스님이 관장으로 일하는 자체가 포교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자들에게 ‘불교=함께하는 종교’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불교복지가 일반적인 복지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일반사회복지는 국가와 지자체의 복지관 운영 법규에 따라 운영하며 지역민들의 복지를 도모하고 함께 잘사는 이상복지사회 건설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달리 불교복지는 스님들과 불교계 전문가들이 자비구세 보살 정신을 바탕으로 현대의 복지관 운영 사업 법규에 따라 실천하는 복지행 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의 행복을 인도하는 실천 정신은 상통하지만, 그 궁극적 목적이 다릅니다. 불교복지는 현실의 복지 욕구 충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과 행복, 열반락(涅槃樂)에 이르기까지 인도하는 것입니다.

Q. 불교복지 발전을 위해서는 인재양성이 중요한 과제로 꼽힙니다. 종교계 산하 복지시설 종사자로서 갖춰야할 기본 덕목은 무엇일까요?

종교계 뿐 아니라 모든 복지인들은 사람을 진실로 좋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복지는 그야말로 ‘사람을 위한 일’인데 사람을 진실로 좋아하지 않고서 어떻게 진정한 복지를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지=직업’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복지인으로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부처님의 인본주의 사상이 온전히 발현돼야 복지를 실천하는 것이겠지요.

Q. 스님께서는 시설장협의회 재창립, 비구니복지실천가회 창립 등 불교복지 내에서 커뮤니티 형성을 위해 노력해오셨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 구성에 특별히 집중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회복지는 사회 구성원들을 행복으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부터가 긍정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더불어 함께해야 비로소 참된 복지사회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교복지계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둬왔지만 여전히 네트워크는 튼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교복지 1세대로서 후배 불교복지 전문가들의 활동 기반을 닦아주고 싶었습니다.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윈윈할 수 있는 구조 말입니다.

이에 시설장협의회와 비구니복지실천가회를 꾸리고 초대회장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Q. 스님은 서울사회복지관협회 이사, 서울시자원봉사자센터 이사 등 맡으며 지역사회 복지분야에서도 활발히 활동하셨습니다. 복지사업을 실행하는데 있어 지역사회와 소통이 중요한가요?



상덕 스님이 옥수종합사회복지관 직원들과 자신의 저서 〈자비복지 감로수로 꽃피우다〉를 읽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불교복지 역사의 ‘산증인’
미래 발전방향 고민도 깊어
‘복지원’ 설립 등 방안 조언
“불교복지 인재양성 중요”
퇴임 후도 지속 관심 ‘약속’

네, 매우 중요합니다. 현대사회의 복지사업은 한 기관만 내실 있게 꾸려간다고 해서 성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소통 공유하며 협조해야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옥수동 지역 외에도 서울시의 다양한 복지 모임에 참여함으로써 중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했기에 옥수복지관도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Q. 한국불교의 복지는 지난 20년간 놀라운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그 산증인으로서 한국불교복지의 강점을 평가하신다면 무엇인가요?

불교복지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등불이 그 자체로 강점입니다. 모든 재단과 산하 기관들이 이를 근본으로 원칙성과 보편성, 평등성에 따라 복지를 실천합니다. 궁극적으로 사회구성원들에게 진실한 행복과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불교사회복지는 20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역 · 노인 · 장애인 등 모든 분야에서 양적인 면에서 압축 성장을 거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기관들이 지자체로부터 최우수 운영 평가를 받으며 질적인 면도 인정받았습니다. 각 분야 협회에서 불교복지사들이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복지계를 선도하고 있는 점도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이는 조계종단의 ‘1사찰 1복지시설 운영’이란 제도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불교계 전체에 사회복지에 대한 인지도를 높임으로써 사찰들의 참여를 이끌었습니다.

Q. 보완점은 없을까요? 앞으로 불교복지가 나아가야할 방향은 무엇일까요?

종단 내 복지 전문 담당 기관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현 ‘교육원’과 ‘포교원’처럼 독립된 원(院) 말입니다. ‘복지원’이 개설된다면 불교복지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자비복지로서 사회적 위상을 높이고 불교발전에 큰 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참 불자’ 복지사 양성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현재는 각 시설마다 개별적으로 공채를 진행해 불교적 정서를 소유한 사람들이 근무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종단 또는 재단에서 ‘불교 복지사 교육원’을 두고 불자 복지인을 양성할 수 있다면 인력 보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 말씀을 들어보니 평소 불교복지 발전을 위해 깊이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생각하신 보완책이 있나요?

생각은 무궁무진합니다.(웃음) ‘불교복지사업연구소’를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불교적 이념을 갖춘 프로그램과 복지서비스를 연구해 산하 복지관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갖춰질 때 불교복지는 질적 성장을 거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불교계 산하 복지관 직원들이 긍지를 가지고 힘차게 일할 수 있도록 종단 차원의 포상 제도를 확대해야합니다. ‘불교복지수당’을 책정하는 것도 불교복지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Q. 최근에는 퇴임을 기념해 책도 발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책들인가요?

2권의 책을 냈습니다.

먼저 〈자비복지 감로수로 꽃피우다〉는 1998년부터 지금까지 옥수복지관의 소식지 ‘감로수’에 관장으로서 써온 글을 모은 책입니다. 어떤 자세로 복지관을 운영해왔는지, 또 어떻게 발전을 도모했는지 등 20년간의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퇴임식 날(6월 29일)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나눠드릴 겁니다. *민족사, 300페이지.*

또 하나는 〈붓다복지 합장발원으로 꽃피우다〉입니다. 우리 직원들과 매월 첫 주 금요일 미타사 정수암 법당에서 반야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복지발원문’을 매번 새롭게 작성해 직원들과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 발원문들 가운데 100여 편을 모아 책으로 엮었습니다.

이 두 권의 책에 담긴 저의 마음과 행적들이 후배 복지 관장님들의 복지행로에 작은 불빛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Q. 퇴임 후 계획은 무엇인가요?

저는 비록 관장직을 내려놓지만, 제 수행처인 미타사 정수암은 옥수복지관의 지원사찰입니다. 정년퇴임 후에도 불교복지발전을 위해 협조해야 할 일이 있다면 성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또한 미타사 사중 운영에 집중할 것입니다. 20년간 소임을 원만히 이뤄낼 수 있던 것은 미타사 대중 스님들과 신도님들의 희생과 도움이 컸습니다. 퇴임 후에는 정수암 업무를 대중 스님들과 나누어 시행하며, 신도들의 신행도 더욱 정성으로 돕겠습니다. 또 개인의 수행과 기도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할 계획입니다.

글=박아름 기자 · 사진=노덕현 기자



김성우의 念佛覺者 列傳
⑬ 소강대사

포교방편으로 전한 생사해탈 '칭명염불'

> "내(석가모니불)가 지금 모든 중생을 위해 이 경법을 설한 것은 그로 하여금 아미타불과 그 국토에 있는 일체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니, 그들이 해야 할 것은 왕생발원으로 누구나 다 구할 수 있느니라. 내가 열반에 든 이후에라도 다시는 의심을 품어서는 안 되느니라."
> -〈무량수경〉

'제2의 선도 대사' 칭송 받아
中 절강성 오룡산에 정토도량 건립
아미타불 칭명 시 화신불 출현

현실문제와 생사대사 해결하는 염불

사람들의 번뇌가 무겁고, 고통과 어려움이 많은 오늘의 말법시대에 현실적인 삶의 문제와 더불어 생사대사(生死大事)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법문은 어떤 것이 있을까. 정토문의 선지식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정토법문이라고 자부한다. 즉, 정토법문은 가장 간단하고 쉬우며 빠르고 믿을 수 있으며, 비할 데 없는 수승함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조사스님과 대덕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법문은 "믿기 어려운 법(難信之法)"이라고도 하셨다. 그래서 예부터 정토법문을 일심으로 수지(修持)하여 성취한 이들은 오직 두 부류의 사람만이 있다고 했다.

첫 번째 부류는, 선근이 두터운 사람(善根深厚之人)이다. 이러한 사람은 근성이 영리하고 총명하여 정토법문을 한번 들으면 즉시 깊이 믿고서 정성을 다해 받아들인다. 두 번째 부류는, 복이 있는 사람(有福之人)으로, 여기서 말하는 복은 임시적인 세상의 오욕(五欲)과 육진(六塵)의 복이 아니다. 진정한 복의 과보는 정토 경전을 들은 후에 비록 도리를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깊이 믿어서 지성(至誠)으로 이 도리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다.

지혜 · 공덕 없이는 믿기 어려운 법

그리고, 가장 어려운 부류는 바로 이들 중간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다. 역대 고승 · 대덕들이 지혜도 없고 복도 없는 이들을 위해 입이 닳도록 정토법문을 설했건만 믿지 않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하근기나 하는 수행이라고 무시하거나 아미타불과 극락이 방편설에 불과하다고 폄훼한다. 이런 사람들의 과보는 상상하기 조차 두렵다. "만법은 모두 공하지만, 인과는 공하지 않다(萬法皆空 因果不空)"는 도리를 모르는 어리석음이다.

지금 이 지면을 통해 '믿기 어려운 법'을 접한 독자님들은 깊은 선근공덕을 쌓은 분들로서, 정토법문을 잘 몰랐다면 지금부터라도 자세히 참구하여 생사해탈의 지름길(捷徑)을 걸으시길 바란다. 이번 호에서는 정토종 제4조 법조 대사의 법을 이은 제5조 소강(少康) 대사의 수행이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후선도(後善導; 제2의 선도대사)'란 칭송을 얻을 정도로 불가사의한 법력을 보인 소강 대사의 삶 역시 '믿기 어려운' 일화들로 가득하지만, 그 행간 속에서 정토수행에 대한 자부심과 믿음을 굳건히 하는 계기를 삼으시길 기대한다.

불가사의한 법력 보인 '제2의 선도대사'

〈여산연종보감〉을 비롯한 많은 저술에 간략한 전기가 남아있지만, 소강 스님의 태어난 해는 분명하지 않다. 그의 성은 주씨(周氏)이고, 중국 절강성 여수현 진운(縉雲) 사람이다. 불자 집안에 태어난 그는 일찍이 출가하여 15세에 〈법화경〉 〈능엄경〉 등 5부(部) 경전을 다 외울 정도로 총명했다고 한다. 곧이어 소응현 조주(趙州) 가상사(嘉祥寺)에 머물면서 구족계를 받고 5년간 율학을 배웠다. 다시 강녕현 상원(上元)의 용흥사(龍興寺)에 머물면서 〈화엄경〉과 〈유가론〉까지 공부했다.

훗날 당나라 덕종(德宗) 정원(貞元; AD. 785-) 초에 스님이 정토에 귀의한 일과 정토종 제2조 선도 대사와의 인연에 대해서는 〈송고승전〉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전해진다.

광명 발하는 선도대사 글 보고 정토 인연

정원 초에 경락(京洛; 수도인 長安)의 백마사전(殿)에 이르러 물건에서 광명이 나오는 것을 보고, 어떤 경법(經法)인가 하고 유심히 찾아보니 선도 대사의 '행서방화도(行西方化導; 중생에게 염불을 권하여 서방정토에 왕생하도록 당부한 글)'란 글이었다.

소강 스님은 이것을 보고 환희하여 기원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만약 정토와 인연이 있으면 다만이 축문(軸文: 두루마리로 된 글)에서 다시 한 번 광명을 나타내어 주십시오"라고 했다.

이러한 서원을 마친 얼마 후, 위엄스럽게 번쩍번쩍 빛나는 광채 가운데 화신불이 계시고 보살들은 헤아릴 수 없이 출현했다. 스님은 깊은 감동을 받고 그 자리에서 당장 서원을 세우며 말했다.

"겁석(劫石; 사방 40리 되는 큰 바위산)은 옮길 수 있으나, 나의 원은 결코 바뀌지 않으리라.(劫石可移 我願無易矣)"

입적한 선도대사가 염불 유포 부촉

이어서 소강 스님이 장안에 있는 선도 대사의 진영이 모셔진 영당(影堂) 안에 들어가 대사의 영정을 보고 발원하니, 진상(眞像)이 불신(佛身)으로 변해 스님에게 이르기를, "네가 나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많은 중생에게 이익을 주게 되면 너는 그 공덕으로 반드시 서방정토에 왕생하게 될 것이니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더라는 것이다.

이 불가사의한 현상을 경험한 소강 스님은 그 말씀을 듣고는 더욱 더 환희심이 나서 굳은 결심을 하고 널리 세상에 정토법을 펴기로 작정을 했다. 그리하여 남방에 있는 과원사에 가서 정토법을 펼까 하여 그곳을 향해 길을 떠나가는 도중, 스님 한 분을 만났다.


〈승가불조도영〉의 소강대사

그 스님이 물었다. "그대는 어디를 가느냐?"
소강 스님이 대답했다. "과원사에 갑니다."
"그곳엔 무엇하러 가느냐?"
"정토법을 펼까 하여 가는 중입니다."
그 스님이 말씀하기를 "그대가 만일 중생을 제도하고자 할진대, 마땅히 신정(新定; 지금의 엄주 지방)에 가서 교화할지어다"라고 말해주고는 사라져 버렸다.

가난한 백성 도우며 염불 권해

과연 소강 스님이 신정으로 가서 보니 그 지방은 아직도 문명이 미개한 지방인지라, 아무리 교화를 해도 성과가 없었다. 급기야 스님은 다른 방편으로 교화하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는 신심 있고 잘 사는 지방에 가서 탁발(托鉢)과 권선(勸善)을 하여 많은 물품과 돈을 마련해 와서는 어른들께는 필요에 따라 물품을 보시해 주고 염불을 권하며, 아이들에게는 돈을 나누어 주면서 염불을 권했다. 그 물품과 돈이 다 없어지면 또다시 탁발해 와서 각자의 필요에 따라 보시해 주면서 지성으로 염불을 권했다. 혹 재난이나 환난을 당한 자에게는 많은 물자를 구해다 주고 위로를 해주며, 혹 중병을 앓는 자가 있으면 약을 구해 주시고 지성으로 염불을 권했다. 이런 자비행에 힘입어 그 지방 사람들 모두 스님을 부모같이 고마운 은인으로 받들게 된 것이다.

〈송고승전〉에는 그의 탁월한 교화방편이 잘 묘사되어 있다. "강서성 순안현 목군(睦郡)에 이으러 성에 들어가 걸식하고 돈을 얻어 어린아이들을 꾀어서 '아미타불'을 염하게 하여 한 번 부르면 1전(錢)을 주었다. 그 후 한 달이 지나자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많이 모였고, 염불을 많이 한 사람에게는 돈을 주었다. 이와 같이 하여 1년을 지나자 많은 남자나 여자들이 소강 대사를 보고 아미타불이라고 하였다."

염불때마다 화신불 출현

10년이 지난 후, 소강 스님은 절강성 건덕현 오룡산(五龍山)에 정토도량을 세우고 세 계단을 쌓고 사람들을 모아 낮과 밤에 수행하였고, '찬24계(讚二十四契)' 게송을 외우며 정토를 찬양했다. 재일(齋日)에는 교화를 입은 사람이 삼천여 명이나 운집하였고, 이때는 법상에 올라 남녀 제자들로 하여금 대사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고, 곧 고성으로 아미타불을 부르게 하였다.

낮에는 중생교화를, 밤에는 잠을 안 주무시고 염불에 전력을 다한 스님은 마침내 불가사의한 법력까지 갖추게 됐다. 제2조 선도 대사처럼 '아미타불' 명호를 부를 적마다 화신(化身)의 아미타부처님이 한 분씩 나왔다. 게다가 출현하신 아미타부처님들이 차례대로 연결이 되어 공중에 떠 계시다가 염불을 다 마치면 사라지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화신불은 오직 신심이 깊고 염불을 많이 한 분과 소강 스님과 인연이 깊은 분에 한해서만 보였다. 이에 대해 스님은 "내 입에서 나오신 부처님을 보는 자는 결단코 왕생극락을 하게 될 것이며, 보지 못하는 자는 왕생극락을 못할 분이니 그런 분들은 더욱 더 신심과 용맹심을 내어 염불에 전력을 다하라"고 격려해 주었다.

찬란한 광명 놓으며 극락왕생

정원21년(805) 10월 3일, 소강 스님은 전 대중을 모으고 당부했다.

"그대들은 앞으로도 왕생극락의 발원심을 굳게 가져서 부디 물러남이 없게 할 것이며, 항상 이 괴로운 사바세계에 대한 모든 애착을 버리도록 힘쓸지어다. 나는 이제 이 사바고해를 여의고 극락세계로 왕생할까 하노라. 마지막으로 나의 광명을 비추어 보여주리니, 이 광명을 보는 자는 나의 참 제자일 것이다."

스님은 이런 유언을 남긴 후 밝고 찬란한 광명을 한참 동안 놓으시고는 삼계윤회를 벗어나 서방정토에 왕생했다.

이와 같이 정토법문이란 극히 믿기 어려운 반면, 불가사의한 공덕을 얻게 되는 가장 수승한 법이다. 이런 이유로 선종과 천태종, 화엄종을 비롯한 여러 종파의 대선지식들이 임종시에는 그 모든 법을 내려놓고 오직 이 정토법에 의지하여 염불하면서 왕생극락을 발원한 것이다. 석가세존께서 600여 부 가운데 200여 부의 경전에서 정토법문을 설한 것이 어찌 허언이겠는가. 독자님들은 위로는 십지보살로부터 아래로는 악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윤회를 벗어난 정토에 화생하여 반드시 성불에 이르게 되는 '위없이 깊고 묘한 선(無上深妙禪)'인 염불법문을 닦아 생사의 큰일을 해결하시길 발원한다. 나무아미타불!



김성우(도서출판비움과소통 대표)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7.6.21~2017.6.27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깨달음의재발견	우오가와유지	(주)조계종출판사
2	호흡법문핵심강의	남회근	마하연
3	사는게내맘같지않을때힘이되는말	범수스님	담앤북스
4	물흐르고꽃은피네(좋은때를놓치지않고사는법)	금강	불광출판사
5	홀가분한동행	종연스님	뜨란
6	야단법석(2)	법륜	정토
7	너는이미기적이다	틱낫한/이현주	불광출판사
8	아무도너를묶지않았다	월호	쌤앤파커스
9	위대한스승청화큰스님	유철주	상상출판
10	우리가 사랑할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일초스님외	민족사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법화경〉 종지는?… "사람이 부처님"

무비 스님의 법화경 법문

여천 무비 지음 | 담앤북스 펴냄 | 1만 8천원





봉은사 〈법화경〉 법문 2년간 엮어
총 28품으로 구성된 귀중한 가르침
불교, 사람, 삶 등 전방위적 해설

이 책은 우리 시대의 대강백 무비 스님〈사진〉이 서울 봉은사서 법화경 경전을 교재로 2년간 24회에 걸쳐 법문한 것을 엮었다. 이 한 권의 책 속에 '불교란 무엇인가' '법화경이란 무엇인가'를 비롯해 '사람과 삶을 이해하는 길' '가장 고귀한 행복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음'이 다 녹아들어 있다. 그만큼 이 책은 전방위적으로 불교를 해설한 것이다.

무비 스님은 책 속에서 "마음이 편안하고 좋을 때는 상대를 흔쾌히 부처님으로 대했다가 기분이 나쁘면 한 번씩 원수로도 취급하면서 그렇게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내 기분이 편안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고 항상 밝은 상태가 되면 상대를 늘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화경 수행법입니다"라며 "상처 안 받고 사는 인생이 없습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은, 상처를 안 받으면 더욱 좋고,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상처가 오래가지 않도록 백방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반야심경도 천수경도 외우고 관세음보살도 불러 보고 지장보살도 불러 보고 부처님도 불러 봅니다. 방법은 그 속에 다 있습니다. 진짜 불교를 공부하는 영험은 상처를 받는 일이 있어도 덜 받는 것이고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금방 사라지게 하는 것, 좋은 일이 있어도 도취하지 않고 담담해서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밝힌다.

무비 스님의 법문은 항상 친절하고 자상하다. '사람이 부처님'이라는 법화경 종지를 바탕으로 펼치는 무비 스님의 법문은 불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부닥칠 수 있는 문제를 아주 적절히 예로 들어서, 바로 그 자리서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보인다. 무비 스님이 친절히 일러 준 방편 불교이다. 경전 및 조사들의 어록, 동양 고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서 빼어난 통찰력으로 적절한 예를 통해 일상의 삶에 치이는 우리들의 가슴을 시원히 뚫어 주는 무비 스님의 법문을 따라가다 보면, 불교를, 사람과 삶을 이해하게 되고, 불교가 전하는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을 배운다. 또한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 삶의 지혜를 배운다.

"가장 고귀한 행복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 순간 우리가 앉아 있는 법왕루 바로 이 자리입니다.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면 집에 돌아간 순간 바로 그 자리가 또 행복한 자리입니다.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에 앉는 그 순간입니다. 매순간 내가 앉는 그 자리 그 이상이 없습니다. 그것이 최선의 삶입니다. 지금 여기는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자리입니까."

〈묘법연화경〉(약칭 법화경)은 산스크리트어로 〈사다르마푼다리카 수트라〉이다. '하얀 연꽃처럼 올바른 가르침'이란 의미이다. 한역본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축법호가 번역한 〈정법화경〉, 구마라집이 번역한 〈묘법연화경〉, 사나굴다와 달마급다가 공역한 〈첨품법화경〉이 그것이다. 그중에서도 구마라집의 〈묘법연화경〉이 명역이라는 평을 받았고, 대승불교권서 〈법화경〉 하면 일반적으로 이 〈묘법연화경〉을 가리킨 말이 된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으로 대승불교 최고 경전으로 꼽히는 가운데,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고, 그러므로 누구나 부처님 경지에 오를 수 있다"는 불교의 근원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화경〉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실제 수행에 적용할 수 있도록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게 제시돼 있고, 절묘한 방편과 비유를 들어 표현하고 있어 문학적인 가치도 높다. 신앙의 경전, 독송의 경전, 찬불(讚佛) 문학의 경전으로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28품으로 구성된 이 경은 전체가 귀중한 가르침으로 돼 있어서 어느 한 품만을 특별히 다룰 만큼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지만, 크게 14품씩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반부에서는 제 2 〈방편품〉, 후반부에서는 제 16 〈여래수량품〉을 중요한 품으로 꼽는다. 〈방편품〉서는 '회삼귀일(會三歸一)', 즉 성문 · 연각 · 보살 삼승이 일불승, 곧 부처님이라는 하나의 본질로 돌아간다는 것을 나타낸다. 깨달음의 여러 경지는 그 구분이 없으며 본질은 하나로서 모두 같다는 것이다. 〈여래수량품〉서는 '구원실성(久遠實成)'이라는 법화경의 핵심 사상을 설하는데, 구원실성은 부처님은 이미 성불했다는 뜻이다. 이는 부처님의 열반이 중생을 위한 방편에 불과할 뿐, 참된 깨달음은 이미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존재한다는 깨달음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제 25품 〈관세음보살보문품〉이 관음신앙의 근거가 되어 특별히 존숭받아 왔고, 제3품 〈비유품〉을 비롯해 '화택의 비유' '계주의 비유' '약초의 비유' '화성의 비유' 등 뛰어난 비유담을 통한 가르침도 높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저자 **무비 스님**은?
1958년 출가해 덕흥사, 불국사, 범어사를 거쳐 1964년 해인사 강원을 졸업하고 동국역경연수원서 수학했다. 10여 년 선원 생활을 하고 1977년 탄허 스님에게 〈화엄경〉을 수학하고 전법, 이후 통도사 강주, 범어사 강주, 은해사 승가대학원장,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장, 동국역경원장, 동화사 한문불전승가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부산 문수선원 문수경전연구회서 150여 명의 스님과 250여 명의 재가 신도들에게 〈화엄경〉을 강의한다. 또한 다음 카페 '염화실'(http://cafe.daum.net/yumhwasil)을 통해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김으로써 이 땅에 평화와 행복을 가져오게 한다.'는 인불사상(人佛思想)을 펼친다. 저서로 〈신금강경 강의〉 〈직지 강설〉(전 2권) 〈대승찬 강설〉 〈사람이 부처님이다〉, 무비 스님이 가려 뽑은 명구 100선 시리즈(전 4권) 등이 있다.

화엄 세계에 들어가면 나와 세상이 바뀐다

원욱 스님의 나를 바꾸는 화엄경

원욱 스님 지음 | 민족사 펴냄 | 2만 3천원



BBS 불교방송 경전강좌 내용 정리해 엮어
대승경전의 꽃인 〈화엄경〉 자세히 풀어

〈원욱 스님의 나를 바꾸는 화엄경〉은 부처님께서 성도 직후 열어 보인 깨달음의 세계와 그 세계로 나아가는 수행법에 관한 내용이 총체적으로 담겨 있어 대승경전의 꽃으로 불리는 〈화엄경〉에 대한 본격 해설서이다.

이 책은 서울 목동 반야사서 '화엄경 천일 사경기도'를 하면서 강의한 강의록과 2016년 BBS 불교방송서 인기리에 방송된 경전강좌 '나를 바꾸는 화엄경'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엮은 것이다. 이 책에서는 80권 화엄경(7처 9회 동안 설해진 39품) 전 품을 두루 망라하면서 가장 중요한 구절만 가려 뽑아 해설한 내용을 함축해서 담았다. 〈화엄경〉은 불교사상 일체와 인류가 발견한 모든 수행 과정을 총망라해 놓았다 해도 과언이 아닌 화엄경은 인류가 쌓아올린 지적 유산의 최고봉이요, 수행의 나침반이라 할 수 있다. 그런 〈화엄경〉은 불교 경전 가운데 그 내용이 가장 방대하고, 수많은 사상과 철학 · 학문을 집약하고 있어서 이해하기 매우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이번 책에서는 〈화엄경〉의 각 품을 설명하면서 부처님 당대의 상황을 경험하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당시 상황을 생생히 묘사해 어렵게만 느낀 화엄의 세계로 독자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또한 이 책서 원욱 스님은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다양한 시각서 다채로운 방법으로 화엄경을 해설해 주는 모습이 돋보인다. 홀로그램, 아바타, 텔로미어 등의 용어를 써서 〈화엄경〉을 해설하고, '케빈 베이컨의 법칙'이나 '코스모스', 인터스텔라, 그래비티 등 다큐와 영화를 넘나들며 화엄의 세계를 열어준다.

원욱 스님은 화엄경이야말로 홀로그램을 이용한 부처님의 최첨단 시청각 교육이라고 역설한다. 2600년 전, 부처님께서는 깨달은 모든 내용을 보살대중들이 삼매에 들어 부처님의 깨달음에 관한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했다. 홀로그램을 이용한 일종의 시청각 수업을 하신 것이다. 그리고 수업을 들은 보살들이 조교가 되어서 삼매에 들지 못한 보살대중을 위한 2차 수업을 질의문답식으로 진행했다. 마치 부처님 당대로 돌아가 실제 상황 속에서 부처님 설법을 생생히 재현해서 전해 준 원욱 스님의 강의를 엮은 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화엄의 세계로 깊이 들어갈 수 있다.

중생의 안목서 부처님의 안목으로 바꾸는 원욱 스님 덕분에 존재의 실상을 깨닫고 보현행을 실천해 삶의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이 책의 제목처럼 실제로 원욱 스님의 지도를 받고 마음 깊이 행복해진 불자들, 기부와 봉사의 삶을 실천하는 반야사 신도들의 변화된 삶의 이야기도 신선하게 다가온다.

"20여 년 전 화엄경을 독송하며 암과 싸우던 병든 몸은 화엄의 세계를 만나면서 밤하늘의 별처럼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아 내 인생 전부를 바꿔 주었습니다"라는 원욱 스님의 말처럼 인생을 바꾼 화엄경이기에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던 것이다. 화엄경 덕분에 병고서 벗어난 원욱 스님은 철저히 화엄경 가르침대로 살아가고자 서원하고 실천하기 시작했다. 스님의 지도를 받은 신도들에게도 삶의 질적인 변화가 찾아왔다.

스님은 이 책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우리 중생을 위해 오신 부처님의 뜻을 알았다면 우리도 부처님처럼 살아보자,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받들고 보현행을 실천해서 우리 모두 다 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자'고 초지일관 강조한다. 〈원욱 스님의 나를 바꾸는 화엄경〉과 같이 책 제목처럼 이 책은 화엄사상을 토대로 나를 바꿈으로써 세상을 바꾸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다양성의 시대, 글로벌 시대, 정보화시대, 불확실성 시대, 신유목민시대 등등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를 지칭하는 용어가 난무한다.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는 사회상 속에서 예전에는 상상조차 못한 수많은 문제와 갈등이 표출돼 고통 받는 시대이기도 하다. 어떻게 고통서 벗어날 수 있을까?

원욱 스님은 화엄사상의 진수를 '당신은 나의 부처님, 나는 당신의 부처님'으로 보는 일체유심조임을 일깨운다. 세상은 우리가 보는 대로 존재한다. 희망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을 보여주고, 절망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절망을 보여준다. 밉다고 생각하고 바라보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미워 보이고, 예쁘다고 생각하고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러운 것처럼 말이다.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짓는 것이라는 화엄경의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사상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이들을 부처님으로 만날 수 있게 해 주는 큰 틀이 된다.

원욱 스님은 화엄경의 대의는 "통만법 명일심(通萬法 明一心, 만법을 통하여 일심을 밝히는 것)", "심불급중생 시삼무차별(心佛及衆生 是三無差別, 마음과 부처와 중생은 하나, 이 셋은 차별이 없다)"이요, 화엄경의 결론은 보살행을 실천하는 보현행원이라고 밝힌다. 스님은 화엄경을 통해 마음을 깨닫고 보현행을 실천함으로써 부조리와 불평등이 사라진 평화로운 세상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잘 소통하며 멋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역설한다.

김주일 기자



연꽃, 그윽함과 청초함에 취하다

전국 7~8월 연꽃축제 일정



사진은 지난해 봉은사에 핀 연꽃.

사진제공=봉은사

봉은사 등 도심·수도권서도 향유
전북·전남 등 거대 군락 '눈길'
음악회·힐링콘서트 등 문화공연도
여름 맞은 '더위 사냥' 프로그램

진흙탕 속 곱게 드러난 얼굴이 마치 한 줄기 햇살 같다. 온통 시커먼 연못물을 환히 밝히니 내 마음도 밝아지는 듯하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연꽃밭으로 발길을 향하나 보다.

올 여름도 어김없이 빨갛고 하얀 연꽃들이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다. 아직 꽃봉오리지만 이내 청초하고도 고고한 그 자태를 드러낼 것. 전국에서 펼쳐지는 연꽃의 그윽한 향연에 취해보는 것은 어떨까.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는 우란분절(백중)을 맞아 9월 6일까지 연꽃으로 경내를 장엄한다.

봉은사 연꽃축제는 사찰입구인 진여문부터 법왕루까지 500여개 연꽃화분을 배치해 시민들에게 도심 속 힐링 공간을 제공한다. 축제기간 동안에는 영가들을 위한 연꽃공양 접수가 진행되며, 봉은사는 연꽃공양 동참자들을 위해 연꽃 사진을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는 이벤트도 함께한다. 접수는 봉은사 접수처 또는 전각 봉사연등을 통해 가능하며, 동참금은 1화분 당 10만원이다. (02)3218-4828

15회째 연꽃축제를 이어오고 있는 **남양주 봉선사**(주지 일관)는 올해도 만개한 연꽃으로 시민들을 맞이한다. 7월 1~9일 열리는 '연꽃愛 반하다'에서는 음악회, 힐링콘서트, 그림그리기·글짓기 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개막일인 1일에는 '재즈 디바' 웅산과 라틴 타악기의 거장 류복성 재즈 올스타즈 등이 축하 무대를 꾸민다. 또 사찰음식을 직접 만들고 시음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된다.

8일에는 108 보물찾기 및 포토존 등 행사(오전 10시~), '카이스트 출신 스님'으로 유명한 도연 스님의 힐링 토크 콘서트 및 버스킹 공연(오후 1시~), 그림 그리기 및 글짓기 대회(오후 2시~) 등이 진행된다. (031)527-1951

김제 청운사 하소백련지 일원에서는 9,900㎡에 달하는 대규모 연지에서 제16회 연꽃축제 '화중생련'이 펼쳐진다.

'불 속에 연꽃이 피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7월 7~16일 청운사 및 하소백련지 일원에서 진행된다. 가수 정수라의 특별무대와 아리랑 오케스트라 등 풍성한 축제무대가 준비됐다.

개막일인 7일 오후 3시부터는 식전행사가 열리며, 이후 5시부터 개막공연으로 △심흥재 전국국제행위예술제 위원장 △이강근 무향소리연구원장 △예사랑무용단 △김효식 작곡가 △두창균 마술공연예술가 등이 무대에 오른다.

8일 오후 5시부터는 가수 정수라와 오케스트라 하모닉이 함께하는 대망의 무대가 오른다. 이어 7일 오후 5시부터 무행 김길두·청록 손영환·동우 김학길의 먹 행위를 비롯해 다양한 특별무대가 진행된다. (063)542-8943

부여서동연꽃축제는 올해 경관조명을 새롭게 단장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충남 부여군은 7월 7~16일 제15회 부여서동연꽃축제를 개최한다. 부여군은 올해 축제를 위해 서동공원 북쪽 약 400m 구간 '서동선화존'에 꽃터널을 조성하고 다양한 입체조형물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 꽃터널은 야간에는 LED 조명으로 변신해 다채로운 일루미네이션을 뽐낼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만개할 연꽃의 향연이 벌써부터 시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부여서동연꽃축제를 찾은 관람객들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또 궁남지 서문주차장 일원에는 '패밀리존'을 조성해 서동선화 캐릭터와 해바라기, 바람개비 등 조형물의 조명을 꾸민다. 이밖에 '로맨틱존' '설화존' '정열존' 등의 7개 테마를 구성하고 낮과 밤을 화려하게 장식한다. (041)830-2211~2

남도에서는 '동양 최대 백련자생지'가 벌써부터 불자 및 관광객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안군이 주최하는 '제21회 **무안연꽃축제**'는 8월 12~15일 동양 최대 백련자생지로 알려진 무안군 회산백련지에서 개최된다. '사랑·소망·인연'이 주제인 올해 행사는 한여름 무더위 탈출 프로그램들로 다채롭게 구성됐다. 물놀이장과 연계해 '한 여름 크리스마스 광장'을 설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물총페스티벌 △얼음놀이터 △팥빙수 나눔 등을 진행한다.

특히 회산백련지와 인연을 맺는다는 의미의 '연자방LED 소망등 달기'를 비롯해 △100m 연가래떡 나눔 잔치 △양파 제기차기 대회 등 새로운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구성해 관람객들의 오감만족 사냥에 나선다. (061)450-5472

이밖에 **태고종 봉원사**(서울 서대문)는 8월 5일, **서울 조계사**는 9월초까지 연꽃축제를 연다. 세부 일정 및 프로그램 미정. (02)392-3007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한국 범종의 眞美 한 자리에…

불교중앙박물관, 2017테마전 '범종, 진리의 울림'

현존하는 우리나라 범종과 통일신라·고려·조선시대 범종의 복제품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불교중앙박물관(관장 현조)은 2017테마전 '범종, 진리의 울림'을 6월 20일 개막했다. 이번 전시는 한국 범종의 우수성과 역사성을 대중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의 범종은 불교의 중요한 의식법구로서 고대부터 현재까지 오랜 기간 조성돼 사용되고 있다. 정교한 세부장식과 웅장한 울림소리로 동양 삼국 가운데서도 으뜸으로 꼽힌다.

이번 전시에는 합천 해인사 동제 소종(고려후기, 경남 유형문화재 제400호), 문경 김룡사 동종(조선 1670년, 보물 11-2호), 서울 청량사명 동종을 비롯한 우리나라 주요 동종과 그 탁본이 소개된다. 특히 국내 최고의 범종 주성기술 보유자로 꼽히는 주철장 원광식(국가무형문화재 제112호)이 오랜 기간 복원 또는 복제한 범종을 함께 선보인다.



6월 20일 개막한 2017 불교중앙박물관 테마전 '범종, 진리의 울림'에 참석한 내빈들이 통일신라시대 양양 선림원지 종 복원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전시는 '천상의 소리를 전하다-통일신라 범종' '불법을 담다-고려 범종'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살피다-조선 범종' '호국의 염원을 담다-근대 범종' 4가지 분야로 구성되며, 타종·범종 탁본 뜨기 등 체험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불교중앙박물관은 "한국 범종의 웅장한 소리는 듣는 이로 하여금 환희심을 일으킨다. 한국 범종은 부처님의 소리 그 자체이며 우리 선조들의 우수한 과학기술 및 예술성이 나타난 결정체"라면서 "범종의 소리를 통해 많은 이들이 번뇌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며 이번 전시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전시는 8월 20일까지. 관람시간은 오전 10시~오후 6시이며, 매주 월요일 휴관. (02)2011-1960

박아름 기자

'두드림 예술' 탁본으로 만나는 불교미술

고판화박물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전

대상물의 표면 무늬와 글, 조각 등을 확인하기 위해 표면에 종이를 붙이고 먹을 치는 방식의 탁본(拓本). '두드림의 예술'이라고도 일컫는 탁본 중에서도 불교미술탁본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치악산 명주사 고판화박물관(관장 한선학)은 6월 25일~10월 15일 세계불교미술 탁본전 '흑과 백, 두드림의 예술'을 개최한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념해 생생문화재사업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10여점의 희귀본을 비롯해 한국·중국·일본·티베트·인도네시아·캄보디아 등 세계불교미술 탁본 50여점이 소개된다.

예로부터 한국·중국·일본에서는 마애불의 불상, 비석에 새겨진 불화, 석탑, 부도탑, 범종 등의 문양들을 탁본으로 많이 남겼다. 특히 중국과 일본에서는 탁본이 미술의 한 분야로 여겨지며, 우리나라에서는 중요한 연구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에 전시되는 작품은 △한국-국보 제53·54호 연곡사 동·북부도 사천왕, 국보 제29호 성덕대왕신종 비천상, 석굴암 십일면 관음 모조품 등 탁본 △중국-운강석굴, 황흥5년 미륵교각상 뒷면 불전도와 본생도, 명 시대 소림사 주사 달마상 등 탁본 △일본-국보 나라 약사사의 탑 수연의 비천상, 일본 석굴불상 등 탁본이 포함된다.

특히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용문석굴의 고양동 마애불 탁본은 전시품 중에서도 대표작으로, 약 2m에 달해 한 폭의 대형 불화를 보는듯한 생동감을 자아낸다. 이밖에 세계문화유산 돈황석굴의 탁본, 앙코르와트 회랑 벽면의 탁본 등이 전시된다.



세계문화유산 용문석굴 마애불탁본. 132x190cm

한선학 관장은 "세계문화유산의 탁본이 엄격히 규제되고 있어 이번에 전시되는 희귀 탁본들은 미술사 연구의 좋은 자료"라면서 "전시를 통해 많은 분들이 동양문화의 진수인 불교미술을 탁본으로써 감상하고, 세계 불교미술의 공통점과 차별성을 이해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아름 기자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NAVER 성화불교전시관

주·야 상담 합니다

성 화 불 교 예 술 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0-5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미소 조각원

泰煌(태황) : 대한민국 문화재 조각기능 보유자

불사 문의 050-2879-8709 010-3629-8709



9층 석가대탑
조성기간 : 13년 6개월
높 이 : 17미터

지리산이 펼치는 禪의 대향연



저 절로 가는 길
⑬ 칠암자 가는 길

해발 1000m에 위치한 문수암 방문을 열고 바라본 지리산. 지리산 주능선이 한폭의 수묵화를 그려낸다. 상무주암과 문수암은 같으면서도 다른, 마치 정혜쌍수의 지혜를 전하는 듯하다.

삼정산1,292m 능선 아래, 상무주암과 문수암 사이의 오솔길을 걸을 때 박지원이 쓴 열하일기의 한 문장이 떠올랐다. '길은 저 강과 언덕 사이에 있다.'

그때 나는 뇌까렸다. 어디 거기에만 길이 있는가. 하늘과 땅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이것과 저것 사이에도 길이 있지.

그렇다. 모든 길은 사이에 있다. 암자와 암자 사이에도 길이 있어 사람들은 그곳을 칠암자 길이라고 부른다.

칠암자 길의 시작이나 끝이 되는 도솔암과 실상사는 각각 다른 행정구역에 있다. 칠암자를 품은 삼정산은 지리산의 한 줄기로, 경남 함양과 전북 남원 사이에 솟아오른 산이기 때문이다.

내가 들머리로 삼은 길은 도솔암이 있는 함양 마천면이었다. 도솔암에서 영원령을 넘어 영원사와 상무주암, 문수암, 삼불사, 약수암을 거쳐 실상사까지 이어지는 길을 나는 걷고자 했다. 실상사가 있는 남원 산내면을 들머리로 삼으면 그 역순으로 암자들을 찾아야 한다.

지도를 펴고 산행거리를 어림하니 15㎞였다. 일곱 암자를 다 들르자면 해종일 걸어도 모자랄 판이지만, 도시에서의 찌든 번뇌와 알게 모르게 생긴 병을 씻어낼 수만 있다면 이튿날까지라도 걷고 싶었다. 길을 가다 마음이 내키면 법당에 들어가서 삼배라도 올릴 요량이었다. 날이 저물면 칠암자 가운데 한 암자에 하룻밤 의탁할 수도 있지 않을까. 바람이 불면 바람 부는 방향으로, 꽃이 피면 꽃 피는 길을 따라서 그렇게 해찰하듯 걷고 싶은 이 길을 칠암자 순례길이라고도 부른다.

일곱 암자 모두가 볼거리를 지녔지만, 그중 사람들이 주목하는 건 상무주암과 문수암이다. 워낙 조망이 뛰어난 데다 암자를 돌보는 암주 스님의 내력이 재미있기 때문이다. 상무주암의 조망은 전남 순천 송광사의 보조국사비에 쓰인 비문이 보장할 만큼 빼어나다.

'지눌이 옷 세 벌과 바리때 하나만으로 지리산 상무주암에 은거했는데, 경치가 그윽하니 천하제일인지라 선객이 거주할 만했다.'

왜 아니 그럴까, 상무주암에 도착하니 지리산 주능선이 미닫이를 연다. 하봉, 중봉, 천왕봉, 촛대봉, 반야봉, 노고단에 이르는 수묵화에 정신이 팔려 상무주암에 대한 관심은 뒷전으로 밀린다. 그러다 문득 뒤돌아서면 '상무주'란 현판과 마주친다. 여기서 누구나 한번쯤은 무슨 뜻인지 갸웃할 것이다. 무주(無住)가 머물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그런 경지의 최상(上)위에 속한다는 뜻일까? 아니면 그 머무름조차도 초월한다는 것일까? 이 의문을 암주 스님이 풀어줄 수 있으련만 기다란 막대기로 빗장이 걸린 출입문과 사진촬영금지라고 적은 빨간 푯말에 가로막힌다.

해발 1000m의 칠암자 순례길
고사목 숲길서 만나는 암자
보조국사 정혜쌍수 흔적 남아

상무주암 현기 스님은 선방에서 용맹정진하던 수좌였다가 어느 날 홀연히 자취를 감춰버린 인물이다. 그런 그가 이 상무주암에 은둔한 지도 20년이 넘었다. 그 사이 칠암자길이 생기고 상주무암은 불자가 아닌 등산객에게도 널리 알려져 이제 그는 더 이상 은둔자로 살 수 없게 됐다. 20년 넘게 상무주암에 상주(常住)했으므로 무주란 말도 더 이상 의미가 없어 보인다.

해발 1,000m를 오르내리는 칠암자 순례길의 암자들은 세상과 멀어지려 일부러 거친 바위, 우거진 숲에 터전을 잡았으리라. 그러나 디지털 미디어의 비약적이고도 혁명적인 발달로 세상은 숨을 곳이 없어졌다. 지금 이 시각에도 칠암자 길을 스마트폰으로 검색해서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상무주암에서 문수암으로 가려면 깊은 숲으로 들어서야 한다. 고사목이나 바위를 덮은 검푸른 이끼, 고사리나 부처손 같은 오래된 양치식물들이 고생대 식물도감처럼 눈에 설다. 계곡을 타고 흐르는 시냇물 소리도 그때의 메아리처럼 멀고 아득하다. 그렇게 약간은 신비한 느낌에 빠져들기도 하며 숲길을 걷다가 문득 바위에 바짝 붙은 요사채를 만난다. 문수암이다.

문수암은 상무주암과 달리 여염집 분위기가 풍긴다. 암자 바깥에 내놓은 잡다한 살림살이부터가 그렇다. 법당 뒤편, 천인굴에 가지런히 놓인 맷돌이며 양은그릇, 플라스틱 바가지, 계곡물을 받아 담는 항아리까지 암자의 모든 것들이 속세의 물건들이다. 승복보다는 생활한복을 입은 스님이 거주할 것 같은 분위기이다. 암자 주인인 도봉스님은 외출 중이었다.

암자의 빈방에 들어가 관세음보살에게 삼배하고는 자리에 앉았다. 바깥과는 달리 아늑했다. 나는 불쑥 자리에서 일어나 불단 옆에 놓인 기다란 좌복을 방바닥에 깔았다. 가끔 그럴 때가 있다. 외진 절, 텅 빈 방에서 간절하게 절을 올리고 싶을 때가.

오뉴월에 드린 108배에 땀이 비 오듯 했다. 대신 몸이 가벼워지고 눈이 맑아졌다. 방문 사이로 보이는 지리산 하늘이 차고 새파랬다. 부처의 손에 들린 연꽃을 보고 빙긋 웃은 마하가섭인 양 마음이 여여해졌다.

도봉 스님은 현기 스님과 사뭇 다른 성향으로, 일흔의 나이가 무색하도록 산 아래 동네를 자주 다녀온단다. 소문에 의하면 현기 스님과 사형, 사제하는 사이라고 한다. 두 스님이 경허와 만공의 덕숭문중 법맥을 이은 혜암 스님의 상좌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문수암은 혜암 스님이 상무주암에 주석하면서 지은 절이니 절조차도 사형 사제 사이인 셈이다. 두 암자와 두 스님이 다르면서도 같고, 같으면서도 다른 것이야말로 사이의 본질은 아닐까.

칠암자에 처음 주석했던 보조국사 지눌은 고려 불교가 선종(禪宗)과 교종(敎宗)으로 대립했던 시기, 그 둘을 정혜쌍수(定慧雙修)라는 타협의 사잇길로 인도한 스님이다. 그런 스님이기에 상무주암과 문수암에 내재된 은둔과 소통, 무주와 상주의 이분법을 풀어주고도 남을 선지식인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상무주암과 문수암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이 두 암자와 나머지 암자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지리산 칠암자 가운데 영원사와 삼불사와 실상사가 왜 암자에 속하느냐고 따져 묻는다. 일곱이라는 숫자에 꿰맞추려다 생겨난 이름이 칠암자는 아닐까?

나는 생각한다. 의문과 사실 사이에 길이 있다. 그러나 그 길은 누구나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안개 자욱한 길, 방황 혹은 방랑이야말로 우리가 길을 떠나는 유일한 이유이다.



고원영(조계종 산악회 수석부회장)



지리산 종주길에는 참선하기 좋은 자리가 있다.



지리산을 내려다보는 문수암의 일부 경관.



실상사 가는길의 약수암서 상념에 잠긴 도반의 모습.

- 걷는길 : 도솔암 임도 – 도솔암 – 영원사 – 상무주암 – 문수암 – 삼불사 – 약사암 – 실상사
- 거리와 시간 : 14km 정도, 8시간 예상 (도솔암을 생략하면 10km 6시간 예상)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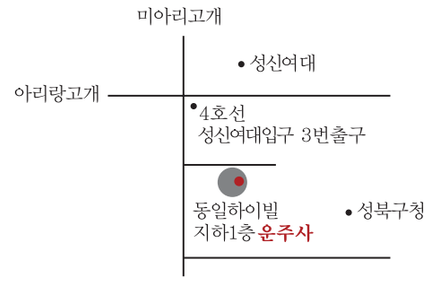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 고 제 작
www.yangjikukak.com

불교도서, 명상음반, 불교용품 전문
운주사





www.unjusa.com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Tel. 02-3672-7181



용수 스님(세첸코리아 대표)

티베트 불교 1분 명상

욕심 따라가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상적인 세계를 마음에 그립니다.

자신과 다른 이를 생각에 맞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고통스럽습니다.

비현실적인 기대를 내려놓으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욕심을 따라가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내려놓고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친절하고 만족하십시오.

자연스럽게 원하는 것을 갖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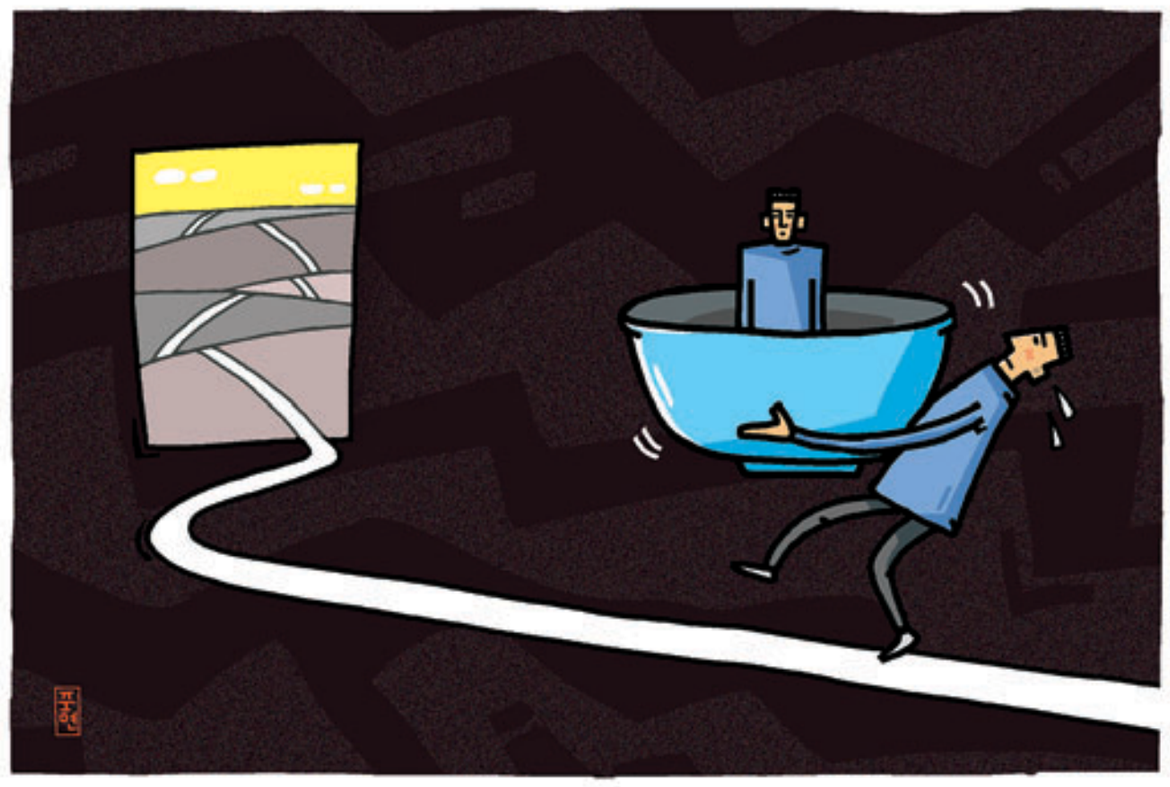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황선미(시인)

隨處作主, 내 삶의 주인공은 나

시작도 중간도 좋아야 참된 회향

초여름 골목마다 주황빛 능소화 넝쿨과 푸른 땡감이 담장에 고개를 걸치고 치자꽃 향기를 음미하는 듯, 비를 기다리는 대지의 갈증을 싱그러운 초록이 위로하는 계절입니다.

'빨리빨리 문화'라고 들어보셨지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문화라고합니다. 한국전쟁 후 폐허를 딛고 경제발전을 이뤄내면서 '빨리빨리 문화'는 긍정적인 면이 크게 부각되기도 했지만, 시작과 과정을 무시한 채 결과에만 집착하는 성과주의의 폐단을 낳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그 잔재는 사회 곳곳에 남아 있죠. 결과만 좋으면 과정에서 있었던 불편부당한 일은 덮어주는 게 관례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불교가 발생한 나라, 인도는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인도인들은 결과보다도 어떻게 일을 진행했는지 그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이유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가 자신의 업(業)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실제 그러하기도 하구요.

실제 인도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인들이 인도 지도자들에게 부정한 방법이나 뇌물을 주고서 특혜를 받으려다가 곤욕을 치렀다고 하지요. 《비유경》에는 과정보다 결과만을 중시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옛날 어떤 미련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는 어리석고 무식하기가 짝이 없었어요. 어느 날, 그가 다른 부잣집에 가서 삼층으로 지어진 누각을 보았습니다. 높고 넓고, 웅장하고 화려한 모습이 무척 부러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나보다 못한 저 사람이 이렇게 좋은 누각을 지어 가지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런 누각을 짓지 못했던가?"

집으로 돌아온 그는 곧 목수를 불렀습니다.

"저 집처럼 좋은 누각을 지을 수 있겠는가?"

"저 집은 바로 제가 지은 집입니다."

"그럼 나에게도 저와 똑같은, 아니 더 멋진 누각을 지어 다오."

이에 목수는 곧 땅을 고르고 벽돌을 쌓아 누각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부자는 벽돌을 쌓아 집을 짓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갑자기 의혹이 생겨 목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집을 지을 것인가?"

"1 · 2층을 먼저 짓고 나중에 삼층을 지을 것입니다."

"나는 아래 두 층은 가지고 싶지 않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은 삼층이다. 그러니 맨 위 삼층만 지어다오."

부자의 어리석은 말에 목수는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래층의 집을 짓지 않고 어떻게 2층집을 지을 수 있으며, 2층집을 짓지 않고 어찌 3층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 〈비유경〉 중에서

극단적인 비유이긴 하지만 과정을 무시한 채 결과만 중시하는 것은 1, 2층은 대충 건너뛰고 3층만 화려하게 짓는 어리석은 부자의 행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번듯하게 쌓아올린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도 기초공사가 부실했거나 공사비용을 줄이기 위해 규격이하의 자재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즉 과정을 중시하지 않은 게 사고의 원인인 것입니다.

발심이 시작, 정진은 과정
善業이 좋은 결과 가져오듯
참된 공덕에 편법 있지 않다

또 사업을 하면서 신문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등 승승장구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경우도 그 원인은 사업을 해오던 과정에 저질렀던 각종 비리와 부정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게 업 아닌 게 없다는 걸 항상 잊지않는다면 결과 못지않게 과정을 중시하게 되지 않을까요?

참된 회향의 길

불교에서 장차 좋은 과보를 얻기 위해 쌓는 선행을 공덕(功德)이라 말합니다. 이 공덕에는 편법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공덕을 쌓는 과정이 순수한 마음의 발로여야만 공덕이 쌓이지, 바르지 않은 마음이나 삿된 마음으로 공덕을 쌓으려고 하면 결코 공덕이 쌓이지 않습니다. 수행의 과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덕을 쌓는 참된 과정(善業)이 동반될 때 참된 회향(결과)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회향은 '회전취향(廻轉趣向)'의 준말로 자기가 닦은 선근공덕(善根功德)을 다른 사람이나 자기의 수행의 결과[佛果]로 돌려 함께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 바로 중생회향(衆生廻向) · 보리회향(菩提廻向) · 실제회향(實際廻向)입니다.

중생회향은 자기가 지은 선근공덕을 다른 중생에게 회향하여 공덕의 이익을 주려는 행위고, 보리회향은 자기가 지은 모든 선근(善根)을 회향해 깨달음의 과덕(果德)을 얻는 데 돌리는 것을 말하며, 실제회향은 자기가 닦은 선근공덕으로 무위적정(無爲寂靜)한 열반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대부분 불자일 것입니다. 불자라면 누구나 공덕을 쌓는 일에도 주저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쌓은 공덕을 회향하는 일에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회향법이자, 수행법이 10회향(十廻向)입니다. 10회향은 보살이 닦은 공덕을 널리 중생에게 돌리는 열 가지를 말하는데, 자리이타(自利利他)의 실천이기도 합니다.

〈화엄경〉에서는 한 사람의 수행자가 보살의 계위를 거쳐 성불하기까지 52위를 차례대로 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10신, 10주, 10행, 10회향, 10지 등입니다. 그 중 10회향은 ①구호일체중생이중생상회향(求護一切衆生離衆生相廻向)-보시 ②불괴회향(不壞廻向)-지계 ③등일체제불회향(等一切諸佛廻向)-인욕 ④지일체처회향(至一切處廻向)-정진 ⑤무진공덕장회향(無盡功德藏廻向)-선정 ⑥입일체평등선근회향(入一切平等善根廻向)-지혜 ⑦등수순일체중생회향(等隨順一切衆生廻向)-방편 ⑧ 진여상회향(眞如相廻向)-원(원) ⑨ 무박무착해탈회향(無縛無着解脫廻向)-력 ⑩ 입법계무량회향(入法界無量廻向)-지(지)입니다.

수행에 있어서 발심(發心)이 시작이라면, 정진은 과정이며, 공덕은 결과일 것입니다. 쌓은 공덕은 나를 위해 회향할 수도 있고, 중생들을 위해 회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수행에 임할 때 발심과 정진 그리고 공덕에 이르기까지 편법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이치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입니다. 〈끝〉



마음을 여는 불자들의 쇼핑몰 현불샵

현불샵 OPENMARKET이 불자여러분과 함께합니다

wwww.hyunbulshop.com

박태원 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비취목걸이 180,000원
비 취 팔 찌 80,000원
크기 : 약 8.5㎜ / 색상 : 진옥색

한국 전통 혼을 담아 제작한 전통 풍경

국내유일의 에밀레 풍탁

고즈넉한 산사, 도심포교원에 울리는 너무나 맑은 소리 풍탁

1. 에밀레풍탁은 백제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백제 금동풍탁을 모티브로 개발된 제품으로, 백제 금동 풍탁의 형태에 우리나라 최고의 범종인 에밀레종의 문양을 접목시켜 보다 화려하고 아름답게 디자인 한 새로운 형태의 풍경입니다.
2.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풍경은 지금의 형태가 아닌 타원형 또는 정사각 형태의 풍탁이 많으며, 하단의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이 아닌 구름 형태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3. 언제부터인가 전통적인 풍탁이 사라지고 원형에 물고기 바람판이 달린 풍경이 출현하면서 마치 우리나라의 전통 풍경인 것처럼 사용되고 있으나 실제로 조선시대 이전에 제작된 풍경에 지금 형태의 풍경은 없으며,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은 없습니다.
4. 우리 전통의 풍경의 모습을 되찾고자 지금까지 제작된 풍경중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백제 금동풍탁에 화려한 에밀레종의 문양을 어우러지게 하고 하단의 바람추도 전통 바람추의 형태에 연꽃 문양을 넣은 새로운 풍경입니다.

■ 규격 및 가격
「소」 85×65×135㎜ 15만원
「중」 110×80×160㎜ 20만원
「대」 140×95×200㎜ 25만원

■ 재질 : 청동







쑥 양초 세트

밀납양초 및 양쑥양초는 그을음이 없고 연소시간이 긴 장점이 있습니다.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제작한 천연 향초







약쑥양초는 특유의 상쾌한 향과 탈취효과로 잡냄새는 물론 머리를 맑게 합니다.

· 구성 : 6개 · 가액 : 30,000원
· 크기 : 높이 18㎝ × 지름 6㎝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위업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아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할인 행사
~~100,000원~~ → 90,000원



수제 햄머 Hammer

입점기념 세일 BIG SALE

장인의 숨결이 담긴 고결한 햄머

① 드립퍼



② NY900 유광



③ S800 유광



④ 스푼



① **드립퍼** – 고노형, 3~4인용
규 격 : 본체 가로 110×세로 95㎜
가 격 : ~~99,000원~~ ➜ 89,1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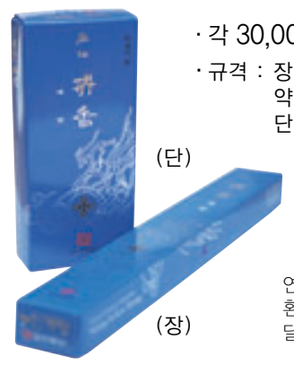
② **NY900 유광** (수제동 주전자)
주전자본체 : 105(W)×120(h)×900㎖
가 격 : ~~180,000원~~ ➜ 162,000원

③ **S800 유광**(수제동 주전자)
주전자본체 : 90(W)×140(h)×800㎖
가 격 : ~~240,000원~~ ➜ 216,000원

④ **스 푼** (수제동 스푼 S)
규 격 : 10g
가 격 : ~~15,000원~~ ➜ 13,500원

능인계향

능인계향은 진실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금강산 유점사에서 전해진 오분향 법제 그대로 기능성 약용향료를 사용하여 재현한 향입니다. 히말라야를 넘어 구해 온 다섯 가지의 향목과 꽃으로 법제된 능인계향은 그 절대적인 약성으로 기혈을 편하게 풀어주어 새벽예불에도 밤새 안정된 기운을 흐트리지 않습니다.



· 각 30,000원(장,단)
· 규격 : 장(24.5㎝) 약 1시간 10분
단(14㎝) 약 45분

연소시간은 피우는 환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기반방석 내부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을 모시고 법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당은 물론 옥외 법회 및 방생법회

장엄괘불

편리하게 휴대가 가능하고 손쉽게 조립하여 가방에 담아보관할 수있습니다.

제 품 설 명

■ 괘불 크기 : 가로 200㎝ × 세로 300㎝
■ 무 게 : 15kg
■ 구 성 품 : 휴대용 가방(괘불+설치틀+설명서)
■ 구입가격 : 56만원(주문 → 입금 → 배송)
■ 배 송 : 입금 후 5일내 배송 가능



삼베타올선물 SET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포함)